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일간) No. 636 1981년10월5일(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Monday, October 5, 1981

한국일보 토론토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ONTARIO M5S 1A5 OCT 7 1981

실협회장단선거 전초전

「정중동(静中動)」의 득표작전

차·임씨등 수명 출마예상

오는 11월로 예정된 온타리오 한인실업인협회 회장선거의 전초전이 조용히 일고 있다. 3～4 3～4명의 회장후보가 출마를 공공연히 밝혔으며, 어떤 후보는 이미 회원상점을 돌며 표를 점검하고 있다. 오는 9일자 본보에 게재될 총회및 회장단 선거공고안에 의하면 선거일은 11월27일(금), 회장단 입후보 마감은 11월11일(수) 이다. 이형인 현회장은 2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11월27일로 회장직을 물러난다. 대부분의 후보 희망자는 현집행부 임원및 이사진의 인물이며, 이들은 자천·타천으로 회장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밖에 예상외의 후보 C씨도 움직이고 있어 이번 실협회장단 선거전은 치열한 접전이 될 것이라고 협회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협회규정상 회장중임 제한조항이 없는 관계로 현 이회장의 중임문제도 여러번 거론되었으나 본인은 2일 "다시 회장에 나서지 않고 그대로 물러나겠다"고 재출마 거부태도를 확고히 표명했다.

이회장이 봉직한 지난 2년간 실협은 회원증가, 재정확보등 여러 면에서 크게 성장, 교민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권익단체로 확고한 기반을 닦았다.

집행부의 한 간부는 "그동안 우리는 우유회사, 잡지회사등 여러 회사와 협상, 회원들의 권익옹호를 위해 중요한 업적을 쌓았다. 앞으로 선출될 새 집행부가 우리가 해온 협상의 계속성등을 유지할 수 있나 하는 의문에서 이회장의 중임이 거론됐다"고 전했다.

출마의사를 공공연히 밝힌 차선겸씨는 30일 "괴롭다. 선거라는 것은 힘든 일이나 단 1표의 지지를 받더라도 밀어주는 회원들의 열과 성을 봐서라도 끝가지 뛰겠다"고 말했다.

차씨는 오랫동안 협회일에 관계해왔고, 현재는 협회 협동조합창설 준비위원장이다. 와이즈맨즈 알파클럽 회장인 차씨는 여러개의 상점을 소유, 재정적 실력가로 소문나 있다.

또하나의 후보자는 임철원씨. 현 부회장인 임씨는 2일"그간 이사로 2년, 부회장으로 2년, 도합 4년을 일했다. 주위의 강력한 추천이있어 회장에 출마키로했으며, 당선되면 경험을 살려 보다나은 회원권익을위해 힘껏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물망에 오른 협회간부 전윤식씨는 출기찬 출마설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다.

기타 일반회원 장모씨가 표를 점검, 출마를 가늠질하고있다.

익명의 한 회원은"현 집행부가 많은일을 했으나새 회장단은 회원들에게 좀더 공평한 회원권익을 위해애쓰는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새회장상을 말했다.

다른한 회원은"직접, 간접으로 어떤 후보를 밀어달라는 얘기를 벌써 많이 들었다. 그러나 현재 부각된 후보들이 지방색을 나타낸다는 소문이 들려 몹시 불쾌하다"고 말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 회원수는 550여명이나 3일현재 약 350명회원이 금년도 회비(50달러)를 납부, 이들에게만 회장선거권이 주어진다.

회장후보는 두명의 부회장 후보를 동반한다.

북아일랜드·아일랜드 공화국

영노동당, 통합지지

당대회서 결의, 보수당은 통합에 반대

(브링턴, 영국－) 영국의 야당인 노동당은 29일 북아일랜드에 대한 종래의 초당파적인 정책을 포기하고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공화국과의 통합을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노동당대변인은 이날 개최된 연례 당대회에 참석한 1천2백명의 대의원들은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공화국이 협상에 의해 통합하는 정책을 따르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정책은 84년 2월전에 실시될 선거에서 노동당이 현 지배당인 보수당을 누르고 승리할 경우 실현될것으로 보인다.

아일랜드는 1921년 카톨릭신도가 많은 남부와 신교도가 많은 북부 6개 카운티로 분할되었는데 북부는 영국에 귀속되고 남부는 1937년에 공화국으로 독립했다.

카톨릭교도들로 구성된 아일랜드 공화국(IRA)은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공화국의 통합을 위해 테러행위를 자행, 지금까지 영국군 3백45명을 포함, 2천1백46명의 희생자를 내게했다.

영국의 현집권당인 보수당은 북아일랜드는 신교도가 카톨릭교도 보다 2배나 많은 사실을 상기시키고, 북아일랜드 거주민 대다수의 의견에 상반되는 어떠한 강제 통합도 반대한다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한일은행

국제차관 참여

(뉴욕1일＝연합)한국 한일은행은 1일 알젠틴과 6억달러 차관 협정체결을한 은행들중 일원으로 참가해 한국민간 은행들중 처음으로 외국차관은행이 됐다.

이번 차관의 형식은「국제 신디게이트 론」은 거액의 차관을 줄때 여러은행이 참가하여 차관의 일부를 담당하는 제도다.

한일은행은 동차관중 백만달러를 담당했다.

한일은행의「국제신디 제이트 론」의 참여는 한국은행계의 국제화와 해외시장 확장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금융계에서는 풀이하고 있다.

한국외환은행 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국제차관에 참여해 왔다.

한인탁구대회

남녀개인·복식·단체전

한인탁구협회(회장 정영모)는 오는 10일(토) West wood JR·High School 에서 제1회 탁구대회를 갖는다.

정영모 회장은"이번탁구대회를 발판삼아 앞으로는 정말 순수하고, 탁구선수양성을위한 대회로 만들겠다. 특히 교회, 동창회등의 납득할수있는 사실상의 순수 단체팀의 신청을 바라며, 가능한한 시합전에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심판위원장은 동협회 총무이며 현역선수였던 김동천씨 이다.

연락처 : 922－9435(정영모), 243－0522(김동천)

피납 印度여객기 특공대 投入구출

(라호르(파키스탄)－) 일단의 파키스탄군특공대가 30일 라호르공항에 납치중인 인도여객기를 급속, 비행기를 납치해온 시크족 납치범 10명을 체포함으로써 만2일간에 걸친 인도항공소속 보잉737기의 납치극을 종식시켰다고 파키스탄 방송이 발표했다.

시크족들인 이들 범인들인 승객 1백여명을 태우고 가던 인도국내선기를 납치, 파키스탄으로 강제비행케 한뒤 시크족반정부인사의 석방과 50만달러의 인질보석금을 요구하면서 이날까지 라호르공항에서 대치하고 있었다.

파키스탄방송은 특공대가 어떻게 납치범들을 급습했는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다만『용감하게 범인들을 덮쳐 체포했다』라고만 말했다.

교민의 벗
한국일보·토론토
구독은
533 2361

◁금주의 행사▷ (10월 5일 ～ 11일)

◇10월 5 일(월)문협「신춘문예현상모집」시작
연락처 : 533－2364(Mr. 리)

◇10월 7 일(수)하오7시 : 개업자축연
Lisbon Auto Body(35 Primrose Ave.)
연락처 : 533－8507～8(Mr. 리)

◇10월 7 일(수)하오5시～9시 한국초대작가 합동미전
리셉션(123 Queen St. W.)
the Sheraton Centre Windsor Room
(특설화랑)

◇10월10일(토)상오9시30분 한인친선탁구대회
West Wood Jr. High School
(994 Carlaw Ave.)
연락처 : 992－9435(Mr. 정)

◇10월10일(토)하오6시30분 한인청소년「우리말 잘하기대회」 한인회관(20 Mobile Dr.)
연락처 : 789－7352

◇10월10일(토)하오7시 : 서울사대동창회
동궁식당
연락처 : 978－3299(Mr. 백)

◇10월11일(일)하오7시30분 : 창립5주년기념예배및
장로장립
미시시가한인연합교회(2500 Mimosa Row. Mississauga)
연락처 : 277－2394, 276－5163

[편집자주 : 본사는 교민사회의 행사를 매주 월요일자에 종합게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행사를 간접지원키로 했읍니다. 종교단체의 정기적 종교집회는 본란에서 제외됩니다. 본란게재를 희망하시는 행사주관자는 전화 533－2361 김종환기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식 자 부 장 : 박 부 용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제6회 사진촬영대회

〈3 등〉「광」(光) (칼라)

임 윤 재

노력에 비해 작품은 따라가 주질 못했다.

새벽 햇살에 역광촬영을 시도한 그 용기는 높이 평가하나 자칫 잘못하다간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조잡한 사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작년에 대어(大魚)를 나꿔 금년에도 큰 기대를 걸어보았다.

이 인 덕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각종보험

B) 497－3800
R) 284－9052

토론토 쇼핑의 전당
미도파
454 BLOOR ST. W
B. 536 1692
R. 245 3539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주식회사 황용현 부동산

금주의 새 리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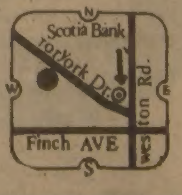
도넛샾 :
①주매상 $3500. 6개월된 전망 밝은지역
렌트 : $3000, 10년＋10년. 옵션. $90000다운
가격 : $180,000
②월순수익 $9000보장. 운영이 간단하고 시간짧음
렌트 : $1,060. 8년＋10년옵션. $140,000다운
가격 : $185,000

커피샾
①5일간 영업. 7시부터 5시반까지 오픈.
주매상 : $2,500. 렌트 : $1,225. 3년＋3년옵션
가격 : $75,000

버라이어티 스토아
①주매상 : $5,500. 렌트 : $750. 5년＋3년
가격 : $50,000
②주매상 : $6,700. 새로꾸민 전망 밝은가게
넓은 방갈로
(던다스와 Hwy427)교통이 편리하고 벽돌로 된 단층집. 3 베드룸. 파이어 플레이스 2개. 65×170. 뒷 마당크고 잘 단장된 큰 지하실 $65,000다운. 17% 2년간 물개지 잡아줌.
가격 : $164,900

101 DUNCAN MILL RD. SUIT404
DON MILLS. M3B 1Z3
(B) 449－8644, (H) 286－1548

20년의 경력을 자랑하는
NORTH YORK AUTO BODY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24시간 토잉써비스★630－0000
어느때를 막론하고 토잉해 드립니다.
●사고차량 완전수리
●페인팅(oven baked finish)
●수리중 차량대여
●각종차량 일체취급
Towing 완전설비된 Licensed Oven Baked Finish
교포우대
(B) 749－0555
(R) 881－4053
215 TORYORK DR.
1 block North of Finch
West of Weston Road.
송 대 헌


WANIN TAEKWON-DO
THE LEADING STYLE
IN THE ART AND SCIENCE
OF TAEKWON-DO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무도진수와 지도권위로

1. 고상한 인격도야와 신체단련을 시킨다
2. 강한 개성의 확립과 신념의 인간을 만든다
3. 위기를 무난으로 피하는 자기능력을 키워준다
4. 문제아 선도및 학업능률을 향상시킨다

※한국인 자녀를 특별할인우대·한국인사범 직접지도

KYONG LEE TAEKWON-DO CENTRE
H.Q.: 615 YONGE ST., at Isabella, Toronto (416) 929 5511
NORTH: 2281 YONGE ST., at Eglinton, Toronto (416) 483 4002
EAST: 1865 LAWRENCE AVE. E. at Pharmacy, Scar (416) 759 2500
OVER ALL CALL (416) 462 3000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기뻐날뛰는 카나다 대표단—8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캘거리로 결정되자 IOC총회에 참석중인 카나다 대표단이 환희작약하고 있다.〈바덴바덴—UPI〉

'88올림픽 긍정적 반응 경제불황 탈피계기

(서울2일=연합)88년 하계올림픽 서울개최 뉴스는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한국상인들은 오랫동안의 불황을 벗어날수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번 올림픽으로 스포츠용구, 선물, 수공예품 뿐 만 아니라 경·중공업 품들의 수요도 급증할 것이라는비지네스계의 전망이다.

올림픽 대회를 대비해서 사회전반에 걸쳐 직접, 간접투자가 왕성하게 되고이로써 침체상태에 빠져있는 경제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리라는 것이 경제계의 공통된 전망이다.

한편 축제무드는 사람들의 구매력을 촉진시켜국내 수요가 증가되고 특히 관광수입의 증가가 예상된다.

한국은 이미 86년 아시안올림픽을 서울에 유치 국제스포츠계 시선을 모으게 됐다.

베스트10등 뽑아
고교동창골프대회

지난26일 81년도 토론토의 한인고교동창 골프대회가 경기고교동창회(회장 윤호영) 주관으로 롤링힐스 골프클럽에서 28명이 겨룬끝에 아래와 같이 입상자가 결정됐다.

◇단체상(베스트 · 스리의 총점 합산)
그로스 1등 : 경동(269)
〃 2등 : 경기(274)
〃 3등 : 대광(279)
〃 4등 : 경복(280)
넷 트 1등 : 성동
◇개인상
그로스 1등 : 박영철(75)
〃 2등 : 초호영(79)
〃 3등 : 고광남(85)
넷 트 1등 : 김진호(73)
〃 2등 : 유영갑(74)
〃 3등 : 이영현(74)
◇롱게스트 : 박 영 철
◇니어리스트 : 백효중
◇MHG : 서동준
◇베스트 텐
박 영 철(75)
최 호 영(79)
고 광 남(85)
이 광 민(86)
이 창 희(87)
최 상 수(89)
곽 창 수(90)
김 진 호(91)
이 준 규(91)
김 형 분(93)
최 종 원(93)

유행보다 기호중시 한국여성 옷선택때

(서울2일=연합)한국도시 여성들은 옷을 고르는데 유행을 따르기 보다는 그들의 기호에 맞는옷을택한다는 사실이 한국 섬유회사 제일합섬의 여론조사에 의해 밝혀졌다.

서울에사는 가정주부, 여대생, 직업여성등 8백 여명의 표본을 대상으로한 조사에서 대상자중 96%가전년도에 적어도 1벌내지2벌의 수트나 드레스를 샀고, 이들중 87.4%가 맞춤복이 아닌 기성복을 샀다.

조사대상자의 75.5%는 옷을 고르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팻숀모드가 아니고 개인적 기호라고 말했다. 이렇게 말한 여성들중 70%는 옷을 선택하는데 외양보다는 실용성을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토론토
구독은
533 2361

두번째 한인변호사
뱅쿠버 김종만씨

◇김종만 변호사

(뱅쿠버지사)서부카나다에서 최초의 한인변호사가 탄생하였다.

김종만(28)씨는 최근, 변호사 자격을 획득하고, 뱅쿠버에있는 합동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다.

김씨는 연세대학교 상경대 재학중 72년에 뱅쿠버에 이민온후 토론토의 단스뷰고교 13학년을 졸업하고, 이듬해 몬트리얼의 매길대학교 상과대학에 입학하여 회계학과 재정학을전공, 상학사학위를 받았다.

77년에 노바스코시아 주 헬리팩스의 댈하우시 법과대학에 입학하여 3년간 법률학을 전공, 80년에 법학사학위를 획득하였다.

1980년7월 뱅쿠버에있는 Hogan & Company변호사 사무실에서 1년간 연수과정을 이수하면서 소정의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 지난7월에변호사 자격을 획득하였다.

김종만 변호사는 계속해서 동일변호사 사무실에근무하면서 주로 사업, 부동산, 이민, 이혼문제를 취급하고 있다.

캐나다 한인 이민역사상 각종 전문직종에 많은 교민들이 종사하고 있으나변호사는 캐나다 전국에서토론토 강찬영에 이어 뱅쿠버에서 두번째로 탄생한것이다.

「한인변호사의 탄생은교민사회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모씨의 표현은 한인계 법률전문가를 고대하던 교민사회의 요구를적절히 표현하고 있다.

「축하합니다 교민들의기대가 큽니다. 따라서 책임도 무겁겠읍니다」라는 기자질문에「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면서 성심성의를 다하여 교민사회를 위해봉사하겠읍니다」김변호사는 말하였다.

「그동안 교민들의 법률상담은 많이들었읍니까?」「네 구체적인 말씀은 드릴수 없읍니다만 사업, 부동산, 이민, 이혼등 우리 교민사회에서 자주 부닥치고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많이 찾아 주시고 있읍니다」

앞으로 법률전공을 하려는 후배들을 위해 변호사가 되는길은 무엇이냐는질문에 대한 김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우선 전공에 관계없이 최소 한 학사학위를 받은후 LSAT(북미 법과대학입학시험)시험을 치르고, 학부성적과 교수추천에의해 법과대학에 입학케된다.

법과대학 졸업후 1년간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수과정(Articling)을 거쳐야 하고, 이동안 거주지 주 Law Society 에서 시행하는 10과목의 강의를 주2회씩 받고, 매월 1회 시험을보아합격케 되면 변호사 자격을 획득케 된다고한다.

김변호사는 전 연합건설 사장인 교포 김재억씨의 3남으로 두형(종대, 종호)이 뱅쿠버에 살고있으며, 작년 결혼한부인 임경자 씨와의 사이에 아직 자녀는없다.

김종만변호사 사무실은 HOGAN & COMPANY, Suite 1205—1177 W. Hastings St, Vancouver, B·C. Tel.(B)689—7455 (R)434—5920

프로복싱 헤비級 챔피언 世紀의 10人은…

最强者는 갤베스톤巨人 존슨

37세에 타이틀 따내 7년동안 席卷

현대스포츠의 총아가 프로복싱이라면 그본무대는 단연 헤비급이다. 79.95킬로그램 이상되거한들만을 대상으로하는 이체급은 체중의 하한만 있을뿐 상한이 없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무자비한 주먹들의 각축장으로 숱한 명승부를 장식해왔다. 1892년 제임스·코베트를 초대챔피언으로 하는 세계헤비급은 지금까지 총33명의 챔피언을 배출하면서 현재는 래리·홈즈(WBC)및 마이크·위버(WBA)가 왕위를 계승하고 있다. 지난90년간 세계헤비급을 주름잡아온 이들 철권들중 특히 두드러지는「세기의 주먹」10명을 간추려 이들의 기록과 전적을 되돌아 보기로 한다.

역대 세계헤비급챔피언중 누가 가장 강한가하는것은 그기준이 문제가 될수밖에 없다. 그러나 세계각국의 복싱전문가들은 대체로 (1)잭·존슨 (2)제임즈·제프리스 (3)제임즈·코베트 (4)잭·뎀프시 (5)조·루이스 (6)로키·마르시아노 (7)조지·포먼 (8)진·터니 (9)막스·슈멜링 (10)무하마드·알리의 순으로 점수를 주는데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 그기준은 우선 KO율, 방어회수, 전체승률, 챔피언방위기간, 대전상대등을 중심으로선정한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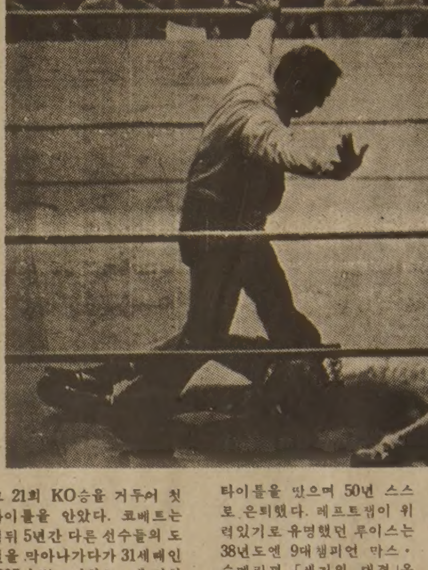
헤비급왕자의 계보는 존·설리반(1828~1892)을 초대 챔피언으로 보는 경우도 있으나 체계화된 근대복싱에선 1892년부터 5년간을 지배한 제임즈·코베트를 효시로 삼고 있으며, 이들 10명 역시 코베트이후부터 챔피언들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1)잭·존슨=제5대챔피언인 존슨은 1908년 왕좌에 즉위, 1915년까지 만7년간 세계주먹왕자로 군림했다. 이기간동안 [illegible]가 세운 전적은 통산 92승7패14무승부. 무승부가 많은것은 당시의 판정방식때문이며 KO승은 모두 44회를 기록했다.

「갤베스톤의 거인」이란 별명을 가졌던 존슨은 무려 37세때 토미·번스를 14회 KO로 제압, 타이틀을 따냈다. 모두 7패나 기록했음에도 각국 전문가들이 그를 최우수 챔피언으로 꼽은것은 이와같은 연령적인면도 감안이 된것으로 보인다.

(2)제임스·제프리스=제프리스는 1899년 통산 3체급을 획득, 가장 위대한 복서중 하나로 꼽히는 봅·피치몬즈를 11회 KO로 누이고 3대챔피언에 올랐다. 그는 이뒤로도 만6년간이나 왕좌를 지켜나가다가 1905년 타이틀을 스스로 반납, 이를 빼앗기지 않은채 은퇴한 최초의 헤비급챔피언으로기록되고있다. 제프리스는 코베트와 두차례 대결, 모두 KO승한 기록이 남아있다.

(3)제임즈·코베트=근대복싱사상 최초의 헤비급챔피언인 코베트는 1892년 존·설리반과 대결, 예상을 뒤엎고 21회 KO승을 거두어 첫 타이틀을 안았다. 코베트는 이뒤 5년간 다른 선수들의 도전을 막아나가다가 31세때인 1897년 봅·피치몬즈에 명치를 맞고 14회 KO패, 타이틀을 잃었다. 코베트는 1903년 은퇴한뒤 33년 사망하기까지 영화배우로도 명성을 떨쳤다.



마르시아노 無敗은퇴

(4)잭·뎀프시=제7대 챔피언인 뎀프시는 1919년부터 7년간 헤비급아성을 지키는 동안 60승(49KO)7패8무승부를 기록, 6할이 넘는 KO율을 남기고 있다.「망치」란 별명을 가졌던 뎀프시는 제스·윌라드를 3회 KO로 눌러 타이틀을 딴후 7년뒤 진·터니에 10회판정패해 정상서 물러 나기까지 공포의 강타자로 일세를 풍미했다. 특히 파이팅이 뛰어나 접근전에선 그를 당할 선수가 없었다.

(5)조·루이스=생애통산 68승(54KO)3패, 81%의 KO율에 13년간 25차방어에 성공한 불세출의 복서. 37년 짐·브래독을 8회 KO로 눌러 타이틀을 땄으며 50년 스스로 은퇴했다. 레프트잽이 위력있기로 유명했던 루이스는 38년도엔 9대챔피언 막스·슈멜링과「세기의 대결」을 가져 1회 KO승, 성가를 높였다. 2차대전을 전후해「갈색폭격기」란 애칭으로 통했던 루이스는 금년봄 타계했다.

(6)로키·마르시아노=이탈리아계의 미국인인 마르시아노는 역대 헤비급복서가운데 무패로 은퇴한 유일한 선수. 생애통산 49전전승, 43KO승으로 무려 92%의 KO율을 기록했다. 왼쪽훅과 라이트카운터의 위력은 그어느선수보다도 뛰어난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69년 비행기 사고로 사망했다. 18대 챔피언 조·월코트를 13회 KO로 눌러 타이틀을 빼앗은후 이듬해 리턴매치에선 1회 KO승을 거두기도했다. 그의 방어상대 중에는 에잘드·찰스, 돈·코겔, 아차·무어등의 강호가 포함돼 있었다.

(7)조지·포먼=제27대 챔피언으로 73년 조·프레이저를 5회KO로 눌러 왕좌에 올랐으나 이듬해 무하마드·알리에 8회 KO패 은퇴해 버렸다. 비록 재위기간 21개월에 불과하지만 포먼은 40승(40KO)1패를 기록, 역대 헤비급복서중 가장 높은 96%의 KO율을 마크했다. 알리에 유일한 1패를 기록한 포먼은 미련없이 은퇴, 전도사로 활동중이다.

(8)진·터니=8대챔피언으로 56승(41KO)1패1무를 기록했다. 70%가 넘는 KO율로 1차대전을 전후한 20년대에는 신화적존재로 한시대를 장식한 철권. 이같은 인기로 26년 잭·뎀프시에 도전했을때는 무려 15만명의 관중이 운집, 사상최초의 1백만달러 대전료를 받았다. 그는 또 타이틀을 빼앗기지 않은채 은퇴한 복서로도 유명하다. 주무기는 라이트스트레이트로 대부분의 KO승은 이에 의해 기록된것.

(9)막스·슈멜링=제9대 헤비급챔피언. 진·터니가반납한 타이틀을 놓고 잭·샤키와 대결, 판정으로 이겨 챔피언에 올랐다. 당시 슈멜링과 샤키등 두라이벌의 대전은 프로복싱의 붐을 가져다준 최고의 흥행성과를 낳기도 했다. 슈멜링은 샤키를 눌러 챔피언에 오른지 2년뒤 샤키에게 판정패, 타이틀을 물려주었다.

(10)무하마드·알리=57승(37KO)4패. 64년 소니·리스턴을 7회 KO로 눌러 28대챔피언에, 74년 조지·포먼을 8회 KO로 눌러 31대챔피언에 올랐다. 알리는 지난해 가을 현 WBC챔피언 래리·홈즈에 도전, 3번째로 챔피언에 복귀한 사상첫 헤비급복서를 노렸으나 실패했다. 비록 중간에 공백은 있지만 64년에서 '78년 첫 은퇴발표때까지 14년간이나 세계정상권을 유지했음은 다른챔피언에게선 볼수없는일. 이같은 인기로 그는 한경기 6백만달러(74년1월)의 당시신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鐵拳중의 鐵拳…전문가들이 보는 주먹順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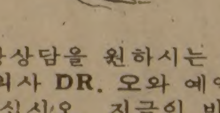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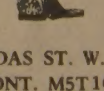
①존슨 ②제프리스 ③코베트 ④뎀프시 ⑤루이스 ⑥마르시아노 ⑦포먼 ⑧터니 ⑨슈멜링 ⑩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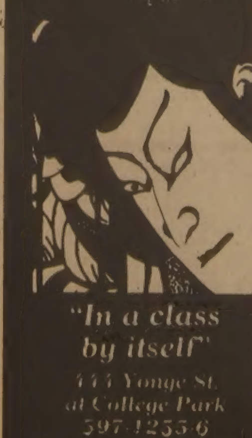
◇시원하시겠읍니다—샌디에고 근처의 블랙스비치는 전국에서 가장 큰 누드비치의 하나. 사진은 90도 가까운 더위를 피해 홀랑벗은 누드족들.〈UPI〉

— 정 정 —

본보 3일자 1면에 게재된 올림픽관계 사진설명중 〈박종규IOC위원〉이라한 것은 〈조상호 KOC(한국올림픽위원회)회장〉의 잘못이기에 바로 잡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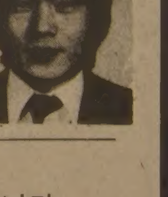
현재 한국의 I.O.C.위원은 김택수씨입니다.

GREAT CHINA HERBS CENTRE
녹용과 인삼을 건강관리에
좋은 보약으로 당신의 건강을 유지해 드립니다.
■우황청심환, 우황, 녹용, 웅담, 사향, 해구편, 정주사
동양인에게는 역시 인삼, 녹용처럼 좋은약은 없읍니다.
中国商業

전강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의사 DR. 오와 예약해 주십시오. 지금이 바로 보약을 잡수실 시기입니다.

大中華薬材行
482 DUNDAS ST. W. TORONTO, ONT. M5T1G9
P.O. BOX 5181
STATION 'A' TOR.,ONT.
(Spadina와 Dundas북동 코너)
OPEN : WEDNESDAY
CLOSE : TUESDAY
*영업시간 : 9 : 00AM~9 : 00PM
977—8858~9

일본스테이크 집

전형적인 일본식
STORE HOURS
평 일 :
스페샬점심시간
11 : 45AM~2 : 30PM
5 : 00PM~11 : 00PM
토요일 :
5 : 00PM~11 : 00PM
일요일은 문을 닫지만 예약에 한해서는 언제든지 일을 합니다.
※파티, 단체예약등 환영함.
"In a class by itself"
Yonge St. at College Park
597-1255-6
Reservations accepted

뉴서울

아늑한 분위기와
세련된 서비스
그리고
달콤한 음악은
뉴서울 만의
자랑입니다.
부인 모시고
친지들과 어울려
하루의 피로를 날려 버리세요.
밴드·가수·무용단 매일 공연함
장 소 : 오리엔탈 팔레스2층
주 소 : 529 BLOOR ST. W.
전 화 : 533—3545~6, 533—1500

Grant Brown
차가 필요하십니까?
이한구를 찾아주십시오.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82년형 J-2000

잘 정비된 백여대의
Used Car들이 있읍니다.
1575 WESTON RD.
WESTON, ONT
(B) 247—7161
(R) 977—2731

<생활정보>

심리상담의 필요성

— 심리상담실을 열며

김 보 경(심리학박사)

△김보경박사

1. 심리상담 개업의 동기는?

제가 우리 한인 이민가정의 자녀교육문제, 가정문제 직업문제, 그리고 이민생활이란 특수한 상황아래 일어날수 있는 여러가지개인적 스트레스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것은 오래전부터 입니다.

본고장에 그냥 눌러살아도 문제가 있는데, 생판낯선곳에와서 사는 우리들이 언제나 마음편하게 살수없으며, 자녀들은 학교에서말 잘못하고, 행동양식이 다르니 선생님들 눈에 잘못하면 바보스럽게 보일수도있고, 우리 성인들도 직업에 있어서나 사회지위에 있어서 인정받지 못함에서 오는 괴로움이 언제나 있을수 있으니 이러한 여러 고민은 반동적으로 여러면에서 예를들어 부부생활에까지도 악영향을 끼칠수 있지요.

그래서 저는 이민적응문제와 정신위생문제에 대하여 기회있을때 마다 세미나나 신문등을 통하여 토의해 왔읍니다.

그러나 고민을 가진분과 직접 개인적으로 면접하고 상담해야할 경우가 점차로 많아짐에따라 주말을 이용해서라도 토론토에 사무실을 여는것이 좋겠다고 생각 하였지요.

물론 토론토에는 백인심리학자도 많이 있지만 정신적 고민등은 육체적병과는 달라 언어, 가치관, 습관등이 다르면 이해하고 상담치료하기가 힘이들지요. 또 개인문제, 가정문제등에 목회를 통하여 많이 접하시는 목사님들과 선배, 동료들의 전문적 심리상담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심에따라 용기를 얻었읍니다.

2. 심리상담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가?

심리상담이니 심리치료니 정신건강이니 하면 꼭 행동이나 그 사고력에 있어서 보통 일반적인 사람과 완전히 판이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것 같은 오해를 가질수 있읍니다만사실은 그렇지않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마음에 근심이나 고민이 있을때, 친구를 찾아가서의논하거나, 목사님이나 신부님에게 의논하는것과 같이 심리학자에게 찾아가 의논할수 있지요.

심리학자란 그러한 개인적 정신적 고민거리를 가지고 찾아간 사람에게 좀더 좋은 의논상대가 될수있게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사람에 지나지 않지요. 의사의 경우에도 병이 너무나 들어 죽게된 사람에게는 손댈 방법이 별로없고, 오히려 비교적 건강한 사람에게 계속 건강을 유지할수 있도록 돕거나, 또 초기진단을 통하여 병을 일찍 치료하거나 예방하는데서 그의 능력이 더 발휘되는것과 마찬가지로 임상심리학자들도 예방이나 초기치료를 더 강조하고 있지요.

예를들어 이혼단계에서 결혼상담자를 찾기보다 부부간에 어떤 갈등을 의식하기 전후해서 의논을하면 보다 도움이 되지요. 부부가 부부아닌 원수가되어찾아가면 누군들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그때도 무슨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3. 어떤 문제를 주로 취급하려고 하는지?

저는 스트레스(Stress)와 관계되는 문제를 주로 치료해 보려고 합니다. 스트레스란 말은 근심, 걱정, 고통, 두려움, 긴장등과 비슷한 뜻인데, 이 스트레스를 완화하거나 또 스트레스를 줄만한 상황에서 이길수있게 훈련을 받으면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보다 건강하고 명랑한 생활을 영위할수 있지요.

사람이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체적 기능도 어려워 지지요. 소화문제, 혈압문제등도 이 스트레스와 관계되어 있다고말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어떤면에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들은 그 스트레스 상황에서 도피하려고 하는데, 이 도피의 현상으로 자녀들의경우에는 학교에 가기싫어하거나, 부모를 피하거나, 약을먹거나 하는 현상도 생길수있고, 또 성인의 경우 비사교적이 되거나 또는그 도피가 어려우면 공격적이고 또 파괴적인 행동도 나올수 있지요.

우리 동양인들은 본래부터 이 스트레스를 이길만한 힘과 스트레스를 일으킬만한 조건하에서 오히려 마음을 편안히 가질수있는 여러기술을 개발해 왔는데, 저는 이 기술을 현재 심리학에서 발달시킨 여러가지 치료방법과 견주어서 적절히 응용하려고 합니다. 지나친 긴장감이나 공포심없이 살면 얼마나 우리생활이 창조적이 되겠어요?

4. 상담료 문제

상담료는 온타리오 심리학회의 심리상담료 스케쥴에 의거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저는 첫번 면접시, 비용에 관하여 미리 의논을 하겠읍니다. 의사의 추천에 의하여 상담을 받으시는경우 상담료는 면제혜택을받습니다.

5. 상담 받는 절차

전화를 미리해서 예약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5회에서 10회정도의 면접이 필요합니다.

여러번 만나서 얘기하는 중에 문제의 성질도 정확히 파악하고, 또 적절한 치료법도 모색할수 있읍니다. 때로는 여러심리 검사도필요합니다.

심리상담은 과학적인 것이므로 몇마디 듣고 해결법을 제시할수가 없읍니다. 개인에게 따라 문제가 다르고, 개인자신이 어떤문제가 더 근본적인 문제인가를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읍니다.

자기 개인문제를 남에게 얘기하기가 힘이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만 심리상담자들은 상담내용을 절대 비밀로하는 윤리를 지키고 있으므로 이 점에는 안심해도 좋지요.

심리학자를 만나 의논하는것을 부끄럽게 생각한것은 옛이야기 이고, 지금은 오히려 심적고통이 있을때 상담을 요청하는것이 당연할뿐 아니라, 그만큼 자기의 정신위생에 관심이 있다는 것으로 자랑스럽게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읍니다. 패밀리·닥터가 있고, 단골변호사가 있는것처럼 단골 심리학자나 정신의사를 둔다는것은 현재 서양 중류가정의 보편적인 경향입니다.

제가 보통날은 토론토에서 떨어져있는 Pene tang이란 곳에 살고 있으므로 그곳 전화(705)549—3454 에 전화하시면되고, 토요일에는 토론토 사무실에 있을 경우가 많으니 토론토전화 923—3336으로 연락하면 예약할수 있읍니다.

교 민 동 정

◆신성열＝오랫동안 존·A·휴스톤회사의「시니어」구매부장을 지낸신씨(51) 는 최근 동회사의 재무담당이사로 승격했다. 이민초기인 65년 캐나다에온 신씨의 승격은 그로브·앤드·메일지, 토론토·스타지등의경제란에도 소개됐다. 존·휴스톤회사는 의약품, 화장품제조회사로 80년의 역사를 가졌다. 신씨는 한인천주교 신도회장을 지냈으며, 부인 신현순여사는 미시사가 도서관의 사서보조원(어시스턴트·라이브라리언) 차남 앤디군은 토론토대학 법과대학 1년생이다.

◆박영림(수학박사)＝최근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돌아와 토론토대학교의 박교수는 지난 26일 스카이라인·호텔에서 있은「일심회」모임에서「중동의 한국인」에 대해 강연했다. 박교수는 4년전인 77년 재직중이던 토론토대학에서 1간 휴가를받자 사우디의「다람」에 있는·대학교의 초빙교수로 초청됐다. 박교수는 중동에있는 10만명의 한국인에 대해 책을 저술중이다. 「일심회」는 강화연, 신성열씨등이 중심이된 친목모임이다.

◆조규혁(보험인)＝종합보험 에이젠트로 성장한 교포 보험인 조씨는 오는4~27일까지 모회사 소브린 보험회사의 초청으로 모나코의 몬테·칼로 보험인콘벤션에 참가한다.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0. yr. $8. mo. 구독료(선금)연 $90. 월$8. 영구구독 $500. ISSN03192962. 2nd Class Mail 5248.(416) 533—2361~4

광고는 사업을 번창시킵니다
문의처 본사 광고국 533—2361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매일연재 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70)

팔리·모왓 원작, 원 재 훈 옮김

노인들이 젊었을때도 그러했으니까. 그러나 겨울만 되면노인들의 생명은 값어치가없는 전당물처럼 되어버린다.

겨울에 먹을것이 떨어지고 기근이 오면 노인들이 먼저 죽어야 한다. 이것은 모든사람이 다아는 사실이지만 절대로 입밖에 내는 사람이 없다. 여름에는노인들이 젊은이들에게 많은 절제를 요구하는반면 또그만큼 자유롭게 살고있다.

겨울에는 젊은사람이 노인에게 다아가서 깊은 밤중에 밖으로나가 돌아오지 말라고 요구할수 있다.

하우믹은 또한 즐거운인생을 살고있다.

1947년 여름에 칼라이라는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를 낳고 큰행복감을 가졌다. 위로 다른 세 아이는 일년도 채못가서 조그만 돌무덤 밑에 뼈를 묻힌채로 있었다. 그러나 칼라는 틀림없이 잘 살것이다. 돌아오는 겨울에는 동네사람들이 잡아논 많은 사슴고기가 있기 때문에 이 예쁘고 건강한 아이는 잘먹어서 살이 통통할 것이다. 하우믹은 여름철에 할일이 많지만 인생도 즐긴다. 가을까지는 옷을 만든 일이 없지만 말린 고기인 닢구를 산으로 내다 말린다. 햇볕이 나면 파리떼가 들끓기 전에 고기를 뒤집어 놓아야 하고 비가올듯하면 흩어져있는 고기를 몰아가지고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집안식구들을 위해서 하루에 5번은 상을 차려야 되며 오호토와 헤카우의 가족들이 두셋은 늘 오고가서 이들도 대접을 해야 한다.

하루에 적어도 세네번은 고기기름과 뼈를 고은 국을 끓이고 또 두번은 차거나 덥게 삶은 고기를 내와야 식구들이 좋아한다. 여름에는 또 개밥을 두는 것이 하우믹이 하는일과중의 하나이다. 개는 세마리 밖에 없기 때문에 큰 일거리는 아니며 오텍의 개는 그 전해에 굶어서 모두 죽어버려 이 봄에 얻은 것들이다.

이 세마리의 개는 아직 썰매를 끌때가 되지 않아서 집주위에서 마음대로 놀고있다. 개들은 장만 해놓은 음식은 마구 훔쳐먹어 하우믹에게 매우 귀찮은 존재들이지만 그렇다고 묶어두지는 않는다.

이할미우트는 개를 사람처럼 취급한다. 곧 눈이 쌓여 기동이 어려워지면 개들과 사람은 똑같이 고생을 하게 된다.

이할미우트는 개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개들이 어리고 생활이 편안한동안 마음껏 놀게 두어라 무엇이든지 어릴때는 자유로운것이니 내버려 두어라" 그래서 개들은 아트날릭이 모형썰매를 끌게해서 훈련을 시킬때만 제외하고는 자유로웠다. 개들은 잘 먹어서 한없이 성질이좋고 비대했다. 개들이 땅바닥에 딩굴면 칼라이 발가숭인채로개의배에 올라타고 작은 손으로 개의배를 두드린다거나 모래를 한줌씩 그위에 뿌리고 또 헐떡거리는 빨간 입속에다 처넣기도 한다. 곧 상황이 바뀌겠지만 지금은 너무멀리 가지못하게 오텍이 휘파람을 불어 경고를 주지않는한 자유롭다.

하우믹은 주로 어린아이들을 보느라고 바쁘다. 아이를 얼르고 배가고픈 기색이 보이면 금방 젖꼭지를 물리고 젖은이끼로 목욕을 시키거나 혹은 모든 엄마들이 갓난아이한테 하는것처럼 쉴새없이 이야기를 하면서 칼라과함께매일 상당한 시간을 보낸다.

어린시절이 짧고 재난이 자주오기 때문에 집안에서는 어린아이가 왕노릇을한다.

개들처럼 어린시절에는 아무것도 제지당하는 것이 없다. 왜냐하면 커서 어른이되어 고생이 심할때는어린시절의 기억이 위로가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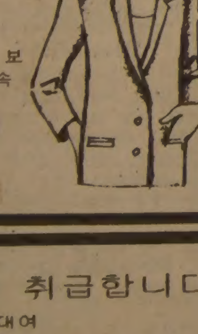
이 사람들은 자녀를 잘 키우고 대접해주면 자기들이 늙어서 쓸모가 없어질때는 부모를 잘 공경할것이라고 자주 말을했다.

사실상 이 사람들은 어린애들을 무한한 동정과관용을 갖고 대하는데 그만큼 인정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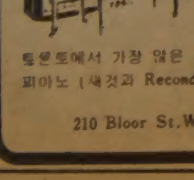
한번은 오텍이 두주일동안 윈디베이에서 우리와함께 지내기로 했는데, 단지 어린 칼라이 건강하게 잘 있는지 보고싶어서 60마일의 툰드라를 걸어갔다오는 것을 보았다. 5일만에 다시 60마일을 걸어서 되돌아왔다. 오텍이 다시돌아왔을때 앤디와 나를두고갔다오게 된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어린애가 보고싶어 미칠지경 이었다고 용서를 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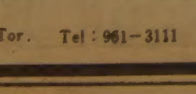
(계속)

코스모스
동양인에게 어울리는 유명 메이커
숙녀복(size 5 ~ 16)
좋은 가격으로 봉사
품질좋고 가격좋은
아동복(신생아~16)
똑같은 옷으로 다른곳 보다 저렴한 가격임을 약속 드림.
월요일~토요일 : 10시~7시
일요일 : 오후3시~7시
706BLOOR ST·W
☎ : 534-2003



모든 악기를 취급합니다
부속품·악기수리·대여
Remenyi
house of music
1890년에 설립





토론토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피아노 (새것과 Reconditioned)
바이올린과 일체의 현악기 Specialist
210 Bloor St.W. Tor.　Tel : 961—3111

LOEB
CASH "N" CARRY
우리는 3개의 장소를 이용하여 친절하고 예의 바른 자세로 당신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물건을 깨끗하고, 넓은 복도위에 가득채워 놓았읍니다. 물건의 구별을 쉽게하기 위해 케이스를 늘씬 쪼개 진열해 놓고 염가로 봉사코자 하오니 오셔서 구경하십시요.
또한 우리는 매주마다 스페샬품목을 정해놓고 판매하는 것도 잊지 말아 주십시요.

20 ORFUS RD. 782—8851
표지 또는 그래그
401 HWY　DUFFERIN ST.　ORFUS RD.　LAWERENCE AVE
WEEKDAY 7 : 30 ~ 4 : 00P. M.
토요일 7 : 30 ~ 11 : 30

55 BERTRAND 752—7292
노움·존
LAWERENCE E.　BERTRAND　EGLINTON E.　WARDEN AVE.　BIRCHMOUNT RD.
평 일 7 : 30 ~ 4 : 00P. M.
토요일 7 : 30 ~ 11 : 30A. M.

160 EVANS AV 255—6366
후랭크 또는 찰리
Q.E.W.　EVANS AVE.　ISLINGTON AVE　ROYAL YORK RD.
WEEKDAY 7 : 30 ~ 4 : 00P. M
토요일 7 : 30 ~ 11 : 30

陳氏眼鏡公司
MARWITZ Zeiss-Gruppe West Germany
ZEISS ●고급안경취급 West Germany
●Rodenstock
＊콘텍렌즈를 맞추시는 분께는 썬글라스를 선물 합니다.
BAY OPTICAL CO. LTD.
LUCLIFF PLACE
700 BAY ST.(at Gerrard)
TORONTO, ONT.
TEL : 595—1665
FASHION OPTICAL
525 DUNDAS ST.
(at Spadina Av.)
TORONTO, ONT.
TEL : 353—0684
영업시간
●월~토 9 : 30AM ~ 6 : 00PM
●월~토 11AM ~ 7PM

大英百科辭典
BRITANNICA 3
(전30권)
교민에게 특별판매
●교회, 학교, 단체등엔 특별할인
●국민학교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쓸 수 있읍니다.
●모국의 동생, 스승, 학교에 보내는 편리한 방법도 있읍니다.
문의처 : 745—5485 미세스 황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정력감퇴,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SEWLL THE KOREA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삐끌렡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밤11시 이후 호텔에서 청소하실분 구함
오후2시 이후 연락바람
☎ : 425-1836 MR. 정

웨이터1명, 웨이트레스1명
626, 628 BLOOR ST. W

주말 파타임 헬퍼구함 :
마캄과 로렌스
☎ : 438-1528

입주하셔서 애기 봐주실분구함
미세스 김
☎ : 755-1746

주말에 가게에서 일할 경험있는
파타임 학생헬퍼 구합니다.
☎ 267-4770

맥스밀크에서 일할 캐쉬어 구함
주3일
☎ 244-5248, MRS. THOMAIDIS

2개월 동안 일본정원사와 잔디 깍기등 정원 손질 할수 있는 헬퍼구함, 영어 또는 일본어로 문의바람
☎ : 298-3316

벡커 헬퍼구함 : 남자20세~40세정도 오전5시부터, 여자 캐쉬어 오전8시~오후4시
☎ : 481-3677(오후1시~4시사이) 미스타 박

공장에서 생산부분에 경험있는 분 구함 :
직접 내방 바람.
DORCHESTER ELECTRONIC
40 FINA CRES.
(QEW & 427 AREA)

도나스 가게에서 5일간 밤일하실 풀타임 일할 여자분 구함(밤11시~아침9시)
☎ : 284-9325 스카보로지역

DRESS MAKER 경험있는 FULL TIME
미싱사 구함(GOOD PAY)
☎ 368-2819 미스타 윙

스토아 파타임헬퍼구함(남자분)
스카보로지역
☎ : 267-0847

야채가게에서
파타임으로 일하실분 구함
☎ : 690-6572

ROBERT SON MOTORS(G. M.)
올스모빌·시보레 딜러
한국인 자동차 세일즈 맨 구함
● 경험이 없을시는 트레이닝이 가능함.
● 주100달러(차 판매에 관계없이)지급.
● 자세한 내용은 General Manager Bob Walsh 에게 문의바람. ☎ : 466-1131

재봉사(SERGERS)구함
COROMATION DRESS. LTD.
49 SPANIDA AVE. 4th FLOOR.
☎ : 367-1414

두 아이와 가사일 도울분 구함 :
오후6시~9시 연락바람
☎ : 439-0825 미세스 최

매매및 양도

벡커스토아 매매
오후 6시30분이후, 아침10~12시 연락바람
☎ : 439-3044

매매 ● 도나스 캐비넷 셋트
● 성업중인 햄버거 레스트랑15년 리스
☎ 535-2804 미세스 김

다운타운 멀안에 있는 FAST FOOD STORE임
연 순이익 $35000, 부부가 하기에 아주 이상적임
주6일 영업, Asking $33000중 모게지 $7500가능함
☎ 536-0463

BASKIN ROBBINS아이스크림 스토아를
매매코자 함.
꼭 사실분만 연락바람.
(방문및 전화는 매일 12시 이후에 하시기 바람)
360 GEORGE ST. NORTH PETERBOROUGH ONT.
☎ : 705-743-3152 MR. 유

성업중인 햄버거 샾 팝니다
☎ : 530-0748 DAVID

전화 후렌처 스토아 매매
당신의 것으로 할 수 있는 전국에 걸쳐있는 전화 후렌치 스토아에 흥미가지신분 구함.
좋은 이익을 볼 수 있음. 투자액 35,000~60,000달러
(모든경비 포함) MR. MONK
☎ : 445-7974 1875 Leslie Ave. unit 18

그로서리 스토아 급매
주매상 $3000, 렌트 $300, ASKING $10000,
MACHINE과의수입$800. 2층 살림집있음
☎ : 1-387-3983

매 매
365일 컨비니언스 버라이어티 스토아
PARKING하기 쉬운매킨스트릿에 위치, 시설완비 되있음. 다운페이 $20000에 단돈 $39500의 좋은 기회 L. VAN LIESHOUT R. E. LTD.,
☎ : B) 705-457-2414,
705-457-2460 (Mike)
705-457-2071(Larry)
Haliburton Ont.

매 매
그로서리 버라이어티 좋은 이윤과 장소, 저렴한 가격으로 팔고자함.
100 CAVELL AVE. MIMICO

개인 하드웨어 스토아 매매
(PRIVATE HARDWARE STORE FOR SALE)
좋은 자리에 있음, ASKING $41,000,
더 문의 하실분은 791-8771, 9시에서 6시(월~토)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ALL)
☎ : 791-8771 해밀톤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주매상 $5000+로타리오 머신+우체국 주인이 은퇴하므로 팔고자 함. 엘스미어 로드(토론토)
☎ : 889-6555 Mr. LISS(브로커)
오후6시 이후 전화요망 영어로 문의할 것.

T. V. 스테레오 취급전문 : 연매상 45만달러
아스킹 : $7만+스탁
☎ : 533-2400 미스타 김

이주관계로 가구 팝니다 :
가구일체, 피아노, 플루트등
☎ : 241-6733

매매 : 성업중인 드라이크리닝
PICK-UP가게 매매
☎ : 690-3256

여권 분실

여권분실공고 : 윤 복 희
여권을 승용차에서 분실했읍니다
☎ : 469-1521, 463-4181 357 COXWELL AVE.

집·방세·하숙

방세 놓습니다 : 1 베드롬
BLOOR ST. W. 중심가
☎ : 533-0168 미스타 김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미 용

스 타 미 용 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린스 미 용 실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하우스 뒤)

헬 렌 미용실 미세스·리
377 ALBION RD. REXDALE (B) 741-7829 · 742-8781
※한국식품서부지점에서 동쪽2번째 시그날에서 내리면 됨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 로얄·트러스트
☎ : (B) 752-3111, (R) 298-2546
주택전문 곽 석 용

여행사

한 국 여 행 사
593 BLOOR ST. W.
(B) 531-4607
(R) 487-8088 성 낙 윤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928-3335 김현두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21A BLOOR ST. W.
535-2377 유지원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악 기 점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조율 수리 SOO PIANO SERVICE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웅

시설및 수리

TV출장 수리
☎ : 431-0102 MR. 박

KIMBO ELECTRIC CO. :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보수, 가게신설, 용량증설, 전기일 일절 집, 가게, 공장
☎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상하수도 전기제품 각종유리
PAINT 수리및 시설
☎ : 535-4441 미스타 김

자동차수리

ANCHOR AUTO BODY
● 완전한 차체수리 ● 무료견적
● 두꺼운 페인팅 ● 토잉 써비스
●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 :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L & K AUTO COLLISION
☎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KIPLING)

ROGERS GARAGE ☎ : 651-9324(B)
자동차 수리 일체). 226-5430(R)
20 ROGERS RD. 변 달 원

MASTE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페인팅, 토잉써비스
95 PORTLAND ST. ETOBICOKE
☎ : 255-2111(B) 828-5001(R)

라지에타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CITY WIDE RADIATOR CO
(B) 245-1978 (R) 248-6032 김용환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정비
●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센 츄 리 냉 동
원 종 성, 이 인 식
☎ : 221-5441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B) 746-3840~1, (R) 493-9945 김 봉 균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인벤토리

INVENTORY
①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②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③ STORE 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B)259-5622, 255-8301 (R)252-2963 MR. 오

이삿짐및 운송

각종운반및이삿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리 운 수

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AUGA 전화 : 273-7300

한 방 원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 진품웅담 ● 녹용 ● 우황청심환 ● 사향 ● 경명주사
●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일주일, 내내 : 아침10시~저녁8시 (일요일도 OPEN)
차이나타운내(던다스×스파다이나)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서 울 한 의 원
● 30여년간 서울에서 한의원 경영
● 대한한의사협회장의 한의학발전공로표창장10여회 수상
※ 진료과목 : 한방내과·신경과·부인과·침구과·산후보약
주소 : 10 Blackfriar Av #216 Weston, Ont. (Kipling×Dixon)
☎ : 247-9347 한의사 : 김 장 석 (왕진함)

꽃 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파·김

정 은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생화, 조화, PLANTS ＊ GIFT취급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 B) 769-0609
R) 242-5194 여 정 용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751-5851 이 동 환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 카펫·소파·쉐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가나안 카텐·카펫 브라인드 SHADE
2390 LAKESHORE BLVD. W.
☎ : (B) 252-4857, (R) 252-6602 유 원 덕

기 타

온가족이 꼭 필요로하는 교과서
WORLD BOOK…월부가능
문의처 : 533-2364(day) 242-5774 김

PICTURE FRAME WAREHOUSE
각 종 액 자
8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 혜숙

새한칼라 현상소
630 BLOOR ST. W. TORONTO. ☎535-7772
●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 현상, 인화, 확대

KIM'S CAMERA ● 여권사진 즉석 촬영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증명사진
619 Bloor St. W. Tor. ☎ : 534-1085 김 춘 학

SUREKILLER
각종벌레, 개미, 바퀴벌레 : 100% 효과보장
☎ : 368-9018

니폰·비데오 센터 : 많은 한국테이프가 새로구입
주6일 오픈. 1993 DANFORTH AVE. TOR.
☎ : 698-0633 하마구찌

SINGER
● 전화주문 받습니다. ● 모든 종류 미싱수리, ● 바느질을 배우세요. 틴·에이저와 초보자를 위한 강습이 있읍니다. ● 중고품 $49.95부터
CALL : MR. ARMAND OR PAUL (킴스카메라건너편)
☎ : 537-4881, 537-3841 620 BLOOR ST. W.

SOMÉ JEWELLERY 쏘메쎄리
● 각종보석주문(공장도가격), ● 옛보석을 새보석으로
● 데자인, 보석수리(일본말 환영) ☎ : 225-4641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女性

大卒女性 재교육 梨大 여성연구소

梨大부설여성연구소는 대학졸업여성들의 지역사회봉사활동을 자극하기위해 13~16일 梨大진관 홀에서 「자원활동을 위한 대학출신 여성재교육」을 실시한다. 30세~50세의 여성을 대상으로하며, 여성학 사회사업학등 6개강연과 2개훈련과정을 거친다. 참가 신청은 (☎815-0731)

主婦大學 학생모집

주부교실중앙회는 제15기 주부대학및 규수반회원을 모집한다. 강의기간은 11월9일부터 3개월간. 각계 전문가들이 식품영양학, 가정경제학, 가정법률, 여성학, 유아교육, 심리학등을 강의한다. (☎362-7…)

穆然會 주부사진전

주부교실중앙회 회원들의 모임인 穆然會는 3일~7일 예총회관 전시실에서 제2회 사진전을 갖는다. 김문숙 이연자 원경희 우순기 김경순 김정임 방은숙 김숙영 윤영숙씨등 주부 9명의 사진이 전시된다.

YMCA 미술교실

서울YMCA는 미술교실을 5일 개강, 2개월과정으로 미술전반의 이론과 실기를 가르친다. 대상은 일반남녀및 대학생. (☎732-8291)

모두들 외로운 生

趙善作 作
馬慶熙 畵
<215>

돌개바람 불다 ⑱

잠시 침묵이 흘렀다. 우울한 표정으로 머리를 떨구고 앉아 있던 그가 원 손으로 뭔가 집어던지는 시늉을하며 소리쳤다.

『에이 더러워. 입만 버렸군』

그것은 J씨에 대한 험구를 [illegible] 뀌우치는 말이었다. 어쩌다가 그런 친구의 말을 입에 올려 입을 더럽히게 되었는가, 자란(自嘲)에 빠진 것이다.

잠시 후, 그는 기분을 일신하여 다시 입을 열었다.

『춥지않아?』

나는 괜찮다는 뜻으로 머리를 저어 보였다. 그는 내쪽으로 몸을 돌려 내 점퍼의 앞섶을 여며주고 나서 팔을 뻗어 등 뒤로 나를 안았다. 나는 그를 뿌리치지 않고 그에게 안겼다. 머리를 숙이니까 눈시울에 맺혔던 눈물 한 방울이 손등에 떨어졌다.

『미안해. 잘못은 모두 나한테 있어. 하지만 [illegible]가 희망하는대로는 자신이 서지가 않는 거야』

『제가 희망하는 게 뭐께요?』

『[illegible]면… 이중생활(二重生活) 아냐?』

『어머?』

나는 깜짝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그가 입에 올린날말이 너무도 생소하고, 그랬다가는 너무도 [illegible]하게 느껴져서 나는 그로부터 조금씩 물러나 앉았다.

『어떻게 그런 말을…』

내 목소리는 연약하게 떨면서 나왔다.

그가 말했다.

『[illegible]아. 먼지도 없었고, [illegible]회가 구상하는 [illegible] 세계라든가 다 꽉이 이해하고 있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바로 이중생활이란는것 아니겠어? 어딘가에 집을 얻어 딴 살림을 차리고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해야 한다면 말야. 아무리 근사한 수식(修飾)을 [illegible]라도 이중생활은 이중생활인 거야』

나는 저주의 느낌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그러나 그는 내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피하기는 커녕 오히려자꾸만 내 앞으로 다가오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러니 아무리되새겨보아도 나는 이중생활을 면했 [illegible] 영위할수 있을 [illegible] 똑똑한 사내가 못 되는거야. [illegible] 아니시피 현실 부 [illegible] 성이잖아? 여기 저기 [illegible] 치 못한 [illegible]이나 뿌리고 다니고, 게다가 별도로 얻어 가지고, 집에서 보왔잖아? [illegible] 그런 상태를 견딜수 없는 거야. 가슴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illegible]는 내가 [illegible] 회를 피해 도망쳤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그렇지 [illegible] 도망친 거지. 하지만 이런 이해해줘야 돼. [illegible] 위 독방감옥에 보낼 때만 해도,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중생활의 시작이다, 하고 어머니를 깨운 거야』

『제발 그만해주세요. 제 머리 속에 이중생활따위의 천한 개념은 없어요』

나는 울면서 악을쓰듯 그의 말을 [illegible]했다. 그러나 나는 마치 꿈에서 깨어난 소녀처럼 그것을 지우치고있었고, 견딜수 없는 [illegible] 것이다.

『알았어』

하고, 그가의 기소침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랬다가 그는 잠시 후에 [illegible]했다.

『제길. 어쩌다가 내가 이지경이 되었는지. 너무 메마르고 [illegible]져서 [illegible]가 구상한 한 차원높은 세계는 그림속의 [illegible] 같이야. 초대면을 자꾸는 도무지 [illegible]』

나는 그가 교활하게 굴고 있다는것을 눈치채지 못한 [illegible] 우울하지 못했다. 마치 자신의 [illegible]을 한탄하듯 말하면서 그는 나를 [illegible] 에서 [illegible]는 것이다.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INCOME TAX Service
※개인 세무및 보고서 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ST. W.(한국관 건너편)
☎:(B) 533-7573. (R) 699-3591 최 태 권

週刊한국

Benjamin Moore PAINTS
블루어 하드웨어
전기제품 일절
가정용, 공업용 TOOL
재료일절
판매수리
변 의 섭
주소 : 608 BLOOR ST. W.
전화 : 531-6183

한국의 戀人들

원앙의 戀歌

燕山主의 魅力 <2>

全完吉
(太平洋 博物館長)

연산왕의 어질고 착한 아내는 연산왕을 진심으로 사랑했으며 연산왕 역시 어질고 착한 아내를 깊이 사랑함으로써 모범적인 부부애를 보여줌과 동시에 매력적인 사나이로 부각되고 있다. 폭군이라는 이유만으로 연산왕의 이러한 매력이 묻히고, 칭찬할만한 부부금실이 케케한 먼지속에서 신음할수야 없지 않은가.

15세때 愼承善의 딸과 結婚…모범적인 男便像 보이고
남편의 잘못을 간곡히 만류…史官들도 "어질었다" 존경

연산왕은 나이 열다섯이 되던 1488년2월6일에 세자의 몸으로 당시 좌참찬(左參贊)이던 신승선(愼承善)의 딸과 혼인하였다. 세자빈이 된 신씨는 남편이 1494년12월29일 왕위에 오름에 따라 왕비로 책봉되었으나 1506년9월2일 연산왕이 폐위되자 그 역시 폐위되어 거창군부인(居昌郡夫人)으로 격하, 남편과 떨어져 정청궁(貞淸宮)에서 살다가 죽었다. 연산왕과의 부부생활에서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낳았다.

그런데 연산왕비는 어질고 자애로왔으니 연산왕을 잔인무도한 군주라고 매질한 당시 사관들도 왕비만은 매우 칭찬하였다.

─왕비는 어진 덕이 있어 화평하고 후중하고 온순하고 근신하여, 아랫사람들을 은혜로써 어루만졌으며, 왕이 총애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후하게 대하므로 왕은 비록 미치고 포악하였지만 매우 존경받았다. 왕이 무고한 사람을 많이 죽이고 음란·방종이 히 간곡하고 진실했다. 연산왕이 이를 듣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성내지도 않았다. 또 번번이 대군·공주·모보(姆保)·노복들을 계칙(戒勅)하여 방자한 짓을 못하게 하였는데 연산왕이 폐위되어 교동으로 귀양갈 때 울부짖으며 기필코 왕을 따라가려고 했지만 되지 않았다. <燕山君日記第六十三卷>

남편이 다른 여인을 사랑하더라도 질투하지 않는 아내, 아내의 충고에 결코 될까? 왕비도 그렇지만 연산왕은 모범적인 남편이었다.

그런가하면 왕비는 정의롭고 엄한 국모(國母)였다.

─숙의(淑儀)의 노자(奴子:종)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사방에 흩어져서 재물을 독점하여 폭리하고 평민들의 토지와 노비를 빼앗아 원성이 높았지만 아무도 말리지 못했다. 이를 본 왕비가 탄식끝에 내수사(內需司:궁중용 곡식·옷감·잡화·노비를 맡아보던 관청)에 엄명을 내렸다. 『만일 본궁의 노자가운데 횡포한 자가 있다는 소리가 들리면 반드시 매를 쳐서 죽이리라.』이후 본궁의 노자가운데 횡포한 자는 하나도 없었다.

등명사(燈明師)학조(學祖)가 직지사(直旨寺)에 있을 때, 절에 좋은 납작감이 있어 늘 두 바리씩 중궁전에 바치고 『저의 절이 멀리 떨어져 있사오니, 원컨대 본궁의 노자가 와서 해마다 두 세바리씩 실어가도록 하소서』하였다. 왕비는 『그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나 감이 잘 열리는 해가 있고, 잘 열리지 않는 해가 있을텐데 만약 잘 열리지 않은 해에 본궁의 노자가 가서 정한 바리수대로 가져온다면 폐단이 될 것이다』하여 뒷날을 염려하는 마음에서 거절하였다.

또 왕비의 친척 하나가 지방고을의 사달로 있었는데 홍람화(紅藍花·연지의 원료, 빨간 물감을 만들기도함)몇 섬과 흰솜 수십근을 바쳤다. 왕비는 이것을 도로 보내면서 『백성들이 못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나는 받지 못하겠다』하였다. <書仲·應聞積錄>

이 글로 미루어보면 연산왕비는 시쳇말로 인기가 높았으며, 내외로부터 신망과 존경을 모으고 있었다.

아내가 매우 훌륭하고 어진 줄 안 연산왕은 아내를 깊이 사랑하고, 사랑스런 아내를 영원히 기리고자 했다. 그래서 1505년 6월7일 송덕문(頌德文)을 짓도록 명령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그의 말속에 아내에 대한 사랑이 철철 넘치고 있다.

─이제 중궁(中宮=왕비)의 어진 덕이 더할 나위없다. 내가 동궁(東宮=世子宮)에 있을 때부터 착한 의표(儀表)와 착한 덕이 진실로 가상하다. 보통사람은 처음에는 잘 하지만 끝까지 잘하는 이가 드문데 한 나라의 국모로 있은지 십여년이 넘도록 마음을 얌전하게 가져 시종 한결같으니 그 아름다움을 포양하여 귀감으로 삼지 않으면 안된다. 내가 듣건대 세조(世祖)께서 소헤왕후(昭惠王后)를 특별히 효부(孝婦)라고 포양했다 하니 어진 행실이 있기 때문이다.

중궁의 덕행이 이에 못지 않으니 백관(百官)이 전문(箋文)을 올리고 하례(賀禮)를 올리며 대비전에 진연(進宴)하고, 이어 중궁의 여자 친척들은 안에서, 남자들은 외정(外庭)에서 잔치하여 은전(恩典)을 보이라. 또 신승선(王妃의 父)의 공덕을 밝히고 포상하여 후세에 사대부들의 모범이 되도록 하라. 그리고 옥책문(玉冊文)을 짓되, 중궁의 어진 덕이 아래에 미치고 남의 소생을 자기 소생처럼 어루만져서 내교(內敎)를 이룩하고 세자를 낳아 나라의 기틀을 굳건히 하였으며, 또 명철하신 성종께서 후사(後嗣)를 위하여 현비(賢妃)를 간택하신 일도 빠뜨리지 말라.

이는 이규보와 김정희가 아내에게 바친 글(9月6日字 參照)보다도 뜨겁고 진실한 애정을 담고 있는데, 연산왕은 이어 8월26일에 왕비에게 친히 책보(冊寶)와 금정(金鼎)을 내렸다. 책문(冊文)가운데 더욱 뜨겁게 애정이 넘고있다. 책문을 연산왕이 손수 짓지 않고 신하들(金勘·任士洪·曹繼衡)이 작성한 것이지만.

─…아! 귀족으로 태어난 왕비는 어려서부터 영명한 자질이 있어 성녀(聖女)의 기상을 지니고 세자빈이 되더니 부도(婦道)를 다하여 삼궁(三宮)을 온애하고 어김이 없으며 덕망을 헤하며 태자(太子:연산)를 도왔도다. 국모가 되어서는 여망(輿望)이 신인(神人)을 맞추었으며 음례(陰禮)는 내궁(內宮)을 잘 닦아 인은(仁恩)이 이 후궁들에게도 미쳤도다. …아! 이 순연히 갖춘 훌륭한 행실은 전대(前代)에도 듣기 드문 일이니 이에 책명(冊名)하여 제인원덕왕비(齊仁元德王妃)라 하노라. 아! 그림자는 형상을 따라서 곧고, 꽃자기는 소리에 응하여 전하는 것이니 나라의 다스림은 집안의 다스림에서 비롯되고 조정의 교화는 백성을 감화하게 하거니와 당신은 이미 이런 덕의(德義)로써 나를 잘 도왔으므로 내가 특별히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당신의 아름다움을 밝히는 바요. <燕山君日記 58및59>어느 부부인들 연산왕내외를 부러워하지 않으며, 어느 여자가 연산왕같은 남편을 맞고싶지 않겠는가.

내쫓기는 王妃들

성종은 조선왕조 초기의 제도를 정비하고, 문화를 개화시켰으며, 국기(國基)를 다진 명군(名君)임이 분명하지만 남편과 아버지로서는 낙제감이었다. 그의 불운은 첫 왕비인 공혜왕후가 19세의 나이로 요절한데서 비롯된다. 후궁(後宮·淑儀)이던 윤씨를 1476년에 왕비로 책봉했지만 호색한 성종은 곧 다른 후궁들에게로 잠자리를 옮겼다. 원자(元子:燕山主)를 낳아 기세가 등등했던 윤비는 성종의 발길이 뜸해지자 성종이 사랑을 쏟는 두 후궁 嚴昭容과 鄭昭容을 질투하고 남편의 얼굴에 손톱 자국을 내기에 이르렀다. 그런데다가 『엄소용과 정소용이 중궁과 원자를 해치려 한다…』고 거짓 투서한 것이 들통 나자 성종이 정을 끊게 만들었다. 윤비에게 싫증을 느낀 성종은 윤비를 빈(嬪)으로 강등시켜 자수궁(慈壽宮)으로 내쫓았다.

자수궁에 아내를 내쫓은 성종은 아내가 외부인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고립시키고 내사들 보내 염탐토록 하였다. 인수대비(仁粹大妃:成宗의 親母)가 염탐꾼 내시를 매수, 『윤씨가 머리 벗고 낯 씻어 예쁘게 단장하고서 잘못을 뉘우치는 게색이 없다』고 보고케 함으로써 때로한 성종이 사약을 내려, 폐위된 이후 밤낮 피눈물을 흘리던 윤비가 죽었다.

결국 시어머니(인수대비)와 며느리(윤비)의 불화가 성종을 시궁창으로 내몰았는데 윤비를 폐위시키려 할때 들끓는 반대여론을 묵살한 것을 보면 성종은 잔인한 남편이었다. 연산과는 퍽 대조적이다.

『부인에게 칠거지악(七去之惡)이 있으면 내쫓는다 하옵니다. 자식이 없거나 불순한 경우, 그러나 삼불거(三不去)에 해당되면 예사람은 용서했는데, 한가지 죄만 있고 여섯가지는 허물이 없는데도 용서하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물며 원자의 모후(母后)를 단 하루라도 궁벽한 여염집에 두시겠읍니까? 왕비는 만복(萬福)의 근원을 받아 아들을 여럿 낳는 경사를 얻었는데, 하루 아침에 여염집으로 내리고 또 공봉(供奉)할 물자까지 끊다니 비록 죄가 있다하더라도 이처럼 박정할수 있읍니까. 군신과 친구 사이에는 마땅히 의리가 은혜보다 우선하겠지만 부자나 부부 사이에는 은혜가 의리보다 우선해야 할것입니다. 훗날 원자가 측은한 마음을 갖게 된다면 전하께서 후회하실 것입니다』고 손순효(孫順孝)가 상소하였으나 묵살하고 대사헌인 채수(蔡壽)가 『비록 폐위되었으나 왕비였었는데 지금 여염집에 거처하오니 살림 또한 궁색하니 청컨대 집을 마련하여주고 일용물자도 공급해 주소서』하였지만 오히려 원자에게 아첨하여 훗날을 바라는 놈이라고 국문하였다. 성종은 이처럼 잔인하고 차디찬 남편이었다. 흔히 애정이 없더라도 자식을 생각해서 산다는 말을 하는데, 성종은 아들 무자금의 아픔을 외면한 아버지였다. 윤비는 이를 악물고 죽었는데 죽는 순간 남편이었던 성종을 저주하면서 아들이 자라 원수를 갚아 달라고 외쳤다.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호새한 탓이었는지, 성종은 서른 여덟 젊은 나이에 죽었다.

중종(中宗)은 성종의 세번째 아내인 정현왕후(貞顯王后) 소생으로 연산왕의 바로 밑 아우다. 박원종·성희안의 반정(反正)덕에 등극하더니, 그는 등극하자마자 성종처럼 왕비를 폐위시켰다. 좌의정 신수근(愼守勤)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수근은 신승선의 아들로서 연산왕의 처남이자 중종의 장인─. 그는 반정에 참여하라는 박원종의 제의를 거절하여 반정날 밤 먼저 살해되었다. 중종은 즉위한 이튿날 『지금 수근의 딸이 궁중에 있는데 만일 그를 왕비로 두면 인심이 위태롭고 의혹이 생길 것입니다. 인심이 위태롭고 의혹이 생기면 종묘사직에 관계되는 일이 있을 터이니 은정(恩情)을 끊고 내보내소서』라는 반정공신들(柳洵·金壽童·柳子光·朴元宗·成希顔)의 말에 『종묘사직이 지중하니 어찌 사정(私情)에 얽매이겠느냐. 중의(衆議)를 좇으리라』하고는 그날 밤으로 내쫓았다.

그리고는 폐비의 집에 내시나 부인을 돕는 여종을 하나도 두지 말라 하고 큰 숙의 윤씨를 장경왕후(章敬王后)로 책봉했다.

그런데 쫓겨난 신씨는 아무런 죄도 없을 뿐더러 중종을 왕위에 올린 공로자였다. 이런 비화가 있다. 반정하던 날 군사들이 진성대군(中宗)의 집을 에워쌌다. 이것은 해칠 자가 있을까 염려한 호위였다. 그런 줄 모른 진성대군은 놀라서 자결하려 하였다. 이때 부인 신씨가 『군사의 말머리가 이 궁을 향하고 있으면 죽지 않고 무엇을 기다리이까. 하오나 만일 말머리를 밖으로 향하고 섰다면 공자(公子)를 호위하려는 뜻이오니 알고난 뒤 죽어도 늦지 않으리다』하고는 소매를 잡고 말리며 사람을 내보내어 동정을 살피게 하였다. 나가 보니 과연 말머리가 밖을 향하고 있었다.

그러고보면 중종은 잔인한 뿐더러 은혜도 모르는 비정(非情)의 사나이가 아닌가.

어떤 문헌(國朝記事)에는 중종 부부의 애정이 두터웠다고 적혀 있다. 공신들의 압력으로 폐비하기는 하였으나 별궁에 두고 모화관(慕華館)으로 명나라 조사(詔使)를 맞으러 거동할 때는 꼭 말을 모화관에서 멀지 않은 그 별궁으로 보내어 먹이게 하였고, 부인은 흰·죽을 쑤어 손수 들어서 말을 먹여 보냈다고 한다.

이 기록이 사실이라면 부인은 연산왕의 아내만큼 칭송받아 마땅하지만 중종은 얼마나 비겁한 사내인가. 더우기 장경왕후가 스물다섯살의 나이로 죽자, 신씨를 왕비로 복위시키자는 대신들의 건의와 상소가 빗발쳤음에도 묵살하고 세번째 아내로 문정왕후(文定王后)를 맞았으며 『아깝게 생각하는 것은 전하가 강한 신하들에게 놀리어 부부의 인륜을 저버린 일입니다. 무엇으로써 덕화(德化)를 이룩하겠읍니까』고 상소한 순창군수와 담양군수를 잡아다가 문초하였다.

그러고보니 연산왕의 부부애가 더욱 돋보이고 연산왕의 매력 또한 커 보인다. 누가 그에게 돌팔매질을 할것인가.

개 업 인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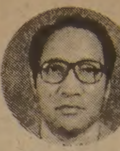
안녕하십니까.
지난 7년동안 자동차 구입에 저를 이용해 주신 교포 여러분들께 지면을 통해 감사드립니다. 금번 10월1일부터 고려식품을 인수하여 교포여러분들께 최선의 써비스를 하고저 하오니 전과 다름없이 애용하여주십시오
10월6일(화) 오후4시~9시 사이에 여러분들을 모시고 인사를 드리고저 합니다. 부디오셔서 지도편달을 주시기 바랍니다.
원 재 훈 배

고려식품
680 BLOOR ST. W.
(CHRISTE & BLOOR)
전화 : 531-2242

最高經營者가 권하는 良書

거의가 經營 전문書籍…「사람을 살리는 經營」「제로섬社會」「80년대 經營難題해결」등

◇崔鍾煥 (三煥企業그룹會長)



▲제3의 물결 (A·토플러) ▲부와 빈곤 (조지·길더) ▲능률운동시리즈 (능률협회발행) ▲八萬大藏經 ▲菜根譚 (洪自誠)

◇李鍾根 (鍾根堂會長)

▲사람을 살리는 經營 (松下幸之助) ▲菜根譚 (洪自誠) ▲불확실성의시대 (갈·브레이드) ▲中庸 (子思) ▲성경

◇金乘謙 (雙龍洋灰會長)

▲YOU CAN NEGOTIATE ANYTHING (HERB·COHEN) ▲不毛地帶 (山崎豊子) ▲불확실성의 時代 (갈·브레이드) ▲종합경영정보시스팀 (盧仲鎬) ▲민주주의의 본의 (平塚益德)

◇朴寧眶 (柳韓洋行社長)

◇李庄均 (三千里産業會長)

▲論語 (孔子) ▲歷史란 무엇인가 (E·H·CAR) ▲自由에의 도피 (에릭·프롬) ▲플루타크 영웅전 (플루타크) ▲亂中日記 (李舜臣)

◇鄭鎬周 (鮮京합섬社長)

▲韓國史大系 (千寬宇편) ▲제3의 물결 (A·토플러)

▲罪와 罰 (도스토예프스키) ▲파우스트 (괴테) ▲不毛地帶 (山崎豊子) ▲격변기의 생존경쟁 (P·F·드러커) ▲實践經營哲學 (松下幸之助)

◇文 模 (半島商事社長)

▲總合商事의 經營史 (宮本又次外2人) ▲제로섬社會 (레스터·더로) ▲제3의 물결 (엘빈·토플러) ▲복합시대의 경영 (田邊昇一)

▲三國志 (羅貫中) ▲不毛地帶 (山崎豊子) ▲메니즈먼트 (드러커)

▲유리알 유희 (헤르만·헤세)

◇姜晉求 (三星電子 社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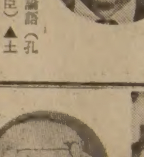
▲論語 (孔子) ▲한국인의意識構造 (李圭泰) ▲列國志 (金丘庸譯) ▲불모지대 (山崎豊子) ▲제3의 물결 (A·토플러)

◇具滋學 (럭키社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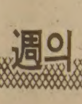
▲80년대 經營難題해결 (田邊昇一) ▲공격형 경영추천 (並田正一) ▲選擇의 自由 (프리드만)

◇林元洙 (東亞建設産業社長)

◇李洙彬 (第一製糖社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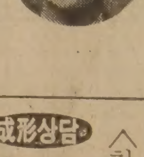
▲史記 (司馬遷) ▲論語 (孔子) ▲亂中日記 (李舜臣) ▲土地 (朴景利) ▲제로섬社會 (레스터·더로)



▲論語 (孔子) ▲흙 (李光洙) ▲國富論 (애덤·스미드) ▲三國志 (羅貫中) ▲菜根譚 (洪自誠)

◇孫京植 (安國火災社長)

▲巨富가 되는길 (나폴레온·힐) ▲이든의 회고록 (이든) ▲항우와 유방 (司馬遼太郎) ▲사회제도의 分析 (BREDEMEIR AND STEPHEM SON)



「八萬大藏經」「菜根譚」「論語」「史記」「孫子兵法」「亂中日記」등도

▲인간신뢰의 경영 (小林茂)

◇李相鎬 (코오롱商社社長)

▲大望 (山崎豊子) ▲三國志 (羅貫中) ▲生活의 發見 (林語堂)

▲참회록 (장·자크·루소) ▲白鯨 (허먼·멜빌)

◇姜聲振 (三寶證券社長)

▲人間條件 (앙드레·말로) ▲제로섬社會 (레스터·더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니체) ▲제3세계와 종속이론 (타소스) ▲제3의 물결 (엘빈·토플러) ▲미래의 충격 (엘빈·토플러)

◇申東寬 (太平洋化學社長)

▲經營哲學 (松下幸之助) ▲菜根譚 (洪自誠) ▲管理者革新 (日本産業大學編) ▲孫子兵法 (孫子) ▲三國遺事 (一然)

◇兪相玉 (라미화장품社長)

▲大學 (曾子) ▲孟子 (孟子) ▲三國志 (羅貫中) ▲상록수 (沈薰) ▲罪와 罰 (도스토예프스키)

◇宋三錫 (54·모나미社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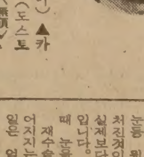
▲사랑 (李光洙) ▲성경 ▲참회록 (톨스토이) ▲落日불타다 (城山三郎) ▲選擇의 自由 (프리드만)

◇車國永 (東西證券社長)

▲은혜의 생활 (스트롱·벤) ▲평화의 선언 (南元本)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헤밍웨이) ▲흙 (李光洙) ▲애인 (金來成)

◇曺興萬 (原豊産業社長)

▲聖經 ▲論語 (孔子) ▲諸子百家 ▲햄릿 (셰익스피어) ▲카라마조프가의 兄弟들 (도스토예프스키) 〈無順〉



가장 감명 깊었던 책

論語 李洙彬

우리 동양인들에 있어서 사상의 근원은 유교에서 비롯됐다고 할만큼 유교사상은 孔子의 가르침인 論語에서 나온사상이고 論語는 곧 유교사상의 중심經典이다。

예수가 종교로써 사람의 심령을 구제하려한 구세주라고 한다면 孔子는 인간의 현실생활의 當爲문제를 해결할수있는 삶의 지혜와 방법을 가르쳐준 인류의 스승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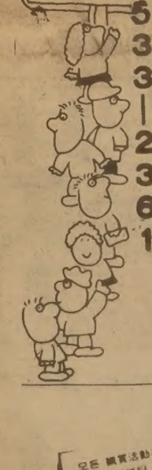
말하자면 이 孔子의 말씀을 담은 論語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인격을 닦고 올바르게 처신할수있는 지혜를 주는 經典이다。

요즈음 論語가 우리생활에서 점차 멀어져가고있는 것같아 아쉬운 생각이 든다。論語에 수록한 孔子사상은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다스려〈修己〉君子가되고 성실(忠)믿음〈信〉、곧음〈正直〉、공경〈敬〉을 가르치고 있다。이 모든것은 겉으로는〈禮〉로써 나타나게 했고 사상적으로는〈仁〉으로 집약해 예수의〈사랑〉、석가의〈慈悲〉못잖은 영원한 인생의 목표를 우리에게 던져준다。

論語를 몇번이고 되뇌어 읽을때마다 程子가 담은 말이 액면 그대로 납득이 간다。그는 論語를 읽음에 있어、다 읽고나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고、그중 한두구절에 공감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다 읽고나서 춤을 출 정도로 어찌할바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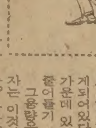
요즈음 사람은 책을 잘 읽지 않는다。비록 論語를 읽는다 해도 읽기 전과 읽은 후가 같은 사람이라면 안 읽는것과 마찬가지다。程子는『17·18세때부터 論語를 읽었는데 이미 그 첫번 읽으면서 글뜻을 다 알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그 의미가 새롭다』고 고백하고 있음을 보면 論語의 眞理는 한권의 책으로서 그 가치가 얼마나 심대한가를 알려주기에 족한것 같다。

나는 일선 經營에서 어려움을 맞을때마다 이 한권의 책에서 가르치는 處身과 指向을 음미하며 修身의 좌표로 삼고있음을 고백한다。



健康진단 〈비뇨기 系란〉

尿생성·배출 器官을 총칭



비뇨기系란 尿를 만들고 이것을 몸밖으로 排出하는 器官系를 총칭한다。비뇨기系의 중심이되는 臟器는 신장이다。이밖에 尿를 體外에 排出하는 器官으로서는 尿管·방광·요도가 있다。

신장의 위치는 제11胸椎에서 제2、제3腰椎의 높이가되는 腹腔後壁의 부분에있어 배쪽(앞)보다 오히려 등쪽에 가깝다。

그러니까 背椎의 左右로 하나씩、도합 두개의 신장이 있다。다른 장기와 다르게 腹膜밖에 있으면서 많은 脂肪의 膜으로 싸여 보호되고있다。신장 내부구조는 종모양의 신장 한가운데 굽어 파진곳을 腎門이라고 하며、이곳에 尿管이 붙어있다고 한다。또 이곳은 신장으로 들어가는 동맥과 신장에서 나오는 정맥같은 큰血管이 지나가고있다。尿管이 腎門으로 들어가는 자리는 약간 돋아져 있어 이부분을 특히 腎盂라고한다。신장을 단면으로 보면는 바깥쪽의 腎皮質과 안쪽의 腎髓質로 나눌수있다。

腎皮質에는 1개의 신장에 약 2백만개이상되는 무수한 腎小體와 이腎小體에 出入하는 가는 동·정맥、그리고 尿細管같은것이 있다。

尿管은 腎盂에서 방광에 이르는 가는 管으로 左右에 하나씩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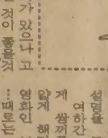
직경이 0.5㎝、길이 25~27㎝로 그속에는 粘膜이 주름기를 이루고있다。尿管의 벽에는 平滑筋이 있어 이 작용으로 尿는 방광으로 흘러들어가게되어있다。방광은 골반의 한가운데 있으며 대단히 커지고 줄어들기 잘하는 주머니다。

그용량은 남자가 5백㏄、여자는 이것의 6분의5 정도이다。요도는 男女에따라 큰차이가 대단히 크다。男子는 陰莖속을 지나 그 끝으로 열기때문에 길이가 15~18㎝이나 女子는 짧아서 3~4㎝ 정도이다。따라서 女子는 방광염·신장염이 많고 男子는 요도염이 많다。즉 요도가 짧으니 곧 방광으로 균이 들어가며 男子는 요도가 길어서 후부요도전립선(남자에게만있다)의 염증이일어난다。

呂卿九 (醫博·東南醫院長)

成形상담 〈처진 눈 쌍꺼풀〉

재수술로 교정가능



問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여성입니다。32살때 국내에서 눈쌍꺼풀수술을 받았읍니다。외국에 나갈것을 전제로 했읍니다。그후 외국생활이 10여년이 지났읍니다。그런데 눈에 신경을 안써 그런지 지금 저의 눈은 힘이 없어보입니다。그래서 화장을 하지않으면 졸린듯 해 눈화장을 꼭 해야만 합니다。더우기 요즘은 나이가 더 들어서인지 눈등 윗 부분이 눈가쪽으로 처진것이 완연합니다。그래서 실제보다 더 나이가 들어보입니다。이번 고국을 방문할때 눈을 교정하고자합니다。

재수술로 인해 더 보기 싫어지지는 않을지요。그리고 시일은 얼마나 걸리는지요。이곳에도 성형외과가 있으나 고국에서 수술하는 것이 좋을것같습니다。한국사람은 한국사람의 눈「혼」을 원하니까요。〈미국 LA에서 김혜진올림〉

答 귀하의 물음을 대강은 알것같습니다。외국으로 이민이나 장기 체재 하는 사람이 종종 외국 가기 전에 성형수술을 하고 떠납니다。외국 사람 비슷하게 눈을 크게 해 달라고 원합니다。귀하도 그랬을 것입니다。그것이 오늘날의 불만을 품게된 원인이 된 것입니다。한국 사람이 아무리 서양 사람을 본따 눈을 찢고 까봤자 역시 동양인의 눈매에는 변함이 없읍니다。서양사람의 눈으로는 눈감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민가거나 장기체재하는 사람들은 이런 설명을 듣지 않으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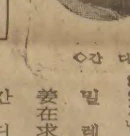
여하간 현재의 눈보다 크게 쌍꺼풀지고 눈동도 아주 얇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영화인 ××처럼 해달라는등 …때로는 기가 찰 때가 많습니다。귀하의 경우 재수술을 받으면 큰 쌍꺼풀을 절반 정도로 줄일 수 있고 눈의 힘없이 보이는 것도 교정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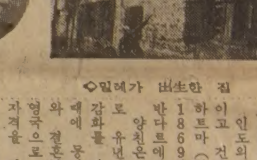
시일은 약 4~5일이면 발사(실을 빼는것)할 수 있으며 그후는 목욕이나 기타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읍니다。

李秉道 (醫博·종도외원장)

歷史로 본 이 週의 人物들

□姜在求대위 殺身成人
□印度지도자 간디 出生
□佛화가 밀레 出生


◇간 디


◇밀레가 出生한 집

밀레 「이삭줍는 여인들」 불후명작남긴 천재화가

姜在求 훈련중 터진 수류탄 덮쳐 부하구하고 순직

간디 인종차별에 항의 최초로 비폭력 주의 주장

▲인도 지도자 간디 출생 (1869·10·2)

인도의 건국의 아버지인 마하트마(위대한 혼) 간디는 1869년 10월2일 포르반다르에서 출생하였다。

양친은 경건한 힌두교도로 유년시절부터 종교적인 감화를 많이 받았다。13세때에 동갑인 카스투르바이와 결혼하고 1888년에 영국으로 유학하여 변호사 자격을 얻어 귀국하여 1893년 어느 회사의 고문변호사가 되어 남아프리카로 건너갔다。

그곳에서 인도인에 대한 차별대우에 항의하면서 非暴力主義에 입각한 不殺生을 기본사상으로 하는 이른바 간디주의가 싹텄다。특히 1913년에 나탈州에서 트란스발州로 향하였던〈샤타그라하 行進〉이 전세계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1915년까지의 22년간을 거의 남아프리카에서 보냈으며 귀국후에는 노동운동과 인도 독립운동을 하였으며 인도 國民會議派를 강화 시켰다。1919년에는 롤라트法에 반대하여 최초의 반항운동을 지도하고 그후 1930년에 소금 전매법의 반대를 위한〈소금의 행진〉등을 지도하였으며 가끔 투옥 되기도 하였다。인도 독립 후에도 이슬람교도와 힌두교의 융화에 힘썼으나 1948년 뉴델리에서 광신적인 힌두교도에게 암살되었다。

▲파월부대 훈련중 姜在求대위 수류탄 덮쳐 순직 (1965·10·4)

1965년 10월4일 폭발직전의 수류탄을 몸으로 덮쳐 부하들의 생명을 구한 姜在求대위의 殺身成仁은 아직도 온국민의 뇌리에 생생히 살아 남아 軍人精神의 귀감이 되었다。

경기도 仁川출신으로 서울고등학교를 거쳐 1960년 陸士(16기)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되어 수도사단 1연대에 소대장 발령을 받은뒤 65년 맹호부대 파월결정과 함께 맹호부대 중대장이 됐다。출전을 앞두고 수류탄 투척 훈련중 한 부하의 실수로 많은 부하의 생명이 위태롭자 자신을 던져 그는 부하들의 생명을 구하고 산화했다。

지금도 在求부대란 별명을 자랑하는 육군3878부대는 46년1월15일 태릉에서 국방경비대 제1연대로 창설된 우리 육군의 모범 부대다。

▲佛畵家 밀레 출생 (1814·10·4)

이삭줍는 여인들、晩鐘등 불후의 名作을 남겼다。原作전시를 통해 우리나라 미술팬을 감동시켰던 19세기 프랑스의 천재 화가 장·프랑스와·밀레는 1814년10월4일 프랑스의 어류도시라는 꼴자마을에서 태어나서 19세때까지 농사에만 종사했다。

성년후에 비로소 그림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大家로 자라난 기적의 畵家였다。19세에 이르러서야 畵才를 남에게 인정받고 봉듀무셀(J·다비드의 弟子)의 문하생으로 들어갔으나 2년후인 1835년 아버지의 죽음으로 미술공부를 중단했다가 이듬해 봄 세르불그에 옮겨 J·랑글로와에게 사사했다。랑글로와는 당국을 설득하여 밀레에게 매달 1천프랑의 미술연구비를 보조하도록 주선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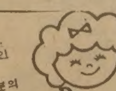
1837년 1월 밀레는 파리의 중앙화단으로 진출、폴·들라로슈 스튜디오에 등록하면서 본격적인 화가생활을 시작했다。

파리 체재기간동안 별반 각광을 받지못한 밀레는 1849년 이때 자연의 신선함을 다 갖춘듯한 멋진 마을인 바르비종에 옮기면서 성숙기가 시작되었다。

코로、디아르등 6명의 화가들과 더불어 이후 27년간 그의 대표작이 量産되었는데 가난한 농군이었던 밀레는 마침내 바르비종畵派의 대표로 올라 앉았다。

1850년 美展의 入選作「씨뿌리는 사람」은 한때 빈농의 생활을 강조한 밀레의 화풍이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이라고 공격받던 일도 있었다。

牧歌畵家 밀레는 1875년1월20일 그가 마련한 제2의 고향 바르비종에서 조용히 숨졌다。



모든 購買活動의 主導權은 女性으로부터 시작됩니다. 國內唯一의 女性 週刊誌인 주간女性은 흑자재정을 원하시는 廣告主 여러분의 廣告下命을 기다리고 있읍니다.

❖ 가장 效果的인 廣告媒体

주간女性

(416) 533-2361

거 구 장

점심특별메뉴 : 버페 $2.99
12종류 샐러드 $1.29
즉석불고기, 선지피 해장국, 멍게, 생선회.
한식, 중화요리, 케네디안식
※회갑, 생일파티, 동창회 피로연
11 : 30AM~새벽2시까지
토 일 : 2 : 00PM~2 : 00AM
(금, 토, 일-밴드있음)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김 선 남

SHANGHAI RESTAURA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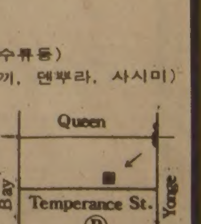
메뉴 :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등
Open Hours : 화~금 11 : 30AM-12PM
일요일 11 : 30AM-11PM
(공휴일도 문 엽니다)
주소 : 334 SPADINA AVE
(NEAR KENSINGTON MARKET)
☎ : 864-9347

新新酒樓
SUN SUN RESTAURANT

정통식 중국음식 뱅켓 카드에 담아서 원하는 대로 픽업하는 식사와 정찬
영업시간 : 월~일 9시~오후11
490 DUNDAS ST. W. TOR. (Spadina코너)
☎ : 977-3142
닭, 오리, 돼지, 바베큐신설.

오사까 하우스

각종 술을 써비스 합니다.
값싸고 맛있는 식당(초밥·국수류등)
부디 한번 찾아주세요(쓰끼야끼, 덴뿌라, 사시미)
※스토아시간 :
월~목 11 : 00AM~10 : 30PM
금요일 11 : 00AM~11 : 00PM
토요일 5 : 00PM~11 : 00PM
일요일 5 : 00PM~10 : 00PM
OPEN 7 DAYS
12 TEMPERANCE ST.
☎ : 368-2470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6 : 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 거의 다가서임)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주십시오 전화 : (416) 222-9480

一品香飯店

(짜장면등…)중국북방식
한국인 입에 알맞는 요리
특히 북경오리요리전문
1주일 내내영업(11A.M.~11P.M.)
393 DUNDAS ST. W.
☎ : 363-9527
TOR. ONT.
CHING-ROYAL RESTAURANT

意安飯店
의 안 반 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 4시까지 영 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랍스타, 게, 굴, 해삼, 전복 등을 준비해 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4 PM~4 AM
토~일 : 12PM
171 DUNDAS ST. W.
(Spadina동쪽으로 Chestnut코너)
☎ : 977-9734

코리아 하우스

KOREA HOUSE
한식전문,
즉석불고기,
정종, 맥주
666 BLOOR ST. W.
TORONTO, ONT.
☎536-8666

世界의 特殊部隊

이스라엘 空挺部隊

엔테베 人質 탈환作戰 ②

1976년 7월3일 밤, 우간다 엔테베 공항에서 감행된 이스라엘군에 의한 人質구출작전은 당사국의 意表를 찔러 실시되어 온 세계를 놀라게 했다. 항공기의 급습에 의한 人質구출작전은 오늘날까지 서너 번 있었지만 이 작전만큼 극적으로 성공한 예는 없었던것 같다. 습격부대에게도, 인질에게도 거의 피해는 없었다. 이 기습공격으로 해서 이스라엘군의 단호한 태도로 테러행위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對應이 제시됐다. 엔테베의 殊勳은 이스라엘의 특수부대 「하헤블레」에 의하여 세워졌는데, 그토록 大功을 세웠으면서도 그들이 이룬 갖가지 업적은 대부분 歷史의 그늘에 가려 밝혀지지 않은채 사장된다. 이렇게 햇빛을 못보는 세계의 特殊部隊에 焦점을 맞추어 그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어떻게 운영되었고, 어떤 활동을 벌였는가. 귀신을 놀라게 해준 世界特殊部隊의 활약상을 연재한다.

<지난號 줄거리>

1976년 6월27일 이스라엘을 출발한 에어·프랑스의 에어버스 139편이 아테네상공에서 행방불명이 되더니 팔레스타인과 독일인 게릴라들에 공중 납치되어 아프리카 우간다의 엔테베공항에 도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스라엘은 각료를 중심으로 위기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스라엘에 입수된 정보에 따르면 비행기에 탔던 유태인들은 엔테베공항내에 격리 수용되었는데 이 사실이 알려진 후 게릴라들은 우간다방송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비롯한 여러나라에 억류된 팔레스티나 테러리스트들을 석방하면 인질을 놓아 주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대해 이스라엘은 평화적 교섭에 의한 온건한 계획(A계획)과 군사행동에 의한 인질구출계획(B계획)을 세워 사태에 대처하려고 했다.

時間을 벌려고 拉致犯의 요구 들어주기로
國防省에선 被拉 당초부터 군사행동 檢討

■平和的해결希望했으나

7월1일(목요일) 오전7시 15분, 에어·프랑스 139편 에어버스 납치에 대한 이스라엘의 위기대책위원회는 텔아비브의 수상관저에서 회의를 열고 ①우간다의 아민 대통령에 대한 설득이 난항(難航)하고 있다는 것 ②납치범들이 가두어놓고 있는 인질들(주로 유태인)이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것 ③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달리 선택해낼 여지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이스라엘정부는 게릴라들과의 교섭개시를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이스라엘이 억류중인 테러리스트의 석방에 응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납치범에게 통고하기로 결정한것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각료중에는 이 결정이 전술적 뜻이 있으며 범인의 요구에 대한 회답이기는 하나 동시에 최종 회답기한의 연장을 위한 술책이라고 뒤뜻을 해석해보이는자도 있었다.

또 정계 일부엔 정부의 태도가 너무나 허약하다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다.

오후1시, 우간다방송은 『게릴라들이 최종회담기한을 일방적으로 72시간 연장하여 4일(일요일) 오후2시로 변경했다』고 보도했다.

이어서 오후2시15분, 우간다 방송은 1백1명의 인질을 석방했다고 알렸다. 이 결과 엔테베에는 94명의 승객(이스라엘국적 61명, 2중국적10명, 프랑스인 22명, 무국적 1명)과 12명의 승무원만이 인질로 남아 있게 되어 게릴라가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더욱 뚜렷해졌다.

위기대책위원회에서는 테러리스트를 석방한다고하면 누구에게 교섭을 시킬 것인가, 어디서 교섭을 할 것인가, 어떤 비행기로 테러리스트를 수송할 것인가, 어떻게 테러리스트와 인질과 교환할 것인가, 석방 테러리스트의 인원은 몇명으로할 것인가, 프랑스 정부와의 협조는 어떻게 할것인가 등의 여러 문제를 검토했다.

라빈 수상은 뒤에 『목요일은 가장 위험한 날이었다. 납치된 사람들의 가족들은 테러리스트의 석방을 더욱 강력하게 요구했으며 오후 2시의 게릴라 최종 요구 기한을 앞두고 나는 군사행동 선택의 뜻은 없다는것을 표명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때는 정확한 정보도 없었고 부대편성이나 현지 연습도 하지않고 있었던 만큼 작전의 성공을 확신할수 없어 군사행동에 들어갈 자신이 없었던 것도 나의 입장이 약했던 이유의 하나였다』고 말했다.

아민 대통령은 아프리카통일기구수뇌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있었으며 그 출발시기가 회담기한을 3일간 연장한다고 발표한것과 시간을 같이 했다는것은 이 3일간에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을것이라는것을 시사(示唆)하는 것이었다.

이스라엘정부에서 교섭을 수탁한다고 앞서 결정한 것은 전적인 책략(策略)은 아니었으나 시간을 벌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며 3일간의 연기도 이스라엘에게는 큰 다행이었다.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있던 위기대책위원회는 외눈(片眼)에 외교적수완도 있는 다얀 전 국방상을 엔테베에 파견하여 시간을 벌며 동시에 정보를 수집케 하는것도 검토했다. 그러나 라빈수상은 만약 그가 우간다 또는 게릴라측에 잡혔을 경우의 손실과 굴욕을 생각하여 찬성하지 않았다.

라빈수상의 마음속에는 마지막까지 평화적 해결의 희망이 있었으나 7월2일 이후의 정보수집의 주 목적은 군사행동을 전제로 한것이었다.

■人質구출 可能性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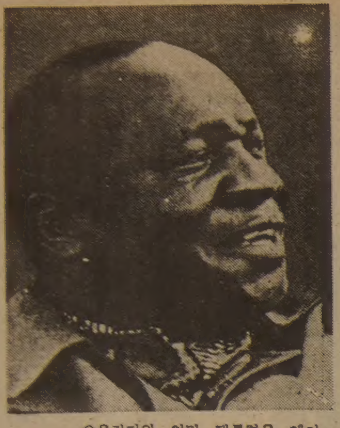
군사행동에 의한 인질구출가능성에 대해서는 납치당초부터 국방성에서 검토되고있었다. 그리고 B계획(군사행동으로 인질을 구출하는 강경책)은 텔아비브의 남쪽1백㎞ 지점의 벨세바부근의 사막에 있는 이스라엘 공군기지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이 기지의 지하에는 거대한 격납고(格納庫)가 있었고 파일러트나 공정대원들이 언제든지 출동명령에 응할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었으며 카무플라지가 잘된 활주로 바로 밑에는 국방성의 작전실이 될수있는 지하전투 지휘소가 차려져 있어 이라크에서 리비아에 이르는 사이의 갖가지 움직임을 감시하고 추적할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이곳에서도 지중해를 오가는 소련해군 함정의 동정과 소련·동구(東歐)의 항공기의 행동등을 스크린을 통하여 손바닥 들여다 보듯 훤히 알고 있었다.

이 기지에 특별공군부대의 사령관으로 1937년생인 젊은 단·숌론준장이 있었으며 그는 엔테베공항을 습격하고 인질을 탈환하는 군사행동, 즉 B계획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는 평화적교섭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여러가지 문제는 있어도 군사행동의 성공만이 사건을 해결할 것이라고 믿고있다.

그렇게 믿게된 바닥에는 과거의 국제문제로 판단하여 미국이든 소련이든 제나라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여차직 할때엔 이스라엘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때문에 강대국이 큰 영향을 미치는 국제여론엔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뜻이 깔려 있었다.



◇우간다의 아민 대통령은 에어·프랑스기 납치사건으로 세계의 이목이 엔테베에 집중되자 영웅이나 된듯 의기양양하여 이 사건을 중재하겠다고 나섰다.

司令官 단·숌론准將이 人質구출作戰계획
모사드要員들은 實業家로 假裝해 우간다서 情報수집

숌론 사령관은 몇개의 안을 검토하여 위기대책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그 자신은 이 작전에 관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추기위해 애써 평소와 변함없는것 처럼 가장하지않으면 안되었다.

6월29일 밤에도 텔아비브 교외에서 있었던 친 공정대 대령 딸의 결혼파티에 출석해서 명랑하게 담소(談笑)했다. 화제는 대부분 당연히 에어버스 납치 사건에 관한 게릴라측의 방침, 그에 대한 정부의 대처방법등이었다.

물론 군사행동에 대해서 그에게 질문이 집중 되었으나 그는 『정부가 정해주기만 하면 언제든지 해치우지』라면서 별 관심을 안두는듯 질문을 받아 넘겼다.

■아민大統領 감시

납치범들과의 연락은 우간다의 수도 캄파라에 와있었던 이스라엘의 소말리아주재 대사가 맡았고 그 보고는 프랑스의 이스라엘 대사관을 통해 본국에 보내졌는데 정보의 수집은 대부분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이 맡았고 그들이 한 역할은 극히 컸었다.

7월1일에도 비즈니스맨을 가장한 이스라엘의 비밀정보기관 모사드의 정보원들이 엘알항공기(이스라엘 국영)로 우간다의 인국 케냐의 나이로비로 가서 그 일부는 나이로비의 경찰국장과 은밀히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고 또 일부 정보원은 케냐에서 육로로 우간다에 들어갔다.

1972년 3월, 그전까지의 관계를 청산하고 고문단이 철수할 때까지 이스라엘은 우간다에 원조를 주었고 군의 육성을 맡아 왔었다. 이스라엘 공군은 우간다 공군 파일러트를 훈련했고 엔테베공항건설에도 크게 도움을 주었다.

페레스國防相지시로 굴参謀總長이 총점검
게릴라 들을 혼란·방심케 하기위해 虛僞情報도 흘려보내

◇납치가족들은 텔아비브의 라빈 수상집무실 앞에 와서 억류된 테러리스트를 납치범이 요구하는대로 풀어서 인질과 바꾸어 인질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우간다군의 편성·장비, 그리고 엔테베 공항의 활주로의 상황 및 건물의 배치등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

또 오랜동안의 지식의 축적으로 이스라엘은 우간다가 소련으로부터 어떤 무기를 입수하여 그 무기가 테러리스트의 훈련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팔레스티나인들이 우간다 정부의 중요한 지위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 등등의 정보도 갖고 있었다.

캐나다는 적극적으로 범인의 정체를 밝혀내는데 협력했다. 몬트리올·올림픽의 경비담당자로부터는 상세한 정보가 이스라엘로 보내졌다.

또 이스라엘의 정보당국은 게릴라들을 혼란케하고 방심케하기 위해 허위정보도 흘렸다.

아민대통령이 게릴라들과 공모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아는것도 문제해결을 위한 하나의 초점이었다.

과거의 이스라엘과 아민대통령과의 원만했던 관계, 그리고 텔아비브에서 발레브대령(前우간다주재 이스라엘군사고문단장)이 아민대통령에 직접 전화를 걸었던 일로 미루어 아민대통령이 인질납치를 어느정도 조정해주지 않을까하고 기대를 갖는 정부각료도 있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정보기관은 아민대통령이 이미 에어·프랑스 139편의 에어버스 납치계획을 알고 있었고 우간다와 소말리아에 대기하고있던 테러리스트들에게 납치범들과 합류할 것을 허락했다고 판단했다.

동부 아프리카해안 앞바다에 파견되어 있던 미사일구축함의 지원을 받은 이스라엘공군은 아민대통령에 대한 감시를 24시간 계속했다.

아민대통령이 아프리카통일기구 수뇌회의에 출석하기위해 특별기로 모리시어스로 갔을때 이스라엘공군의 A팬텀 전투폭격기가 미행했고 미사일구축함은 본국과의 무선중계를 맡았다.

비밀정보원에 의해 게릴라 및 우간다정부의 움직임은 모두 캄파라→나이로비→에루살렘의 경로로 1시간간격으로 이스라엘에 송신되었다.

해방된 인질들의 증언도 정보기관에 의해 정리되면 모두가 귀중한 정보자료가 되는 것이었다.

정보관계자의 관심의 하나는 정보판단에 착오가 있었던 미국의 손타이(越盟)포로수용소 습격사건같은 것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즉 습격했을때 인질들이 이미 처형되어 있거나 어딘가로 끌려가거나 하면 안된다는 결론아래 세심한 주의가 기울여졌다.

◇이스라엘의 국방상 시몬·페레스ⓐ는 카터 대통령의 외교고문 브레진스키ⓑ와 만나고도 자신의 의중은 전연 보이지않아 브레진스키는 엔테베습격이 실시되고서야 그 사실을 알았다.

◇이스라엘의 외상 이갈·알론ⓒ또한 미국의 유엔대사 모이니한ⓓ과 만났으면서 군대에 의한 인질구출 계획은 조금도 비치지 않았다.

7월2일, 그때까지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페레스국방상의 지시로 굴 참모총장에 의한 구출작전의 마지막연구가 실시되었다.

■人質처형 公算커

상황판단 결과는 다음과같이 나왔다.

①아민 대통령은 납치사건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사실에 우쭐해져서 자신이 영웅이나 된것처럼 행동하고 있고 이스라엘에 대한 협력표명은 결코 진실한 것이 아니다.

②소말리아로부터 육로를 따라 우간다의 캄파라에 급행한 테러리스트 6명이 납치범 4명과 합세했기 때문에 범인은 모두 10명이며 그 속에 주모자인 하다드가 있는 것같다.

그리고 무선연락을 엿들은 결과 리비아에서도 게릴라들의 특별고문이 우간다에 입국한것같다.

③서독에서 얻은 정보에 의하면 에어버스를 납치한 주범은 자빼이 아니고 독일인 빌블리트·베제 인것같다.

④아민대통령은 아프리카통일기구 수뇌회의를 우간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위한 선전의 마당으로 이용하고 회의가 끝난후 4일(일요일)의 최종회담기한에 맞도록 귀국할것같다. 따라서 이 동안에 이스라엘은 작전계획을 세울수 있다.

⑤인질의 처형은 최종회담기한인 4일이 지난후 시작될것이며 공포를 증대시키기 위해 한 사람씩 간격을 두고처형할 공산이 크다.

⑥우간다의 국가조사청(비밀경찰)도 게릴라들에 협력하고 있는것같다.

구출작전은 목표는 인질의 구출에 국한하고 처형이 시작되기전에 끝내기위해 7월4일, 일요일의 해뜨기 6시간전, 즉 토요일의 한 밤중에 해치우는것이 적당하다고하여 「썬더볼트」(벼락) 작전」이라고 명명(命名)되었다.

군사행동명령의 발동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페레스국방상은 『이스라엘이 만약 게릴라들에게 굴복했을경우 이스라엘의 위신은 떨어지고 나라의 존속은 위태로와진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인질이 된 승객도 이스라엘 장병처럼 행동할 필요가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휘하 장병은 아프리카의 중앙부깊숙이 출격하는것을 자랑으로 여길지언정 하등의 공포를 나타내지 않고 있었다.

국제여론의 반발과 사상자가 속출할 우려도 있었지만 군부의 방침은 작전을 결행하는 쪽으로 굳혀져 있었다.

土曜日한밤중 攻擊이 좋아…「벼락作戰」命名

라빈수상도 평화적 해결을 위해 이만큼 노력했으면 군사행동을 취하는 것도 부득이한 것이고 도의적으로도 용서받을수 있는 일이라고 느끼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각료전원의 찬성이 필요했기에 수상은 정력적으로 각료및 사령관들과 협의를 거듭했다.

그때 마침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있던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후보 지미·카터의 외교고문 브레진스키교수는 2일밤 페레스 국방상 주최의 만찬회에 초대되었다.

폴란드태생의 두사람은 폴란드말로 비행기납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브레진스키는 사건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해 아무것도 감지(感知)하는바 없었다. 그런데 4일아침 뉴욕의 자택에 전화를 건 브레진스키는 마침 그때에 엔테베공항습격의 뉴스를 들은 것이다.

브레진스키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유엔주재대사 모이니한도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있었는데 그는 2일밤에 이스라엘의 알론외상과 저녁식사를 함께 했다.

그도 『알론외상은 코피포트가 빈것도 모르고 세상에 아무 근심이 없다는듯이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는 완전히 속은것이다』고 뒤에 술회했다.

7월2일 밤까지 갖가지 정보가 수집되었고 계획이 차츰 무르익어갔다.

우간다군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았다.

총병력은 2만1천명, 2백76대의 병력수송차량을 갖고 있고 수량이 확실치않은 곡사포(曲射砲), 박격포, 미사일을 장비한 미그-17 전투기 30대 및 미그-21을 포함한 전투폭격기 50대를 보유하고 있다.

병력의 절반은 엔테베공항과 캄파라사이에 배치되어있으며 공항에는 대공포화와 탱크 약간을 가진 2개대대가 있으나 항상 경비를 맡고있는 병력수는 약 70명이다.

비행장의 여러 시설과 상황에 대한 정보도 수집하여 정리했다. 이 정보의 수집대상이 된 부문은 다음과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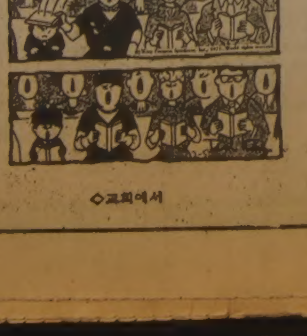
신구 활주로의 상황(길이·너비·방향), 연료탱크의 수·위치, 신구관제탑의 임무분담, 인질이 잡혀있는 건물의 상황(방의 배치, 도어의 위치, 창의위치, 방문이 안으로 열리나, 밖으로열리나), 대공포화·레이다·탱크등의 배치, 부대의 전개상황, 경계의 정도, 항공기의 통상 진입 요령.

그러나 이러한 시설의 정보를 수집하는 가운데 밝혀진 중요한 것은 인질이 갇혀있는 구 터미널 빌딩에는 폭발물이 장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다음호에 계속>

해외 걸작 만화

◇부부싸움



◇교회에서

◇자연보호

◇얘들아! 조용히들 해라

해외 걸작 만화

連載小說

스물두살의 자서전 ㊸

金洪信 作
崔然石 畵

예정보다 일찍 돌아온 우리에게 온주 누나는 편지 한장을 내밀었다.

『우표도 붙지 않은 걸 보니 누가 던져놓은 모양이더라.』

나는 편지를 뜯어 보았다. 휘갈겨 쓴 편지였다. 거북살스러운 내용 뿐이었다. 어떻게 알았는지 신사동 멱치가 던져놓은 도전장이었다.

『빌어먹을 자식들.』

나는 이렇게 투덜거리고 쓰레기통 속에 편지를 구겨서 던져 버렸다.

『무슨 편진데 그러니?』

온주 누나가 궁금해서 물었다.

『아무 것도 아냐. 까부는 애들이 한판 붙자는 거야.』

『조심해라. 너 그러다 큰일 난다.』

『알았어.』

나는 돌아서서 내 방으로 들어갔다. 기분이 좀 언짢았다. 돌아오자마자 그런 도전장을 받다니.

지난줄거리

여가수 미향이는 보슬비의 동생이었다. 그녀와의 밤은 일찌기 경험해본 적이 없는 열정과 아우성의 밤이었다. 춘삼이는 다혜에 대한 복수심에 차서 아우성을 즐겼다. 명식이는 그 밤에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되었다. 유리와의 사랑을 그 밤에 깨달은 것이다. 유리는 보통 술집 색시가 아닌 천사가 되려다 만 여자였다. 새롭게 태어난 두 사람의 발길은 가벼웠다.

상대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냥 두면 귀찮게 굴게 뻔했다. 집을 알아놓은 이상 그냥 넘길 녀석들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직접 부딪쳐서 승산이 있을 수는 없었다. 패거리들이 떼로 덤비거나 계획적으로 무기를 동원하거나 그도 아니면 애들을 잠복시켜 언제 기습공격을 감행할지 모를 일이었다.

나는 설악산에 있는 춘삼이 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귀찮은 일이 생겼어요. 신사동 멱치가 이빨을 갈고 있어요. 상대할 수도 없고 피하긴 싫고.』

나는 녀석이 보낸 도전장에 대해 남김없이 얘기해 주었다.

『알았어. 내가 애들을 보내줄께.』

『그러긴 싫어요. 이 기회에 버르장머리를 고쳐야겠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멱치하고 몇놈만 불러내 줘요. 달려놓고 볼게 말입니다.』

『자아식, 더럽게 할것 없나부다. 상대할것들을 상대해야지.』

『버르장머리 좀 고치겠다니까 그래요.』

한참동안 나를 구슬리던 춘삼이 형은 혀를 차고 그러겠다고 했다.

『김포 멱치 만날 땐 내 얘기부터 먼저 해. 괜히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알았어요.』

나는 전화를 끊고 바로 몇군데 전화를 걸었다. 김포 멱치가 어떤 사내인지 알고 싶었다.

한결같이 독종이란 낱말을 사용했다. 꽤 드센 친구인것 같았다. 춘삼이 형이 김포 쪽으로 가보라는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것 같았다.

아침에 김포행 버스를 탔다. 우선 김포의 멱치부터 만나보고 싶었다. 어떻게 생긴 친구이기에 춘삼이 형마저도 시끄럽게 굴지 말라는 것인지 모를 일이었다.

『멱치 좀 만나러 왔다.』

내가 버스 주차장 앞에 있는 이층 당구장으로 올라가 힘깨나 써보이는 녀석에게 이렇게 말했다.

『형씬 누구요?』

말투가 곱지 않았다.

『누구인지 내가 알 필요는 없고. 어디 가면 만나나?』

내가 좀 거칠어 보이게 말했다.

『멱치 형님하고 어떻게 되슈?』

여전히 곱지 않은 말투였다.

『말이 많구나.』

내가 인상을 구겨주었다. 녀석이 둘러섰던 애들에게 눈짓을 보내고 허리를 폈다.

『너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지 모르겠다만 살아서 돌아가려면 아가리부터 세탁하고 와.』

당구대 위에 걸터 앉은 사내 입에서 험악한 말이 튀어 나왔다. 나는 피식거리며 웃었다.

『당구공 내려놔. 그리고 멱치가 어디 있나만 얘기해.』

『허!』

헛김 빠지는 소리를 한 사내가 뒤에 죽 늘어서있는 사내들을 쳐다보았다.

『이 친구, 병원에 실어다 드려라.』

나는 또 피식거리며 웃었다. 진짜 자신있는 사내들은 입을 험하게 굴리지 않는 법이었다. 애송이들이나 아가리 가지고 겁주려고 하는 것이었다.

당구공이 휘휘 날았다. 나는 피하지 않은 채 꼿꼿하게 서 있었다. 당구공이 벽을 강타하고 바닥으로 굴렀다. 큣대가 허공을 가르며 섞여거렸다. 가볍게 물러서며 앞에 있는 녀석부터 바닥에 내려 꽂았다.

사내들이 주춤주춤 물러섰다. 나는 당구대에 걸터앉아 뒤에 있는 녀석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가소롭지만 한판 붙자는 도전장에 그냥 둘수는 없어
여유있는 표정, 몸짓이 한점 빈틈없는 사내처럼 보여

『너 가서 멱치 찾아와. 빨리!』

녀석이 잽싸게 뛰어나갔다.

『너희들은 얌전하게 있어. 움직이면 골통이 병원에 가게 되니까.』

구석에 몰려섰는 사내들이 꿈쩍도 하지 않았다. 나는 당구공을 모아놓고 당구를 치기 시작했다. 아무리 빨라도 10분 정도 걸려야만 멱치가 도착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춘삼이 형이 조심하라고 일렀지만 나는 춘삼이 형 말을 거역하고 있었다. 그런 독종이라면 언제 어디서고 한판 붙어보고 싶었다. 상대가 될만한 녀석이라면 누구 이를 팔아서 친해지기는 싫었다.

당구장 문이 열렸다. 말쑥한 신사복 차림의 사내, 훤칠한 키에 별명답지 않게 잘 생긴 사내가 들어섰다.

나는 큣대를 세워놓고 그의 거동을 살펴보았다. 침착한 걸음걸이, 예민한 신경조직이 느껴지는 몸짓, 여유있는 표정이 예사 솜씨는 아닌 것 같았다. 나는 그 순간에 멱치의 실력이 만만찮다는 느낌을 받았다. 날고 긴다는 춘삼이 형이 조심하라고 일러둘 만한 사내라고 생각했다.

『내가 멱치라는 사람입니다.』

정중했다. 어디 한점 빈틈을 보이지 않는 동작이었다.

『장충찬이라고 합니다.』

나도 정중하게 대꾸했다. 멱치도 내 예민한 몸짓에서 상대가 될만한 사내라는 걸 간파한 것 같았다.

『혹시 봉수 형님과 같이 계시진 않았습니까?』

『한때 같은 밥 먹었었지요.』

『말씀 많이 들었읍니다. 이거 반갑습니다.』

『나도 춘삼이 형한테 말씀 많이 들었읍니다.』

『아, 춘삼이 형도 전활 하셨더군요. 이거 대접이 말 아니게 돼서 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누었다. 서로 진짜 짱은 몰라도 괜찮은 사이라는걸 우리는 느끼고 있었다.

둘러섰던 애들이 우리 두 사람의 친해지는 방법을 눈여겨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려가 차 한잔 하십시다.』

『그러지요.』

우리는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당구장 아래층은 깔끔한 다방이었다.

『춘삼이 형이 신신당부 하더군요. 위험한 일 맡겼으니 뒤도 살펴주라고 말입니다.』

『춘삼이 형이 당한 모양입니다. 부정 휘발유 생산하는 친구들한테 말입니다. 그래서 나서봤는데 필 알아야죠. 이 근처에 그런 조직이 꽤 많은 모양이던데 말입니다.』

나는 춘삼이 형과 나누었던 얘기를 멱치에게 자세히 얘기해 주었다.

『그런 얘긴 얼핏 듣기는 했읍니다만 나는 자세히 알진 못합니다. 한번 애들을 풀어 보지요.』

『이거 폐가 많습니다.』

『별 말씀을 다하십니다. 저도 얘기만 듣고 한번 만나보고 싶었던 참입니다. 가깝게 지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배가 맞는 사이였다. 멱치가 서울무대를 떠나서 조그만 지역을 맡고 있지만 그의 실력이 서울에서는 최상급으로 알아준다는걸 알았다.

『운동은 어디서 하셨나요?』

내가 이렇게 질문했다.

『제룡산에 있을 때 무공(無空)스님한테 몇수 배운것 뿐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공 스님이라면 내게 있어선 경악스런 존재였다. 떠돌이 행자승의 사부님으로서 그의 명성을 익히 아는 터였기 때문이었다. 무공 스님한테 사사했다면 나보다 한수 위라고 보아도 좋을것같았다. 서울의 전문가들이 멱치를 두려워하는 이유를 알것같았다.

『나도 무공 스님의 활법과 무공법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회초리 한개만 들고 다니는 행자승한테요.』

『아, 무초(霧草)스님말씀이군요. 정이 깊은 분이지요. 나보다 위시고 나도 무초권법을 사사한 적이 있었지요. 염력(念力)이 대단한 분이셨지요. 이러고 보니 우리 한식구끼리 만난 셈입니다.』

정말 반가운 사이였다. 그렇게 돌아다녀 보아도 무초 스님이나 무공 스님의 사사를 받은 사람을 만날수 없었다. 멱치가 최초의 인물이었다. 멱치가 얼마나 무술에 조예가 깊은지 알 것 같았다. 무공 스님의 성품으로 보아 제자를 그리 쉽게 양성할 분이 아니었다. 멱치가 그 휘하에서 실력을 다듬었다면 보통 인물은 아닌것 같았다.

『정말 반갑습니다. 실례지만 연배를 알고 싶습니다. 제 위인것 같은데요.』

『네, 스물다섯입니다. 여기선 서른 좀 행세하곤 있지만요.』

『그럼 저한테 사형이 되십니다.』

『이거 훌륭한 분을 사제로 삼게 되어 영광입니다.』

『말씀 낮추지요. 이런 인연이 또 어디 있겠읍니까.』

우리는 피차 통할수 있는 사이였다. 무공법을 익힌 것이라든지 무초권법을 서로 알고 있다는것은 핏줄을 나눈 사이만큼이나 짙은 정이 깔려 있는 셈이었다.

『그 무초 스님 지금 어디 계신가요?』

『설악산쪽에 조그만 암자를 짓고 안거하신지가 여러해 돼. 무공스님은 돌아가셨지만. 무초스님을 찾아뵈었더니 묵언(默言)중이셔서 한마디 말씀도 못듣고 내려왔지. 일체 중생을 대하시지 않고 찾아뵈어도 어찌 아시는지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그러시니까.』

『형은 어쩌다 이런 세계로 흘러 왔어요. 무공 스님이 아셨으면 혈맥이 끊길 일 아닙니까?』

『……。』

『괜한 걸 물었읍니다.』

『차차 얘기해 줄께.』

멱치 형은 괴로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아마 무슨 곡절이 있는 모양이었다.

『오늘 여기서 묵고 가지 그래.』

『바쁜 일 없으면.』

『안돼요. 형 만났으니 일단 돌아갔다가 내일이나 모레쯤 다시 올게요.』

『섭섭해서 그러지.』

『이제 자주 만날 걸요 뭐. 비빔밥인지 부정 휘발유인지 그거나 좀 형이 알아봐 줘요. 꼬리만 잡아주면 직접, 내가 나설께요. 춘삼이 형이 그러길 바라고 있으니까요.』

『그러지 않아도 춘삼이 형한테 얘길 들었어. 애들을 풀어놨으니까 꼬투리가 잡히겠지. 내가 잡히는대로 곧장 연락해 줄께.』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얘기를 나누었다. 같은 무술을 연마한 처지라서 할 얘기가 많았다. 멱치 형도 표창과 한풀에 조예가 깊다는 걸 알았다. 춘삼이 형이 내 실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멱치 형과 조우하는 걸 그렇게 신경 썼던 것 같았다.

『신사동 멱치애들은 어쩔테야?』

멱치 형은 이렇게 물었다.

『그걸 형이 어떻게 알아요?』

『춘삼이 형이 얘기하더라. 그 애들 좀 불러다 주라고.』

『그냥 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손대기도 그렇고 해서 버르장머리나 고쳐 주려고 그래요.』

『알았어. 시끄럽지 않게 버릇 고쳐놔.』

나는 멱치 형이 내준 자가용을 타고 다시 서울로 달리기 시작했다. 세 녀석이 나를 따라왔다. 신사동 멱치패를 불러낼 친구들이었다.

멱치 형의 부하들은 신사동 쪽으로 가고 나는 다혜네 집 근처에서 내렸다. 전화를 걸까 망설이다가 무작정 쳐들어가는 기분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다혜 어머니가 반갑게 나를 맞아들였다.

『오랜만이네요. 다혜는 안에 있어요.』

『갑자기 연락도 안드리고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보고싶어서 그냥 왔어요.』

『별 말씀 다하시네. 자주와요. 쟤 성깔이 좀 못돼서 그런 거니까 학생이 이해 해요. 어서 들어가봐요.』

다혜가 팔짱을 끼고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오랜만이다. 보고싶어서 왔다.』

내가 소파에 걸터앉으며 말했다.

『미나씨는 어쩌고 혼자 다니셔?』

아직도 그 오해가 풀린 것은 아닌것 같았다.

『오해하지 마. 제발 다혜만은 그러지 마. 답답해 죽겠어.』

『오해고 육해고 다시 만날 생각 없어. 치사하게 추근거리는 거 난 딱 질색이니까.』

냉랭한 표정이었다.

『안만나도 좋고 치사하다고 해도 좋아. 밝힐 건 밝히고 넘어가야겠어. 분명히 얘기하지만 난 미나와 아무 관계도 없어. 이건 다혜가 믿는 하나님한테 맹세할 수 있어.』

『좋아, 내가 오해했다고 치고 우리 이걸로 끝내. 더 이상 만나지 않겠어.』

『오해했다고 치는 건 인정할 수 없어. 오해인지 사실인지 밝힌 뒤에 만나든 안만나든 다혜 네가 결정해. 추근거리지 않겠어.』

나는 지지 않고 달려들었다.

『무릎맞춤 하자는 거야?』

『미나가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나는 몰라. 다혜가 한번 더 확인해봐. 미나가 사람같은 여자라면 내가 어떤 놈이라는 걸 알 거야.』

『찾아가 만나게 해줘. 그럼 되잖아.』

『난 그러기 싫어.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뭐하러 두 사람 사이에 끼어서 그 짓을 해.』

『나도 만나기 싫어.』

『그럼 나한테 사과해. 그리고 안만나도 좋아. 난 결단코 다혜한테 오해받을 짓을 한 적이 없으니까.』

『좋아하네.』

다혜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나는 그녀의 팔목을 붙잡아 자리에 앉혔다. 다혜 어머니가 우리를 눈치를 보느라고 찻잔을 들고 서있었다. 나는 그쪽으로 쫓아가 찻잔을 받았다.

『다혜 버릇 좀 고쳐도 괜찮아요?』

『그래요. 얘가 버릇이 없어요.』

『저 고집 꺾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아서 그래요.』

『알아서 해요. 너무 심하게 다루진 말고요.』

『제가 알아서 할테니 이해해 주세요.』

『어서 가봐요.』

다혜 어머니가 내 등을 도닥거려 주었다.

『그럼 같이 가자. 내가 미나를 불러낼 테니까.』

『싫어. 이거 놔. 놔줘.』

『너 정말 이렇게 나올 거야?』

『웃기지 마. 나한테까지 그런 수법을 쓸 생각 말아.』

『너 정말 이럴 거야?』

『집에 가서 발닦고 자. 그렇게 할 것이 없어.』

나는 그렇게 말하는 다혜의 팔목을 꺾어 잡았다. 다혜가 몸을 꼬며 소리 질렀다. 나는 그런 다혜의 입술을 훔쳤다. 다혜의 손바닥이 나를 때리려고 했다.

철썩 철썩.

따귀 두 대를 올려붙였다. 다혜가 털썩 주저앉았다.

『나도 너같은 기집애 만나고 싶지 않아. 남 말만 듣고 치사한 사내 만들면 죄받아. 나중에 확인한 뒤에 무릎 꿇고 빌지 않으면 나도 널 만나지 않겠어. 너만 잘나고 너만 똑똑하고 너만 옳은 줄 알면 오산야.』

나는 다혜를 마룻바닥에 내던지고 성큼성큼 걸어나왔다. 마당에 서성거리고 있던 다혜 어머니가 겸연쩍게 웃었다.

『죄송합니다. 고집 좀 꺾어주려고 그랬읍니다.』

『괜찮아요. 저러다 괜찮아질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가끔 들러 오겠읍니다.』

『잘 가요.』

나는 내리막길을 빠른 걸음으로 내려왔다. 어디 가서 퍼마시나 혼돈히 떠든 뒤에 신사동 쪽으로 갈 생각이었다.

후련하기도 했고 가슴이 쓰릴듯 무너지는 기분이기도 했다. 이번 일로 다혜와 영원히 헤어질 수도 있는 일이었다.

속이 넓은 여자라면 언젠가 마음을 풀릴 것이지만… 그건 내 기대이지 다혜의 마음은 아닐 것 같았다. 내가 좀 심하게 다룬 것인지도 모르겠다.

신사동의 약속한 장소까지 가려면 조금 서둘러야 할 시간이었다. 가까운 식당에 들어가 저녁을 먹고 곧장 택시를 탔다.

신사동을 지나 교차로 쪽에서 내렸다. 약속한 술집의 불빛이 멀찌이 보였다.

붉은 등 아래 술집 간판이 유난히 크게 보이고 있었다.

하나님, 주먹만 믿고 까부는 애들 손좀 보겠읍니다. 정짜 주먹 쓸 줄 아는 친구들은 절대로 저러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있죠. 신분에 이름 나고 가난한 사람 등쳐 먹는 무리들은 출세주의라는것도 알고 있겠죠. 정짜 전문가는 옳지 않은 일보다 옳은 일을 더 많이 한다는것도 아시겠죠.

<다음주에계속>

″같은무술을 배운사람이 뜻밖에 만날줄야…정말 반갑소″

″옳지않은일보다 옳은일을 더많이 한다는걸 아시겠죠″

부부화목 모범가정, 밝아지는 교포사회

書記官이상 4百여명 減縮

政府機構축소방안 總務處、中間발표 당초보다 百여명 늘어

次官補포함 1級만 20명線

文公部등 모범試案은 確定

來10일까지 最終案…11월중에 人事단행

조직정비작업을 추진중인 정부는 廢止또는 縮小대상職位를 당초방침(4급이상2백32개職)보다 훨씬 늘어난 4백여개로 정하고 오는10월10일까지 축소개편最終案을 마련키로했다。정부는 이어 最終案이 마련되는대로 오는11월중에 各部處단위로 後續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조직정비 대상인 중앙의 35개기관중 文公部、서울시 등 몇개부처는 당초기준에 부합되는 합리적이고 모범적인 試案을 총무처에 제출、개편안이 이미 확정된것으로 밝혀졌으나 경제기획원 내무부 문교부 농수산부등 4~5개 부처는 현재 총무처와 1차 試案을 놓고 마지막 조정작업을 벌이고있는 것으로 밝혀져 최종 개편안을 불원간 마무리지을 예정인것으로 알려졌다。

金容烋총무처장관은 30일 정부조직정비작업의 중간결과를 발표、『폐지될 직위는 당초 폐지대상 2백32개직위보다 1백여개가 늘어나 4백개를 넘어갈 직위를 합하면 4백개가 넘을것』이라고 밝히고『정부 各部處에서 정비작업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현재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各市道등 지방단체도 당초의 정비방향과 지침에 준해 조직정비작업을 하고있다』고 말했다。

그는『폐지대상이될 4백개가운데에는 6명의 次官補를 포함, 1級이상이 20개에 이르고있으며 課는 책임한계가 모호한것만 統廢合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조직정비작업의 기준은 당초 방침대로▲책임한계를 명확히하고▲기능의 합리적인 再分配를위해 大局大課주의를 택하며▲소속기관장 직급을 下向조정하고 부기관장을 폐지하거나 직급을 下向조정하며▲지방청등 중간감독기관을 廣域체제로 개편하며▲擔當官을 대폭적으로 정비하는것등이라고 金장관은 밝혔다。그러나 상공부의 통상진흥관、재무부의 재무협력관등 업무상 꼭필요한 담당관은 존속시키기로 했다。

技能경기 入賞者들 全대통령 招請만찬

全斗煥 대통령은 30일 하오 청와대에서 영부인 李順子여사와함께 제16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金메달을 차지한 趙良順양(24·美容부문)등 入賞者 1백35명과 단체표창을받은 正修직업훈련원의 朴義浩원장등 5명、金在中씨(기술위원장)등 심사위원 7명등 모두1백47명을 위해 만찬을 베풀고 이들을 격려했다。

이자리에는 李奎浩 문교、權重東노동、李正五과기처장관과 李啓完 忠南지사、洪性澈기능올림픽한국위원회장등이 배석했다。

칼텍스會長등 接見

全斗煥 대통령은 30일하오 청와대에서 美칼텍스 石油회사의 제임즈·보스회장을 접견하고 환담했다。

이자리에는 朴鳳煥 동자부장관과 具平會 湖南精油사장이 배석했다。

全대통령은 이어 스탠리·매가프리 국제로터리 회장내외를 접견했다。【사진】

韓·日頂上회담 早速 개최촉구

나라前日大使

【홍콩29日=聯】스즈끼·젠꼬(鈴木善幸)일본 수상은 가능한한 조속한시일내에 韓國을방문、韓日양국간의 현안타결책을 모색해야하며 그렇게하지않을경우 두나라관계의 악화를 초래할 일련의 불행한 사태들이 발생할것이라고 싱가포르·베트남및 캐나다주재 일본대사를 역임한 나라·야스히꼬씨가 29일 경고했다。

나라前대사는 이날 홍콩에서발행되는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지의 논평해설난에실린『한국과 일본、가장가깝고도 먼 이웃』이라는 제목의 기고기사에서 그같이 경고하고 스즈끼수상의 방한은 빠르면빠를수록 좋다고말했다。

그는 스즈끼수상이 지난5월 미국을 방문했을때 그를 수행한 관리들의 외교수행방식때문에 낭패를 겪은바있다고 지적하면서 스즈끼수상은 이제 한국과의 외교절충을통해 자신이 위기를 해결할수있다는점을 과시할 필요가있다고 주장했다。

나라씨는 이어 일본의다수인사들도 東北太平洋지역의 안보유지에 있어 한국이 수행하고있는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민사당과 함께 공명당까지도 한국측의 주장에 동조적이나 일본정부와 기타 정당들은한결같이 한국의 갑작스런 대규모 경협요구에 응할수없다는 입장만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自由中國"직접對話 신중檢討"

中共、平和統一方案 9개項 제시

中央政府참여、自治權·軍隊유지認定

"기업인들의 對中共투자·商行爲환영"

【臺北30日 聯合=UPI】자유중국 정부는 30일 중국 본토와 대만을 통일시키기위해 직접 대화를 갖자는 중공의 제의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정부대변인은 30일 중공이 발표한 제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신중히 검토하는 단계에서 논평은 하지않을것이라고 말했다。

【北京30日AP=聯】중공은 30일『중국본토와 대만의 불행한 분단상태를 조속히 종식시키고 중국의 평화통일을 촉진하기위해 중공당과 대만의 국민당이 互惠평등의 기반위에서 직접적인 대화를 개시하자』고 제의했다。

사실상의 중공국가원수인 전국 인민대표대회(全人代)상무위원장 葉劍英은 중공정권수립 32주년기념일을 하루앞둔이날 대만에대한 가장 강력한 평화공세의를 발표、▲대만당국의 중앙정부지도층 참여▲대만자치인정▲대만군대 유지인정등을 골자로하는 9개항의 중국통일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葉은 관영新華社통신을 통해 발표한 이제의에서 양측의 직접 대화를 촉구하면서 중국본토와 대만이 통일될경우『대만은 특별행정지역으로서 높은수준의 자치권을향유할수 있을것이며 대만각계각층의 대표및 당국자들이 국가지도층지위를 떠맡고 전체적인 국정에 참여할수있도록 허용될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중앙정부가 대만의 지방문제에 개입하지 않을것』이라고 밝히고『대만 자체의 군대와 대만의사회、경제체제가 계속 유지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공·대만간 국공대화 방법으로『우선 양측이서로의 견해를 남김없이 교환하기 위해 대표를 파견할 수있을것』이라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날짜를 지적하지는 않았다。

그는 대만이 필요로할경우 중공이 재정지원을 할수있다고 제의하면서 대만의기업가들이 중공에투자를하거나 본토에서 상행위를 하는것을환영한다고 말하고 이들의 법적권리및 이익등이 보장될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양측이 우편물 교환、무역、항공및 선박운항、친척과 여행자의 방문및 학술、문화、스포츠교류를 위한 협정체결을위해 서로 노력하자고 제의하고 그 과도적 단계로 홍콩、마카오및 해외거주 중국인들이 통일을위한 가교역할을 계속해줄것을 희망했다。

葉이 이날발표한 평화제의는 지난2년동안 중공당국이 수시로 밝힌제의로는 처음으로 일괄 종합、정부고위층을 통해 발표한것이다。

이평화제의는 미국과 중공간의 주요쟁점인 미국의 대만무기 판매와 관련、미국의입장을 보다 어렵게만들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것으로보인다。

對韓經協 적극推進

스즈끼 日首相

【東京30日=宋孝彬특파원】스즈끼수상은 30일 衆議院對정부 질의에서『한국은 중요한 隣邦이며 새로운 국가건설에 매진하고있으므로 일본정부는 가능한한 對韓經濟협력을 적극추진、韓日우호증진을 넓혀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오늘 33돌 國軍의날

汝矣島서 대규모 紀念행사

1일은 33주년 국군의날。정부는 이날상오10시 서울 汝矣島광장에서 전군사상 최대규모의 기념식행사를 갖고 하오3시부터는 3군의 위용을과시하는 도보부대와 기계화부대의 시가행진을 펼친다。

한편 이날하루 제복을입은 국군장병에게는 고궁·관광지 무료입장과 시내버스 지하철의 무임승차 극장할인혜택이 주어지며 7백만갑의 기념담배(거북선·환희·솔)가 발매된다。

▲기념식=상오 10시부터 2시간동안 汝矣島광장에서 열리는 기념식에는 3부요인과 군고위장성、내한한 각국 군사사절 2백여명과 6천5백여명의 내빈들이참석한다。

▲시가행진=하오3시부터 1시간반동안 南大門~光化門~鍾路~東大門연도에 도보부대와 기계화부대가 행진을 벌인다。

▲불꽃놀이=하오6시부터 남산8각정등 7곳에서 1시간동안 진행된다。

▲경축연=하오6시부터 경회루에서 3부요인과 외빈、현역및 예비역장성등 3천여명이 참가한가운데 열린다。

▲지방행사=仁川 北坪 木浦 濟州등 4개 항도에서 해군함정들이 상오8시부터 하오5시까지 일반에게 공개되고 大邱 大田 光州 水原 江陵 泗川 金海 淸州 橫城등 9개도시에서는 이날 하루동안 항공기 공개및 사진전시회가 열린다。

위컴、祝賀메시지

존·A·위컴 유엔군사령관은 33주년국군의날에 즈음하여 30일 周永福국방장관에게 축하메시지를 보내고 한국의 육해공군과 해병대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군대라고 치하했다。

위컴대장은 또『한국군의 경계태세는 침략자에대한 강한 경고가 되고있다』며『국군장병 모두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낸다』고 말했다。

◇88올림픽 서울유치 준비위원회 위원들이 29일 IOC총회의 후보신청설명회에서 나란히 앉아있다。㊧로부터 李元洪 한국방송공사사장, 鄭周永現代그룹회장, 朴英秀서울시장, 吉相鎬대한체육회장。 =【바덴바덴(西獨) 29日AP聯=聯】

"세계에「한국」크게認識시켰다"

朴市長 五輪誘致위원들의 적극활동 성과

【바덴바덴(西獨)30日=金聖浩특파원】88년 하계올림픽의 서울유치를위해 총력을 기울여온 한국대표단은 28일 하오 IOC총회에서의 제안설명을 끝으로 일단 득표작전을 마무리짓고 낙관도 비관도 할수없는 상태에서 29일 결전의 날을 맞았다。

제안설명이 끝난뒤 한국대표단의 朴英秀서울시장은『최근들어 꾸준히 한국세가 상승되기는 했으나 승리의 확신은 속단』이라고 조심스럽게 득표결과를 내다보면서『짧은 기간내에 이만큼 한국을 널리 소개할수 있었던것은 경이적』이라고 그동안의 노력을 종합평가했다。

朴시장은 이어『유치위원들이 혼연일체가되어 대응한것이 효과를 거둘것으로본다』고말하면서『특히 鄭周永 趙重勳 金宇中 裵鍾烈씨등 실업인들의 활동이 매우 적극적이었기때문에 성과가 나타나지않을까 생각한다』고 기대를 걸었다。

朴시장은『IOC총회에서의 한국측제안설명에대한 각 위원들의 반응이좋아 한층고무적』이라고말했다。

또한 金澤壽 IOC위원은『여러IOC위원들이 처음에는 한국이 올림픽을 유치하려는데대해 의문을 가졌으나、한국측의 그동안의설득과 제안설명을 듣고 한국의열의를 확인했고 올림픽개최의시설과 준비에는 조금도 기우할 필요가 없다는 확신을 갖게되었다』고 IOC위원들의 분위기를 전한뒤『표는 깨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애를 썼으니 훌륭한 보답이 있을것으로 믿는다』고말했다。

한국대표단측에서는 29일 상오 현재 한국과 일본이 각각 32~35표의 거의 비슷한 표를 확보한것으로 계산하고 많은 부동표가 28일의 제안설명후에 행방이 정해질것으로 보고있다。

한국측은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에서 우세하고 크게 열세이던 유럽에서도 상당히 추격한것으로 알려졌다。

소련을 비롯한 동구에서는 일부 기권표가 나올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한국측을 고무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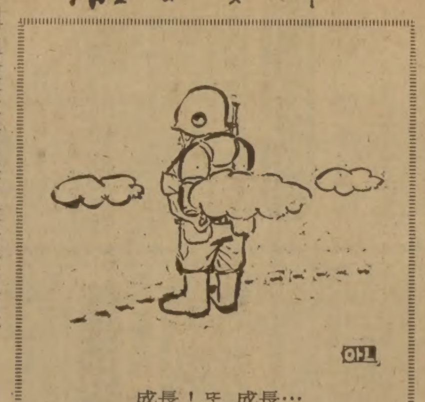
28일의 제안설명에서는 鄭相鎬 KOC위원이『올림픽 역사상 개발도상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를 시도하는 서울市의 용기와 노력에 지지를 바란다』고 호소한뒤『IOC가 스포츠를 통한 대화로 세계평화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한국같은 분단국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는것이 큰의의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진행된 질의답변에서 IOC위원과 각국제경기연맹 대표들은 비교적 온전한 질문들을 했고 이에대한 한국측답변은 호의적반응을 얻었다。

한국의 정치상황이 올림픽개최에 지장을 주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정치적 상황은 올림픽개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대답했고 86년의 아시안게임을 신청해놓고 88년의 올림픽까지 하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아시안게임이 서울에서 열린다면 그것은 올림픽준비에 도움이 될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설명회에서는 이밖에자금조달문제、올림픽촌의 대회후 사용문제、자전거·조정경기장과 경마장등의 문제、기자촌문제、운동기구수입문제、그리고 선수들의 숙박비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社會漫評



成長！또 成長…

7小區 第2號井 來5일 試掘작업

한국側개발권자

【東京30日=聯】韓日대륙붕공동 개발구역의 제7소광구에서 오는10월5일께부터 약 3개월동안 한국측 개발권자 해밀턴·브리더즈·코리아社가 제2號井 시굴작업을 벌인다고 29일하오 일본석유개발이 발표했다。

시굴지점은 북위30도23분12초 동경 1백26도27분33초의 제주도 남방지점으로 일본해양굴착회사의 시굴선 제5白龍호를 이용하여 심도약 4천2백m까지 시굴할 예정이라고 일본석유개발이 말했다。

시굴에 따른 자재보급기지는 釜山이며 수송을 담당할 헬리콥터기지는 제주도에 두게된다。

地平線

우리나라는 세계에 자랑할 명산이 많기로 유명하다。八域志를쓴 李重煥은 八大名山을 들면서 金剛을 첫째로 꼽고 그다음으로 雪岳、五臺、太白、小白、俗離、德裕、智異山을들었다。12大명산을말할때는 관북의 七寶、관서의 妙香、영남의 伽倻、안동의 淸凉山이 더들어간다。그러면 白頭山은 명산이 아니냐고 고개를 갸우뚱하는이가 많겠지만 白頭山은 宗山이요 聖山이기때문에 예외로 치는것이다。또 5大神山으론 金剛、智異、漢拏、妙香、九月山을 꼽는 것이 속설인것 같다。▼굽어보니 東海水발아래는 一萬二千峰이라는 金剛山은 지금쯤 빨갛게 단풍이 물들어 산악미의 극치를 보이고 있을 것이다。울창한 太古의 산림에 奇峰怪岩、거기에 飛瀑急湍—가볼수는 없지만 돌과 물과 나무가 온갖 기교와 조화를 다부려 溪谷美、淵潭美、瀑布美를 이룬 絶勝을 보여 주고 있을 것이다。한데 이 무슨낯 도깨비 같은 소리일까。외국인이 金剛山을 보기 위해 한다는 일본 NHK 현지 르포가 들려오니 귀를 의심하게된다。한마디로 金剛山이 오염됐다는 말이다。그것도 탐승객들이 버린쓰레기로 오염된것이 아니라 정치에 오염됐다는 얘기다。▼巨岩엔 金아무개 만세등 상투적인 정치선전 표어가 새겨져있고 金日成의아버지 金亨稷의 말이라는 「志遠」이라는 문자가 곳곳에 널려있다는 것이다。北傀선전에 넘어가기쉬운 일본인 기자들눈에마저 분노를 자아내게했고 이 TV방송을본 재일한국인들은 기가막혀 치가떨린다는 소식이다。대자연의위엄을 보여주던 外金剛의 九龍淵과 萬物相、碧潭·急湍으로 溪谷美의 극치인 內金剛의 萬瀑洞이나 明鏡臺—이모든 景勝地에 偶像化 표어들이 마구 새겨져 있을터이니 말문이 막힌다。자연보호를 몰라도 너무모르는 판이다。金剛山에는回天의 偉業을 이루려고 애쓰다 뜻을 못편채간 麻衣太子陵이 있는가하면 西山과 四溟같은 高僧、栗谷같은 儒賢의 遊跡도 남아있다。이 名所들을 안내할때에도 정치적넋두리를 늘어놓는다니 듣기가 자못 역겹다。▼예부터 蓬萊、楓嶽、皆骨등으로도불린 우리의 金剛山을 보지않고는 천하의풍경을 논하지말라는 말까지있었는데 이제 외국인관광객들마저 머리를 돌린다니 새삼분노를 금치못하게된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ROLEX

결혼·약혼 예물은 은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 온스당 US438
은: 온스당 US9.65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534-7791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이대환 不動産

주택과 사업체에 관한
일체의 문의나 거래는·

금주의 새 리스팅

●도나스 샾
①주매상 $12,000, 렌트 $1,200, 리스9년(옵션가능), 현금 $250,000Down, 아스킹 $385,000
②주매상 $8,500, 렌트 $2,900, 리스9년+5년, 다운페이 $150,000, 아스킹 $295,000
③주매상 $6,000, 렌트 $2,650, 아스킹 $190,000(현금이면 기만불 디스 카운트, 리스20년
④주매상 $8,000이상(시외), 렌트 $1,700, 리스 19년, 현금 12만불 다운페이, 아스킹 $25만

●버라이어티
①주매상 $8,500, 리스9년+5년, 렌트 $900, 아스킹 11만5천달러(로타리오 인컴 넵1000달러)
②주매상 $13,000, 리스9년, 렌트 $1,850, 아스킹 15만9천달러
③주매상 $7,000, 리스15년, 렌트 $950, 아스킹 7만5천달러(플라자 내)
●햄버거 샾
●드라이크리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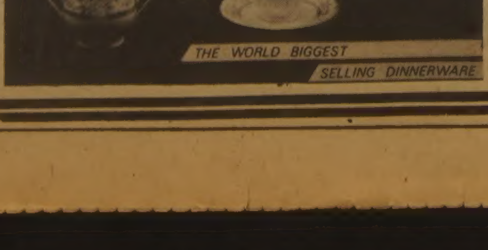
주소: 609 BLOOR ST. W.
B) 535-1251, R) 536-4250

세일즈맨
신영하

양식기 가을대방출
(CONTEMPORARY FALL SALE)

지난번에 오셨다가 물건이 매진되어 그냥 가신분 봄 가격과 같은 값으로 다시 모시겠읍니다.

● 선정된 고급 15개 품목 반액으로 팝니다.
● 기타 모든 Noritake China Set정가의 25%~35% 감한가격으로 팔겠읍니다.
● 새로 일본에서 직수입한 대형접시와 만두, 비빔밥, 냉면등으로 쓰시기 좋은 그릇과 찐그릇 정가의 약 ¼가격(75% OFF)으로 재고가 떨어질때까지 방매 하겠읍니다.



특가기간: 9월21일부터 물건이 떨어질때까지
상점소재지: 4841 Yonge st.
(yonge과 sheppard의 sheppard center내)
전화번호: 221-5990 MRS. 고

AMIK CRAFT SHOP

Daily Newspaper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TEL: (416) 533-2361

北韓、蘇팽창 代理戰역할

와인버거美國防 "政情불안地域에 操縱士파견"

【워싱턴30日=曺淳煥특파원】 와인버거美국방장관은 북한이 정치정세가 불안한 수개의 해외국가들에 북한조종사들을 보내서 소련의 해외세력팽창에 기여하여 리비아처럼 소련의 대외세력이되고있다고 29일 밝혔다.

와인버거장관은 99페이지의 「소련군사력」이란 기밀에 속했던 소책자를 29일 공개하면서 국방성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밖의 소련의 주요 대외세력으로 쿠바, 동독, 헝가리, 체코, 불가리아, 베트남, 남예멘을 열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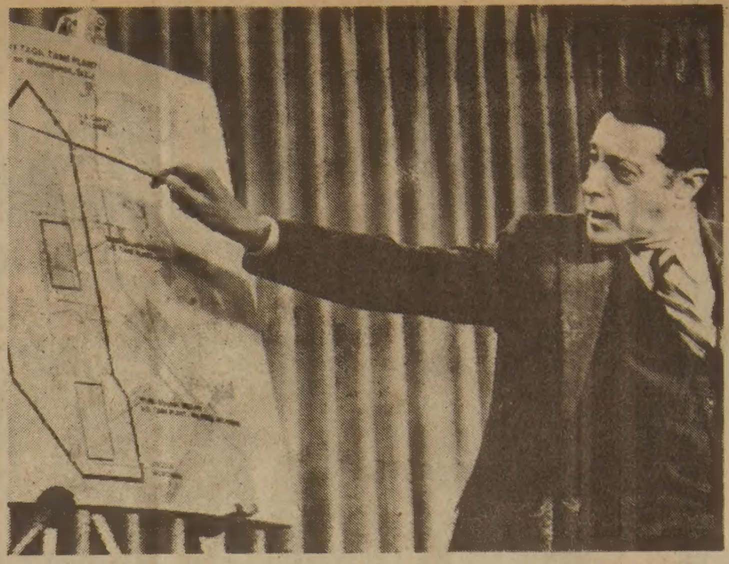
와인버거장관은 소련이 주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지역을향해 다탄두 SS20이동식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으나 이미사일의 일부는 중공과 일본을 사정거리에두고 겨냥하고 있다고말했다.

국방성의한관리는2백50기의 소SS20미사일중 약75기가 아시아를향해 배치되어있다고 밝히고 이 미사일들이 중공과 일본을 겨냥하고있다는것은 한국도 그사정권에포함되는것은 의심할 여지가없다고 말했다.

소련과 북한의 통합된 군사력의 한국과 주한미군에대한 위협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와인버거장관은 『미국은 한국군의 군사력및 주한미군을 강화하는 실질적 계획을 갖고있으며 비상사태에 대비, 부대를 긴급증파하는 계획도 마련해두고있다』고만 밝혔다.

국방성의 한관리는 「소련군사력」에 담겨진내용중 약 30%가 이제까지 극비에 붙여진것이 많다고 말했다.

이관리는 소련 미사일배치도 뱀파이어 폭격기및 양키급라스SSBN잠수함사진은 극비에 속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蘇군사력 現況을 설명하는 와인버거美國防 캐스퍼·와인버거 美국방장관이 29일 소련의 군사력현황에관한 브리핑석상에서 니즈니탱크공장에관해 설명하고있다. 【워싱턴29日AP電送=聯合】

리비아、수단國境마을 爆擊

수단側 "中止않으면 對應조치" 경고

【카르툼29日AP=聯合】수단정부는 29일 리비아공군기들이 지난19일동안 수단·차드국경지역의 마을들을 폭격해왔다고 폭로하고 리비아가 민간인마을에대한 폭격행위를 중지하지않을경우 수단정부는 적절한 조치로 이에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수단정부는 이날 관영 수단통신에의해 보도된 발표문에서 이같이 경고하고 수단외무성은 29일 카르툼주재각국대사들을 소집, 이와같은리비아측의 공격사실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발표문은 리비아공군기들의 폭격으로 몇명의 주민이 희생됐는지는 밝히지않았다.

한편 수단과 방위동맹을맺고있는 이집트의 호스니·무바라크부통령은 이에앞서 28일 수단과 소말리아및 오만에 대한 어떠한 리비아의 군사공격에 대해서도 이집트정부는 단호하고도 결정적으로 이에 보복할것이라고 경고했다.

네팔中部에 暴雨 失踪者 4백여명

【카트만두(네팔)29日UPI=聯合】인구 조밀한 네팔중부지역에 28일 수십년래 최악의 폭우가 쏟아져 4백여명이 실종되었으며 이들은 모두 사망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네팔관영통신이 보도했다.

이통신은 여섯시간이상 내린 4백㎜의 이번 폭우로 수도 카트만두서쪽 2백50㎞떨어진 다우레강둑이 무너지고 논들이 침수되었다고전했다.

波탄광勞動者들 復歸

指導者석방후 즉각罷業끝내

【바르샤바30日AFP=聯合】연6일째 항의파업을 벌여오던폴란드 치지글로비체탄광노동자들은 당국이 29일밤 자신들의 지도자 타데우즈·아랜트를 석방하자 즉각 파업을 끝내고 정상업무로복귀했다.

자유노조의 실레시아지부지도자 아랜트의 석방은 오는10월2일 동정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던 실레시아지 산하 카토비체지역의 모든탄광노조원들에게도 진정효과를 발휘했다.

아랜트는 지난24일 치지글로비체탄광에서 관영노조지도자들을 임의축출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채 구류돼왔다.

아랜트가 체포됐을당시 치지글로비체탄광의 관영노조원중에서도 약2백명은 자유노조측으로 돌아선 것으로알려졌다.

이때 관영노조원들은 아랜트가 석방되지않을경우 자신들의 조직을 해체하겠다고당국에 경고함으로써 자유노조원들의 활동을 방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波勞組대표들 強硬태세완화

【그다니스크29日AP·AFP=聯合】폴란드노조대표들은 자유노조 제1차전국대회2단계회의 4일째인 29일 노동자自營權에 관한 집행부의 일방적인 對정부타협과 관련, 레흐·바웬사와 여타 간부진을 계속 규탄했으나 인내와 이해및단결을 호소한 바웬사의 설득에 따라 그기세를 누그러뜨린채 對집행부협조분위기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같은화해분위기가용, 당초 많은대의원들의 규탄대상이 되었던 自由勞組집행위원회의 작년도 제반활동이 대의원들의승인을 얻었다.

대의원들은 그러나 정부·勞組간의 타협의 산물인 노동자 자율경영법의 수락여부를 결정할 표결을 30일로 연기했다.

중앙위總會 소집 波공산당 政治局

【바르샤바29日AP=聯合】폴란드공산당 정치국은 29일 가능한한 빠른시일안에 黨중앙위총회를 소집키로 결정했다고 폴란드관영 PAP통신이 보도했다.

폴란드공산당은 이날 PAP통신을 통해 발표한 코뮈니케에서 앞으로소집될黨중앙위총회에서는 『黨의 이념활동에 관련된 제반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것이라고 밝혔다.

◇生日맞은 바웬사 폴란드自由勞組지도자 레흐·바웬사가 29일 그의 38회 생일을 맞아 지지자들로부터 공중에 들어올려져 열렬한 축하를 받고있는모습. 【그다니스크(폴란드)29日AP電送=聯合】

印機납치범 逮捕

파키스탄特攻隊 급습…승객無事

【라호르(파키스탄)30日AP=聯合】승객과 승무원 1백17명이 탄 인도항공소속보잉737 여객기를 공중납치, 파키스탄의 라호르에 강제착륙시킨 시크교 과격분자5명이 30일 파키스탄특공대에 체포됐으며 이시간까지남아있던 인질들도 모두 무사히풀려났다고 파키스탄당국이 밝혔다.

파키스탄관리들은 파키스탄군 특공대가 납치범들의 최후통첩 시한 약2시간전인 이날 정오경(한국시간 [illegible])여객기를 급습, 납치범들을 모두 체포했다고 전했다.

관리들은 또 납치범들을체포하는 과정에서 사상자가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日、核무기保有 바람직"

사꾸라다經團聯명예회장 主張

【東京29日=聯合】사꾸라다·다께시(櫻田武) 일본경제단체연합회 명예회장은 29일자민당의 다나까派집회에서 소련의 침략을막기위해 일본이 核무기를 보유해야하며 각종 유사입법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지난80년에무기수출3원칙의 수정을 요구한 나가노·시게오(永野重雄) 일본상공회의소 회장및 징병재검토를 주장한 휴우가·호오사이(日向方齊) 관서경제연합회 회장의발언과함께 일본재계의 밑바닥에 흐르고있는 방위력강화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주목된다.

사꾸라다회장은 『일본이 2차대전당시 원자탄을 갖고있었다면 미국도 히로시마(廣島)에 원폭을 투하하지는못했을 것』이라면서 『소련이 몇년후 미국보다 군사적으로 우위에 섰을때 무슨일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日本이 核무기를 갖는게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상관모욕과 도망죄등을 규정한 군형법은 물론 사유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제한하는것같은 유사입법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레이거노믹스時代 전개

——오늘82會計年度 시작과함께

【워싱턴=聯合】레이건경제철학, 이른바 레이거노믹스시대가 막을 올리게된다. 오는 10월1일 美82회계연도가 시작됨에따라 미국경제회복을 위한 레이건 대통령의 청사진이 본격적으로 햇빛을 보게 될것이다.

經濟개혁青寫眞첫선

豫算삭감·稅收증대에 엇갈린 反應

議會서의 激突불가피

레이건 대통령은 백악관집무실 탁상캘린더를 10월로넘기는 순간부터 美경제의 어두운 측면을 모두 카터前행정부의 유산으로 돌려온 지금까지의 미온적입장에서 벗어나야한다.

레이건 대통령이 그의 경제회복책과 관련해 직면하게 될 최초의 난관은 그의 경제회복청사진에 대한 지금까지의 이론적 뒷받침이 10월1일을 기해 그한계성을 상실하게된다는 점이다.

레이건 대통령은 불과 엊마전까지만해도 美경기침체에 관한 빗발치는 비난의 화살을 자신의 의욕적인 경기회복책이 아직 실행에 옮겨지지 않고있다는 변명을 내세움으로써 회피할수 있었다.

그는 최근 공사석에서 행정부의 경제실책에 관한 공격을 받을때마다 『10월에 가서 보자』는 식으로 자신만만한 자세를 보여 이들의 입을 틀어막고는 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최근 자신이 개혁정책의 早期달성에 관해서는 약속한바 없다고거듭 지적하면서 이계획이 성격상 즉각적인 성과달성을 기대할수 없는 것인만큼 섣불한 기대는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고질적인高金利, 금융가 및 주택경기침체, 그리고 1조달러라는 엄청난재정적자등 어려운 문제가 겹친 가운데 82회계연도를 맞게되었다.

의회는 의회대로 82회계연도 예산에서 1백30억달러를 삭감하고 稅收를 30억달러 증대시키려는 레이건의 계획을 오랫동안 묶고 늦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레이건 대통령은 아직 美國국민의 인기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 이번 개혁안과 관련, 의회내 지지세력이 분열상을 보임에 따라 일종의 정치적 시련을 겪고있다.

특히 행정부개혁안에 의해 피해를 입게 될 유권자들을 의식하면서도 이개혁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의 경우 이같은 갈등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일부에서는 레이건의 사회보장계획 확대의 실현연기가 결코 의회승인을 받지못할것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레이건 대통령은 엄청난규모의 국방비에서는 단지 10억달러를 삭감한 반면 사회보장부문예산은 무려 26억달러나 축소시키기로 결정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자신의이같은 강경입장에대해 賛反의 명백한 입장을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레이건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의수가 반대론자보다 많으나 앞으로 賛反의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는 두고볼 일이다.

世界의社說

金利引下희망 霧散여파

●가디언 (英·29日字)

주가가 지난1930년대의 경우와 같이 밑바닥까지 폭락하리라고 예상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주가가 급격한 회복세를 보일것으로 기대할 이유 또한 거의 없다.

지난74년 영국에서의 급격한 주가폭락과 비교할때 이번 사태는 영국기업들이 수익면에서 다시 곤경을 맞기 시작하고 있음을 의미하는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주가폭락의 진정한 이유는 금리인하의 희망이 무산된것이 분명해진 때문일 것이다.

미국의 고금리추세는 당분간 그대로 지속될것으로 보이는데 이경우 대처정부가 이미 예고했듯 영국의 금리가 떨어질가능성은 당분간 희박하다.

나미비아問題 충실必要

●뉴욕·타임즈 (美·28日字)

美國의 對나미비아 정책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태도 그리고 이에대한 남부 아프리카 흑인들의 반응이 모두 긍정적인것으로 나타났다면 미국의 외교는 어떻게 될까.

나미비아에 독립을 부여하기위한 새로운 계획이 효과를 낸다면 전쟁은 종식되고 다수종족에 의한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이웃 앙골라도 자기영토로부터 쿠바와 소련군을 내보내겠다는약속을 이행할수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경우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 폭력이 확대되고 레이건행정부가 우려하듯 소련권의 영향력이 증대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

各國긴축財政촉구

레이건、IMF총회 開幕연설

【워싱턴29日AP·UPI=聯合】레이건美 대통령은 29일 美행정부의 예산삭감및 조세감면계획을 옹호하면서 세계각국정부들에 대해 그와같이 단호한 긴축재정정책을 펴나갈 것을 호소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에서 개막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의 제36차 합동연례총회개막연설을 통해 그와같이 역설하고 만일 한 국가가 금융과 경제를 질서있게 관리하지 못한다면 외원이 제공된다하더라도 아무런 경제발전을 기대할수 없을것이라고 말했다.

전세계1백41개국 대표 1만3천명이 참가한가운데 쉐라톤·워싱턴호텔에서 4일간 열리는 이번 IMF·IBRD연차총회는 세계경제성장에 관한 전망이 극히 불투명한 가운데개막, 선진국진영의 국제개발지원정책을 둘러싼 공업국과 개발도상국들간의 열띤 설전장이 될것으로 전망되고있다.

24개 개발도상국 대표들은 지난주말『선진공업국들이 국제개발협력정책을 추구하는데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개탄한바있다.

外信안테나

◆더·타임즈紙 續刊키로

영국 신문노조지도자들은 29일밤 인쇄공 파업으로 신문이 발간되지 않고있는 더·타임즈紙의 속간을위해 사주측과 잠정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폐간위기에 처했던 더·타임즈紙와 자매지 선데이·타임즈가 다시 10월1일부터 신문을 발행할수있게됐다.

英노조회의(TUC)렌·머리사무총장은 잠정협정이 체결됐음을 발표하고 인쇄공들이 30일부터 직장에 돌아가 10월1일자 신문을 발간하기위한 준비에 들어갈것이라고 말했다. 【런던=UPI】

海外토픽

토리노聖衣는 진짜

★美두研究家 곧 결과發刊

오랫동안 신학자들 사이에 논란거리가 되어온『토리노의聖衣』는 실제로 예수의 수의였다는 강력한 시사가대두되고 있다.

3년전부터 전설적인 이성의의 사실여부에 의구심을갖고 증거를 수집해온 미국의 두 연구가들은 내달 15일 미시간州 앤·아버시의 서번트출판사에 의해 간행될『성의에 대한 판결』이라는 책에서 토리노의 성의가 예수의 수의일 가능성이 많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 연구가들은 이책에서 성의가 그리스도의 부활에대한 과학적증거를 제시해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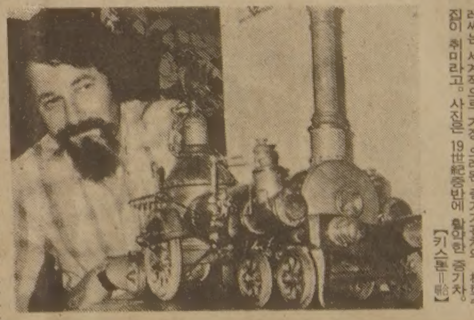
이탈리아의 토리노에 수세기동안 보관돼온 길이 4·2m 폭 1·2m의 이 세마포 성의는 3년전 과학자들에 의해 각종 정밀검사를 받았다.

스티븐슨과 하버마스씨는 각종 개연성들을 통계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聖衣에 싸였던 사람이 실제로 예수였을 가능성은 8천3백만분의1이나 예수이외의 다른 사람이 이 성의에 싸였을 가능성은 전혀 없는것으로 밝혀졌다』고 결론짓고 있다. 【뉴욕=AP】

로빈슨加上院의원 국민黨 예방 歡談

트뤼도캐나다수상의 訪韓을 수행한 케네드·로빈슨上院議員(자유당)은 30일상오 국민당을 방문, 申喆均사무총장, 林德圭부대변인등과 韓—캐나다정당간의 교류,정당외교를 통한 韓—캐나다우호증진등에 관해 논의했다.

申총장은 이날 로빈슨의원에게 韓—캐나다 정당간의청년 관계자교류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의했다.



◇시골驛長의 취미 프랑스의 한 작은마을 모리다뉴驛長인 세레씨는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증기기관차의 模型수집이 취미라고. 사진은 19世紀중반에 활약한 증기차. 【키스톤=聯合】

메아리

「武人의 길」엔 언제나 세가지 德目이 따른다. 세속오계를 가르친 화랑도가 그렇고 서양의 기사도도 마찬가지다. 武勇, 忠義, 禮讓으로 무장한것이 뛰어난 武人像이다. 전쟁은 어느때고 총력전이다. 그렇기에 勇·義·禮가 합해졌을때 승리는 약속된다.

우리 역사는 숱한 외침을 받아 國難으로 얼룩졌었다. 그때마다 훌륭한 군인이 등장했고 이름 없는 의병들이 나서서 나라를 지켜왔다. 세德目을 고루 갖춘 명장들이 많았지만 그중 고려의 무장 金允侯를 높이꼽을수 있겠다. 고려사열전에 의하면 그는 원래 불가의 승려였다. 1232년 몽고군 재침때 분연히 활을들고處仁城(현龍仁부근)을 지켰다. 여기서 적장 撒禮塔을 사살하고 몽고군을 철수케 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그는 나라에서 내리는 벼슬을 고사하고 충주산성의 防護別監의 직을 맡았다. 중국대륙과 유럽까지 정복한 元(몽고)은 세계의 패자로 고려에 4차침공을 감행했다. 조정은 다시 강화로 쫓기고 元軍은 곳곳을 휩쓸었다. 金允侯가 지키던 충주산성은 70여일의 피로를

護國문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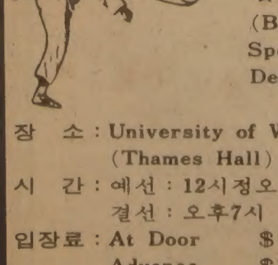
든 공방전끝에 최후를 맞을 위기에 몰어졌다. 그는 軍民을 모아 놓고 최후의 일전을 각오했다. 「죽을 힘을 다해 지키자. 貴賤을 안가리고 싸우자」며 노비문서를 불태웠다. 그리고 官物을 고루 나누어주고 끝내 적군을 퇴각시켰다. 勇·義·禮로 승화한 무인의 모습을 우리는 뚜렷이 볼수있는 것이다.

「막강」으로 성장한 국군이오는로 33돌을 맞았다. 국민과 함께 자란 그장년국군의 무용과 충의가 음악과춤으로 표현되었다.

어젯밤 서울세종문화회관에서 화려하게 펼쳐진 「호국예술제」는 우리의 전통속에 살아 전해오는 호국의 정신을 국민에게 보여주었다. 군인스스로의 기개가 새겨진 육군진중창작품 전시회도 열렸다. 그것은 조국을 지키려는 민중의 의지와 합치하는 것이었다.

또 신뢰받는 국군의모습을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육군은어린이를각부대에 초청, 글짓기·그림그리기 잔치를 펼친다. 전국의 어린이들은 나라를 지키는 「국군의 현장」을보고 느끼는것이 많을줄 안다. 「총력안보의 뜻」이 글과 노래와 그림으로 표현된다는것은 바로 우리 국군이 국민의 군대임을 말해주는것이다.

제5회 CAN-AM
태권도 선수권 대회
Sat, October 24,1981



★Full Contact★
(Black Belt only)
Spectacular
Demonstrations

장 소 : University of Western Ont.
(Thames Hall)
시 간 : 예선 : 12시정오
결선 : 오후7시
입장료 : At Door $6.00
Advance $5.00
12세미만 $3.00
예매처 : Hong's Tae Kwon-Do Inst.
U. C. C. Box Office, U. W. O

PRESENTED BY
HONG'S TAE KWON-DO INST.
LONDON, ONTARIO,
(519)433-3626

81년도 제4회
대사배 한인친선 볼링대회

하기와 같이 한인친선 볼링대회를 개최코져 하오니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 목 : 부부전 : 혼합식(참가비 $7) 1, 2, 3등 시상
개인전 : 남 녀(참가비 $7) 남3, 여3시상
단체전 : 우승팀에게 대사배 수여
(참가비 $20, 1, 2, 3등 시상
남녀 하이 싱글 시상
일 시 : 1981년11월7일(오후12시30분)
장 소 : PLAY TIME(33 SAMOR DR.)
연락처 : 769-5956 하 주 용
759-8228 장 인태 백

주 최 : 토론토 한인회
후 원 : 대한체육회캐나다지부 볼링협회

재 카나다 한인친선
탁구대회

장 소 : 994 Carlaw Ave.(West Wood JR. High School)
(CARLAW AVE. & WEST WOOD AVE.)
시 일 : 1981년10월10일(토) 오전9 : 30
참가자격 : 토론토거주 교민
경기종목및 참가비 :
단체전(4단1복) $20.00
남녀개인전 $3.00
개인복식 $5.00
시 상 : 단체전 : 우승, 준우승
개인남녀 : 1, 2, 3등
개인복식 : 우승, 준우승, 3등
연락처 : 회장 정영모(922-9435)
총무 김동천(243-0522)

주 최 : 재 카나다 한인탁구협회
후 원 : 미도파, 한국일보·코리안저널·대한체육회캐나다지부·
키스카메라·거북이선물센타
박·세븐 무역선물센터

재 카나다 한인
탁구협회 회장
정 영 모

名品되찾은 羅州배

한때 新水등 改良品種에 밀려

朝鮮朝 궁중진상품…배의 代名詞로

樹種갱신해 맛 훨씬 向上시켜

◇전국최대의 배주산단지 羅州배재배 농민들이 수종을바꾼 나무에서 품질이좋은 배를수확하고 있다。【錦城=鄭鉿】

羅州배가 한때 개량품종에 밀려 빛을 잃었으나 최근들어 명산물로서 그 명성을 되찾고 있다.

羅州배는 朝鮮조시대엔 궁중의 진상품으로, 그리고 지난 10년전까지 전국시장에서 최상품의 과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왔던 이곳 유일의 토산품.

그러나 과일중의 으뜸으로 손꼽혀 왔던 羅州배가 78년도부터 전국 각지의과수재배단지에서 생산된 新水·豊水등 개량품종에 밀려 시장경쟁력에서 뒤지게 됐고 수요도 매년 크게 줄어 인기가 날로 퇴색해 갔던 것.

이에따라 이곳1천여 배 재농가와 羅州군당국은 지난 78년도 배고장으로서의 명예찾기 운동을 전개, 우선 대대적인 수종갱신을 통해 상품의질을높이고 농가소득배가에 힘을 모았다。

주산단지내 6백ha에 이르는 재배면적가운데 수령이 30년이상된 晩相吉, 長十郞 今村秋등 재래종 노목을 新水, 豊水, 幸水등 개량품종으로 접목 또는 수종을 바꿨다. 또 지금까지 羅州배의 특이한 맛을 유지해온 晩相吉과 今村秋의 맛을 살린 새로운 맛의 배품종개발을 서둘러 앞으로 2~3년후면 시장에 첫선을 보이게 될것이라고。

이곳 배 재배농가들이 다투어 수종을바꾸고 접목등으로 새품질의 배를생산하고 있는것은 전체과목 12만그루중 10%인 1만2천여그루가 수령이 30년을넘어 매년 수확량이 크게떨어지고있는데다 질또한 저하돼 속칭 이마무라로불리던 옛羅州배의 맛을 내지못하고 있기때문。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羅州배라고하면 마치배의 대명사가 될 정도로 전국에 이름이 알려졌지요。 그러나 나무가 수령이 더할수록 이곳 배맛이 떨어지고 수확량도 격감되면서 소비자들로부터 한때 외면을 당했었읍니다…』 30년동안 과수원 4천5백평(2백50주)을 경작해온 崔東現씨(35·錦城市松月洞24)는 이같이 말하고 그동안 군당국의 협조로 1백20그루에 대한 수종갱신을 끝내 수확량도 늘고 품질면에서도 맛과 빛깔이 뛰어나 전국 어느배보다도 높은 가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제 재배농가들은 소득증대를위해 종전의 시장출하방법도 개선했다。

57년전 첫 과물조합을조직, 연간 5천상자씩을 滿洲와 臺灣등지에 수출했던 조합원들이 이제 원예협동조합 공판장을 통한 계통출하로 적정가격을 보장받고있다。【錦城=鄭鉿】

안데스山脈·油田 공동개발

콜롬비아、資源協力委서 正式제의

◇공동성명에 서명하는 崔東奎동자부차관(左)과 카를로서·올로아 콜롬비아鑛山動力省차관(右)。

石炭·우라늄등 무진장

한국建設業體 진출도 요청

정부는 해외자원의 개발수입확대방침에 따라 콜롬비아를 거점으로해서 안데스산맥을따라 부존자원이 풍부한 南美大陸에 적극 진출할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하고있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은 미국 호주 캐나다 인도네시아 페루、스와질랜드 가봉 파라과이 태국 필리핀등 10개국에서 油田개발을 비롯해서 유연탄 무연탄 우라늄、朱錫 白시멘트 銅등 25개업종에 달하고있는데, 콜롬비아를 거점으로 南美에 본격진출하게되면 에너지 供給源의 다원화로 自主供給率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것으로 전망하고있다。

동자부가 南美進出에 적극성을 보이고있는것은 페루가 油田의 합작개발을 요청해온데 이어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열린 제2차韓·콜롬비아 자원협력위원회에서 콜롬비아측이 油田개발과 안데스산맥을 따라 풍부하게 매장되어있는 석탄、우라늄、동광석、인광석등 광물자원의 공동개발을 정식으로 요청해 왔기 때문이다。

콜롬비아측은 경제개발 계획에서 에너지및 광물개발에 중점을 두고,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고 밝히고, 한국이 合作進出하게되면 계약조건등에 최대한 호혜적으로 해줄것과 항만, 철도등 사회간접 시설확충에 건설업체의 진출도 요청해왔다는 것이다。

韓·콜롬비아兩國은 자원개발에 합작투자방안을 마련, 내년 2월에 열리는 제3차 자원협력위원회에서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매장량이 1백60억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있는 세레욘 炭田을 포함, 쵸코, 타도및 부에노스아이레스탄광을 공동개발하기위한 韓·콜롬비아 조사반을 年內에 콜롬비아에 파견하고 칼리포니아와 자팩토카 우라늄광, 모코아및 페스카銅광산에 대한 탐사반도 적절한 시기에 파견키로 했다。

油田개발의 경우 콜롬비아 정부는 89년까지 71만6천ha의 석유생산가능지역을 대상으로 물리탐사와 7백12개孔을 뚫을 계획인데 양국이 공동개발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동자부는 콜롬비아가 예상외로 이번회의에서자원공동개발에 구체적인 프로젝트를제시하면서 적극성을 보여 자원협력을 가일층 증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는동시에 콜롬비아를 부존자원이 풍부한 南美진출의 교두보로 삼을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징어채낚기規制 대폭완화

水產廳 漁資源보호·財産피해 막으려

【江陵=鄭鉿】 수산청은 그동안 근해의 어자원보호를위해 억제해왔던 오징어채낚기어업의 신규허가를 오는10월1일부터 대폭 완화키로했다。

이에따라 지난6월30일 이전에 오징어잡이어선으로 새로 건조했거나 개조한 어선과 그동안 각종 어업허가를 받을수 없었던 어선들이 채낚기어업으로 전업신고한 어선및 계획조선사업자로 수협중앙회에 사업신청이 접수된 사업자, 지난7월10일 이전에 오징어잡이어선으로 개조하기위해 발주허가신청을 냈다가 반려된 어선등은 앞으로 오징어채낚기어업허가를 받을수 있게됐다。

수산청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1월1일부터 근해오징어채낚기어업허가를 억제한 결과 그동안 배를 건조했거나 오징어잡이어선으로 전업하려던 어선들이 묶여 재산상피해를 보고있기 때문이다。

오징어채낚기어선은 대부분 10톤미만의 소형선박으로 연안에서 오징어잡이를 하고 대형어선들은 大和堆어장에 출어, 자동조상기로 오징어잡이를 하고 있는데 현재동해안연안에서 채낚기어선 5백40여척이 오징어잡이를 하고있다。

繊維類등 輕工業제품 好調

28일 현재 1百50億弗수출

繊維類를 비롯,輕工業제품의 수출호조에 힘입어 지난 28일자로 수출이 1백50억달러를 넘어섰다。

30일 상공부집계에 따르면 지난28일현재의 수출실적은 1백50억3천8백만달러로 1백50억달러선을 넘어섰으며 79년의 수출실적(1백50억5천4백만달러)을 육박했으며 지난해 11월21일에 달성한 실적(1백50억3천4백만달러)을 53일이나 앞당겨 이룩했다。

이에따라 올들어 月평균수출실적은 16억5천달러에 이르러 80년의 13억달러보다크게 늘어났는데 이는 上半期중의 繊維類수출호조에 크게 힘입었기 때문인것으로 풀이되고있다。

8월 國內건설受注 전달보다 11%줄어

경제기획원조사에 따르면 국내대규모1백70개 건설업체의 8월중 국내건설工事受注額은 1천9백34억원으로 전달보다 10.9%가 줄었다。 그러나 작년같은달보다는 50%가 늘어난 수준인데 이는 공공건설、금융·보험사무실 發注등 민간부문 發注가 夏閑期의 영향으로 전달보다 37.6%나 줄어든데 따라 영향을 받았다。

한편 국내 1백개주요 건설 메이커의 8월중 受注額은 51.1%가 늘었다。 이는 지난달 격감했던 외선박受注가 호전된데 따른것인데다 민간기업부문의 發注는 전달보다 21.9%、작년보다 21.9%가 늘어났으나 여전히 완만한 상승세에 머물러있는것으로 나타났다。

국내特急우편 신설

당일 약속시간配達

체신부는 30일 우편물을당일이나 약속된 시간에 배달해주는 국내특급 우편제도를신설, 오는 5일부터 실시한다。

이 국내 특급우편제는 전국 1일생활권화되고 각종산업정보교환및 기업체 상호간 또는 본·지사간에 급증하고있는 시한성우편수요를 충족하기위한것으로 상오에 접수된 특급우편물은 당일하오에, 하오에 접수된것은 다음날까지, 또는 이용자가 약속한시간에 정확히 배달해주는것이다。

이용방법은 정기이용자와 수시 이용자로 구분되며 취급대상물은 신간서적, 각종업무서류, 도면, 도서상품견본품이고 기타물품은 10kg이내에 한한다。

꽃도매상
437 CARLAW ST.
☎ : 465-8167

韓·아세안 經協회담 잇달아 개최

協力기반 定着작업

정부는 오는 6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韓·아세안經濟界지도자회의를 기점으로韓·필리핀 民間경제협력위원회(10월)、韓·인도네시아通商장관회의(11월)、韓·싱가포르民間경제위원회(11월)를 잇달아 개최, 지난 6월 全斗煥대통령의 아세안巡訪에 따른 韓·아세안諸國간의 경제적협력과 資源교류를 위한 외교적 보완작업을 서두를 방침이다。

全대통령의 아세안 巡訪기간중 개별국가들과 합의한내용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극대화하기 위해 順次的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韓·아세안간의 經協이외에 南北韓對話再開와 유엔同時가입을 위한 정부의 입장및 배경, 이에 대한 아세안側의적극적인 지지문제가 아울러검토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二重課稅방지협약을 비롯한 각종협정체결과 각국정부와 민간사이의 접촉및 상호교류증진도 함께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韓·西獨政策협의회 20일 본서開催합의

정부는 지난 78년 新設키로 합의한후 3년동안 연기돼온 西獨정부와의 政策協議會를 오는 20일부터 3일간 西獨본에서 개최키로 西獨측과 합의했으며 이에따른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韓·西獨정책협의회에서는 양국간의 經協증대를 위한 공동노력과 특히 10·26사태등 일련의 국내사태로 한때 소원했던 양국간의 結束문제등이 주요 의제로 포함될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는 金東輝 외무차관보와 鄭慶謨歐洲局長이, 西獨측에서는 폰·슈타덴 외무성事務次官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韓·西獨 양국은 또 政策協議가 열리는동안 文化공동위원회도개최하며 오는29일과 30일에는 投資·通商을 위한 경제실무자회의도 아울러 열어 정…

정부는 이와함께 지난2월 韓美頂上회담에서 再開키로 합의한 韓美政策協議會를 오는11월중순 워싱턴에서 개최키로 방침을 굳히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議題와 일정을 美側과 협의중에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地方短信

각종비품을 기증

任成宰충북지사와 鎭川청년회의소원 각계인사들은 지난 27일 차고와 사무실이 신축된 鎭川의용소방대에 각종비품을 기증했다。 기증품은 의자60개 책상 5조 캐비넷1개 시계2개등 모두 70여점에 달했다。【鎭川】

江原산송이 大豊作

145톤으로 目標2배…27億소득

【春川=鄭鉿】 강원도내산간벽지 주민들의 유일한 농외소득원인 산송이가 올해 대풍작을 이루어 올 생산목표량 70톤의 2배가 넘는 1백44.5톤을 생산, 27억6천2백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30일 산림조합강원도지부에 따르면 올 산송이 생산목표를 70톤으로잡고 지난 8월하순부터 자연생 산송이채취 독려에 나섰는데 예상외로 온도와 습도가 모두 알맞게 유지돼 대풍작을 이루어 襄陽을 비롯한 溟州·高城·三陟·旌善·楊口등 13개군내 6천여가구에서 당초 목표의 2배가 넘는 1백44.5톤을 채취, 1가구당 평균 40여만원의 소득을 올렸다는것。

각 군별 채취실적은 襄陽郡이 29.9톤으로 가장 많고 ▲溟州郡 25.4톤 ▲高城郡 19.3톤 ▲三陟郡 18.7톤 ▲楊口郡 14.5톤 ▲旌善郡 12.5톤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림조합강원도지부는 지난8월25일부터 도내 각군산림조합을 통해 산송이 1kg당 2만~4만5천원씩 사들여 전량 日本으로 수출했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나의이력서 윤치영 (59)

〈國字·尹致暎〉

感激의 制憲國會

48년 5월 開院…彼我없이 歡喜一色

2百議員중 맨먼저 投票…눈물 글성

5·10총선거는 우리국민이 얼마나 독립과 통일을 열망하였는가를 여실히 반영해주었다。 95·5%란투표율만 봐도 그렇다。 누가 동원을 했겠는가。 온국민이 자발적으로 걸어나온 民主의 行列이었다。 5·10총선거는 또 우리의 정치역량을 세계에 과시한 民主의 祭典이요 민주주의시험의 첫 關門이었다。

總選20일후인 48년5월31일 중앙청 홀에서 문을연 제헌국회의 분위기는 감격스럽고 엄숙했다。 海內外의 애국지사들、臨政의 요인들 독립군의 猛將들이 함께자리했고 온갖 직업과 사연이 다른 사람들이저마다 감격을 금치못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이들이 많았다。 서로들 치고받고 싸우고 誹謗하는 政敵이 된 사람들도 그때는 너나없이 뜨거운 피가 통하는 동지처럼 보였다。

국회가 開院하던 그날, 국민들은 가두에 몰려나와 축복을 보냈다。 그날따라 北岳의 하늘은 더 높아만 보였다。

제헌국회에선 우선 임시의장에 최고령자인 李承晩박사를 뽑은뒤 국회의장에 李박사、부의장에 申翼熙、金東元 양씨를 선출했다。 개원10일후였다。

투표를 할 때 전국의 선거구1番인 나는 2백명의 국회의원중 제일먼저 呼名됐다。 그다음 李允榮(鍾路甲區)、張勉(鍾路乙區)、李承晩(東大門區)順으로 호명됐다。 『尹致暎!』하는 호명을 받고 걸어나갈때 눈물이 핑 돌았다。 『독립된 내나라에서 투표를 하는구나』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온몸을 감쌌다。

李박사에게 투표하는 내손은 떨리기까지 했다。 해외에서 다년간 받들고 일하던 李박사에게 제일 먼저 표를 던질 때의 감회는 無限의 榮光 그것이었다。 제헌국회는 建國의 大業을 맡았기때문에 한마음 한뜻이되어 분투하게 움직였다。 초대 국회의장, 부의장선출에 앞서 국회에선 임시準則을 결의하고 헌법을 비롯 정부조직법, 국회법、국회규칙기초위원을 선출해 본격적인 建國의 기초작업에 들어갔다。

국회에선 또 북한동포에게 보내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했다。 제헌국회의 구성의 원칙으로 선거를 못한 北韓측의석 1백석을 남겨두도록 했다。 국회는 7월1일 國號를 대한민국으로 결정했다。 당시 國號결정에는 以心傳心으로 대한민국으로 통해있어서 異論이 거의 없었다。 국회는 이어 대통령중심제의 헌법안을 통과시킨뒤 헌법을 공포했다。

그당시 헌법안 기초과정에서 韓國民主黨측의 압김에 의해 內閣책임제로 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다。 李박사는 이를 경계했다。 건국초기에 國事를 맡은 책임자가 수시로 바뀌게되면 혼란이 일어난다는게 그의 절대적인 생각이었다。 李박사는 나에게 이점을유의해두라고 일렀다。 그리고는 그는헌법기초위원장인 徐相日의원을 비롯 金俊淵、許政 등을 불러 대통령중심제로해야된다고 설득했다。 헌법안은기초과정에서 내각책임제로 되어있었으나 결국 대통령중심제로 되었다。

사실이지 그때 우리의 헌법이란 너무나 지나치게 집보된 감이 있었다。 우리체제에 맞지않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는게 나의 생각이다。 그뒤 제헌국회에서 헌법은 改憲과 파동을 한바탕 치르게된다。

제헌국회는 헌법을 공포한지 3일뒤인 그해 7월20일 초대 대통령에 李承晩、부통령에 李始榮을 선출했다。 득표수는 李承晩박사가 투표수 1백96중 1백80표를 얻어 당선됐다。 그래서 공석이된 국회의장엔 申翼熙씨가 뽑혔다。

◇李承晩 국회의장이 48년 7월12일 憲法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公布를위해 署名하고있다。 右는 金東弘국회사무총장。

당시 제헌의원들의 登院모습은 지금생각하면 가관이었다。 두루마기에 도포자락 날리는 사람、 짧아 안맞는 헌양복을 걸친 사람등 복장도 각색이고 텁수룩한 村老의 행색등 모습도 각양이었다。

당시 국회의원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은 트럭에 포장을 치고 양쪽의 나무의자에 앉는 군용트럭같은 것이었다。 명색이 출퇴근 버스였는데 그나마 경성전기회사가 회사한것이다。 이 버스는 출퇴근때만 東大門과 麻浦 龍山등 5개방면을 다녔는데 맞춰 타기가 힘들어 상당수 의원들은 전차등을 타고 인근에서 내려한참을 걸어서 등원했다。

승용차를 가진의원은 다섯손가락을 꼽을 정도였으니 오죽했을까。 의원들의 차림이며 행색이며 지금같으면 문전에서 쫓겨나기십상이었다。 그러나 建國을위한 뜨거운 정성은 하늘을 찔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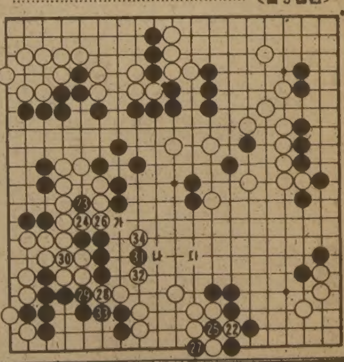
난 제헌국회에서 외무국방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당시 金院委員長엔 독립군의 巨將 池靑天、法制司法위원장엔 2·8독립선언의 旗手 白寬洙、내무치안위원장엔 申性模、재정경제위원장엔 金度演등이 선출돼 함께 議政을 논했다。

이나라 建國史에 부푼 꿈을 안고 출범한 제헌국회는 2년뒤 막을 내린 직후 6·25의 비극을 당하면서 제헌의원들도 숱한 受難을 당했다。 6·25당시 白寬洙、申性模등 51명의 제헌의원이 拉致되고 10명이 피살당했으니 이 무슨 참담한 운명의 終幕인가。 그나마 이젠 48명만이 생존했다니 세월의 덧없는 감회가 가이없다고 할까。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4局 第7譜 122—134 (각5시간, 덤5집반)

白(4段) 鄭 壽 鉉〈1敗〉
黑(6段) 徐 能 旭〈1敗〉



黑、패쏨에서 失策

上中央의 白2점을 완전히 잡아두는데 만족하지 않고 하변白에 선제공격을가한 徐6단은 물론 패를 각오하고, 이때에 승산이 충분했던 모양이다. 그러나 白22로 패를 따냈을때 黑23이 경솔한 패쏨이었다。

왜냐하면 白24로받고 黑25로 패를 되따냈을때 鄭4단은 白26으로 黑의 패감을 해소해버렸기 때문이다。 白26을 두면서 鄭4단은 『여기를 또한번 패감으로 이용당할순 없다』고 억울한 투로 말했다。 그러나 실상은 패를 기는게 白26자체가 패감으로 변했으니 오히려 역을 찌른 셈이다。

국후검토에서도 이黑23을 失策으로 강조하고 있었다。 『黑23은 보통대로 白26자리부터 두어야 했다』는 것이다。

徐6단은 물론 黑23으로부터 패를 써서 다음 白26자리마저 패감으로 이용할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되고보니 헛다리를 짚은 셈이다。 하지만 이제와서는 오기가 앞섰는지、 우선黑27로패를 해소하고 白「간」등의 변화는 뒷날로 미뤄버렸다。

좀더 침착했더라면 그제라도 黑27로 순순히 「간」자리를 받아주고 하변패를 계속했어야 되었는데 역시 젊은혈기가 그걸 허락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이리하여 白은 절호의 반격기회를 얻기나한듯이 白28로 차단、「간」의 곳을 노리면서 과감한 반격을 개시했다。

白34로는 「나」에 젖혀 黑34때 白「다」로 수습의 길을 모색해도 무난할것 같지만 굳이 白34에 껴붙여 혼전을 피한것이다。 黑31까지의 4점이 우선 움쇄한 꼴인데 과연 어떤 수단으로 수습할것인지。【一凡】

비즈네스는 전화가 바빠야 합니다. **한국일보 광고**는 귀하의 전화를 바쁘게 해드립니다.

QUALITY AD. = QUALITY. COMPANY

한국일보 ● THE KOREA TIMES

533 2361~4 **광고부일동** : 송광호, 최성조, 곽영신

블론디 딘·영 作 (本社特約·連載漫畵)

"데이지야, 집으로가! 출근하는 길이란 말이야!"
"이녀석을 집에데려다 줄때까지 버스를 좀 기다리게 할수 없을까요?"
"안돼요!!"
"자, 어떡 하시겠소!"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조규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日船 또 領海침범 1隻잡고 2隻도주

【釜山=聯】지난20일 전남완도근해에서 불법어로작업을한 일본어선이 적발돼 벌금을 물고 풀려난데이어 30일 부산연안 전관수역에서 3척의 일본어선이 불법조업을 하다 1척은 잡히고 2척은 달아났다.

해경 부산지구대는 30일 상오 8시25분께 부산태종대 동방 11.2마일 해상(북위34도54분15초 동경129도20분)에서 불법조업중인 일본어선 3척을 발견 추격끝에 나가사끼선적의 삼치채낚기어선 하마요시마루(4.88톤)를 붙잡아 선장 야마시다·아스아끼(27)를 붙잡았으나 나머지 2척은 놓쳤다.

農村 國校生이 줄어든다

洪城·禮山·青陽등 離農·家族계획으로

10年前보다 40.7%줄어

洪城서만 72교실남아…學級당 40여명 (青陽)

【洪城=聯】충남洪城·禮山·青陽등 서부지역 국민학교의 콩나물교실과는 대조적으로 10년전에비해 아동수가 최고 40.7%까지 줄어들어 남아도는 교실이 매년 늘어나고있다.

29일 3개군 교육청에 따르면 洪城郡은 지난71년 33개 국민학교 아동수가 3만2백90명이었으나 현재는 2만7백63명으로 31.5%인 9천5백27명이 줄어들었고 禮山郡은 39개교 3만3천1백28명이던 것이 2만2천6백3명으로 31.7%인 1만5백25명이 감소했으며 青陽郡은 28개교 2만3백15명에서 40.7%인 8천2백27명이 줄어들어 1만2천88명이 재학하고 있다.

이때문에 이지역은 10년전만해도 1학급당 평균70~80명씩 수업을 받았으나 요즘은 40~45명씩 반편성을 하고도 교실이 남아돌고 있는 실정이다.

洪城郡관내 33개교에 5백33개 교실이 있으나 이중 72개교실이 남아돌고 있다.

이같이 농촌지방 국민학교의 아동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것은 이농현상과 함께 농촌지역에 가족계획이 정착해가고 있기때문인것으로 분석되고있다.

都市 콩나물교실과 대조적

한편 洪城·禮山·青陽등 3개군에는 1백개 국민학교에 5만5천4백54명이 재학, 10년동안에 33.7%인 2만8천2백89명이 줄어들었다.

햅쌀出荷量 늘어나 가마당 6만3천원

【原州=聯】대풍으로 햅쌀 출하량이 급격히 늘자 강원도 原州지방의 쌀값이 지난 추석때보다 가마당 1만여원이 떨어진 6만3천원에 거래되고있다.

29일 原州시중 양곡소매상들에 따르면 지난 추석때까지만해도 햅쌀1가마(80kg)에 7만3천원씩 거래되던것이 최근들어 6만3천원까지 떨어졌으며 앞으로 추수가끝나면 출하량이 더욱 늘게돼 쌀값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한편 산지농민들은 햅쌀이 가마당 6만3천원에 거래되고 있으나 미곡상으로부터는 5만8천원밖에 받지못해 비료대 농약 인건비등을 제하고나면 타산이 맞지않는다고 울상을 짓고있다.

1가족 1家訓운동 千5百가구에 보급

【堤川=聯】대가족제도에서 무너져가는 윤리관을 확립하고 핵가족으로 발전하면서 건전한 생활기풍을 조성하기 위해 1가족 1가훈갖기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있다.

忠北堤川市花山2洞 1가훈갖기 추진위원회(회장 李鍾鎭·51)는 지난 초순 堤川지방 유명인사들로부터 가훈 70점을 모아 지난 26일 李承雨 堤川시장등으로 가훈심사위원회를 구성, 엄격한 심사를 거쳐 5점의 값진 가훈을 선정, 관내 1천5백52가구에 배부, 정신혁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堤川市花山2洞 1가구 1가훈갖기 추진위원회가 발족하게된 동기는 花山2洞이 堤川역과 인접해있어 하루1만여명의 여행객들이 붐비며 역전일대가 24시간 개방돼 이곳 주민들은 대부분 숙박업과 유흥음식점 영업에 의존, 민심이 각박해져가고 있는점을 감안, 가훈을통해 건전한 가정을 갖게하자는것.

설악산 飛龍橋·金剛窟·울산바위계단 國家귀속해 無料개방

【東草=聯】관광객들로부터 통행료를 받아오던 국립공원 雪嶽山의 飛龍橋·六潭吊橋·金剛窟및 蔚山바위계단등 4개 개인시설물이 국가에 귀속, 앞으로는 무료 개방된다.

飛龍橋 소유권을 갖고있는 李基培씨(43·강원도襄陽郡降峴面上福里)등 이들 개인시설물 소유권자 4명은 29일 이시설물들의 소유권과관리권을 모두 국가에 기부채납키로 결정, 이를 강원도당국에 통보했다.

도관계자는『이들 시설물의 국가귀속절차가 끝나면 무료개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飛龍橋등 이들 시설물은 지난65년6월부터 67년10월 사이 개인이 부자 설치된것으로 雪嶽山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난 70년이후에도 계속 통행료를 받아왔다.

鑛山지구 주민들에 移動병원 운영키로

【寧越=聯】강원도寧越郡보건소는 30일 관내의약사회의 지원을받아 해발1천m의 산간벽지인 玉洞광산지구에서 3천5백여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치료이동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下東面法文里에 설치된 이동병원은 내과·외과·한방과등 9개과에 의사9명·간호원9명·약사10명등 모두 43명이 참여, 경미한 환자는 현장치료하고 심한경우 정밀검사후 입원치료시키고있다.

觀客동원 2백26만명 美術5千年展 美巡廻展 폐막

미국을 순회전시중이던 한국미술5천년전이 워싱턴展을 끝으로 30일 막을내렸다.

국보 46점등 총3백54점을 선보인 한국미술5천년전은 지난 79년5월1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 2년5개월동안 시애틀, 시카고, 클리블랜드, 보스턴, 뉴욕, 캔자스시티, 워싱턴등 미국 8대주요도시를 순회, 도합 2백26만3천6백38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특히 지난 7월15일부터 30일까지 열린 워싱턴전시회에는 1백21만명의 관람객이 몰려들었고, 샌프란시스코에서는 54만7천명이, 뉴욕에서는 13만7천명이 각각 한국미술품을 감상했다.

한국미술5천년전이 열린 각지마다 전시기간동안 한국문화와 예술에 관한 학술심포지엄과 강연회가 곁들여지고, 문화영화가 상영돼 한국미술붐을 일으켰다.

2년5개월간의 전시기간동안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타임 CBS, NBC등 미국의 주요 매스컴은 1천4백49회에 걸쳐 한국미술에 관한 특집, 논평및 기사를 싣거나 보도했다.

한국미술5천년전의 미국순회는 미국의 일부 지식인과 미술전문가및 일부 시민들의 한국미술에 대한 인식 및 개념을 새롭게 했고 재미동포들에게 긍지를 심어주었으며 韓美수교 1백주년을 앞둔 싯점에서 한국의 對美문화외교에 큰역할을 한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70億弗線 도달 建設수출 크게신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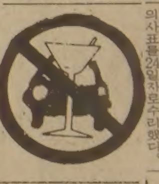
올들어 건설수출이 크게호조를 보여 3·4분기중 올해 연간목표를 초과달성했으며 이같은 해외건설의 活況이 미진한 회복국면에 머물고있는 국내경제에 커다란 활력소역할을 할것으로 기대되고있다.

30일 건설부에 따르면 올들어 이날까지 해외건설受注額은 공식집계상 69억7천9백만달러나 이미 계약체결까지 끝났으면서도 아직 공식집계에서 빠져있는 大宇開發의 리비아공사 약10억달러를 합치면 사실상의 수주액은 약 80억달러에 달해 올해 연간목표 70억달러를 무려 10억달러 초과했다.

延大간 金曦洙교수 成大 辭表수리

成均館大는 29일 延世大로 교직을 옮긴 金曦洙교수(53)의 사표를 24일자로 수리했다.

한국最初 山불鎭火훈련 洪川 斗村面서, 헬機5臺등 참가



우리나라 최대규모의 산불진화기동소방훈련이 30일 강원洪川郡斗村面長南里야산일대에서 실시됐다.

이날 훈련에는 산림청항공대소속 헬기5대와 무전기15대, 각종 고성능 펌프65대, 휴대용기상관측기 80대와 소방원등 4백여명이 참가했다.

이번훈련은 산림청이 산불로인한 산림재해를 막고 국민들에게 산불경각심을 심어주기위해 실시한것.

산림청집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는 2백33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화인별로는 입산자 실화가 1백33건(57%)으로 가장많았고 논밭두렁 소각이 52건(23%), 어린이 불장난이 15건(6%)이었다.

균형있는 交易擴大 다짐 韓英통상장관 共同聲明 발표

韓·英통상장관 회담이 10일(한국시간) 徐錫俊상공부장관과 존·비펜영국貿易省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영국무역성회의실에서 열려 韓·英양국간의 교역확대를 다짐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폐막했다.

이날발표된 공동성명에서 徐錫俊상공부장관은 80년대에 한국이 英國의 총대외교역 규모의 1%에 달하도록 공동노력할것을 제안했으며, 양국의 통상장관들은 이 목표가 균형있는 교역확대를 통해 도달되도록 노력하자고 다짐했다.

제3국에서 영국과 한국기업이 양국간의 공동진출의 확대에 대해서도 깊은관심을 표명했다.

徐장관은 또 韓國의 對EC수출의 약50%가 각종수입규제로 양측교역확대에 불리하게되고있는 사실에 관심을 표명하고 GSP제도의 수혜와 관련하여 일부품목의관세쿼터삭제와 타품목의 쿼터증가의 경부를 제안했다.

비펜장관은 이에대해 호의적인고려를 약속했다.

金東里소설「乙火」 노벨賞후보에 올라

이달중 확정, 우리文學수준 評價계기

○…金東里씨의 소설「乙火」가 한국문학으로서는 처음으로 노벨문학상 심사후보 작품 리스트에 올라, 遠距離에서나마 한국문학과 노벨 문학상이 일단 접촉을 하게 됐다.

우리나라 문학계는 지난 69년도부터 스웨덴 한림원으로부터 노벨문학상 후보작품 추천을 의뢰받았으나, 번역이 ...

○…스웨덴 한림원에 제출된「乙火」는 한국문화진흥재단(대표 毛允淑)이 번역자 安正孝씨에게 의뢰해서 英譯, 스웨덴 한림원에 정식으로 등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한국문학이 노벨문학상에 접근할 수 있는 좋은계기가 된 점을 이익으로 지적한다.

○…「乙火」는 日帝시대를 배경으로 삼아 샤머니즘이 지니고있는 동양적인 철학을 주제로한 작품으로 스웨덴 한림원측에서 노벨문학상 후보작들에 기대하는 각 지역의 鄕土性을 진하게 갖춘소설로 꼽히고있다. 노벨상은 해마다 10월 한달안으로 결정되며, 문학상의경우 10월초순에서 중순께 발표된다. 【桂】

탁구상비군 후보16名 選拔

李壽子17勝2敗(B組)·辛康淑15勝4敗(A組)首位

선발戰 폐막

◇공격형으로 두각 朴末粉 — 상비군 2차 선발전에서 공격형 선수로 두각을 나타낸 경주 慶花女高의 朴末粉。

탁구국가상비군 선발 2차전이 30일 蔚興대표팀훈련원에서 폐막, 남녀 각각16명씩의 상비군후보가 선발됐다.

여자 B조에서 연승, 독주하던 李壽子(제일모직)는 뜻밖에 白良美(서울 여상)·金淑(이일여고)에게 각각 2-1로 패배했으나 17승2패로 수위를 차지했다.

前국가대표 辛康淑(동아건설)은 여자 A조서 분전, 金貞美(시온고)·梁英子(이일여고)·許서淑(동아건설)을 2위로제치고 15승4패의 수위를 차지했다.

남자 A조서는 金浣·李在勳(이상제일합섬)이 1·2위를, 동B조서는 盧潤寬(국정교과서)이 17승2패, 金琦澤(제일합섬)이 16승3패로 1·2위를 차지했다.

◇종합성적

▲남자A조=①金浣(제일합섬)18승1패②李在勳(〃)15승4패③安孝亨(금성고)14승5패④朴昌益(신진공고)13승6패⑤金正默(청주고)李晶勳(국정교과서)崔世龍(전남대)이상 12승7패⑧申東炫(국정교과서)11승8패

▲남자B조=①盧潤寬(국정교과서)17승2패②金琦澤(제일합섬)16승3패③金容鉉(여수고)尹吉重(육군)이상 15승4패⑤吳炳禹(제일합섬)權五澤(한성대)이상 14승5패⑦韓春澤(강원대)安炳俊(시온고)이상12승7패

▲여자A조=①辛康淑(동아건설)15승4패②金貞美(시온고)梁英子(이일여고)이상 14승5패⑤朴末達(서울신탁은)黃男淑(동아건설)申得花(부산코카콜라)이상 13승6패⑦金明熙·金順粉(이상 제일모직)이상 12승7패

▲여자B조=①李壽子(제일모직)17승2패②李慶子(제일모직)朴末粉(근화여고)이상 14승5패④安海淑(동아건설)13승6패⑥李유경(상은)金恩喜 金淑(이상 이일여고)이상 12승7패⑧尹環美(서울신탁)11승8패

韓國선수 10명랭크 WBC, 랭킹發表

【멕시코시티30日UPI=聯】세계권투평의회(WBC)는 29일 WBC 9월 각체급랭킹을 발표, 토머스·즈와의 대전에서 승리를 거둔 웰터급챔피언 슈거·레이·레너드(미국)를『9월의 복서』로 선정하는 한편 슈퍼·플라이급챔피언 金喆鎬등 10명의 한국선수를 랭크시켰다.

◇한국의 WBC랭커 ▲미들급10위 朴鍾八 ▲웰터급6위 黃忠載 ▲슈퍼·라이트급3위 金相賢 ▲슈퍼·페더급9위 金光玟 ▲슈퍼·페더급1위 崔忠日 8위 李日福 ▲슈퍼·밴텀급6위 鄭巡鉉 ▲밴텀급3위 李承勳 ▲슈퍼플라이급챔피언 金喆鎬 ▲플라이급8위 楊弘洙

총지휘자 李于模씨 체전준비위 발표

제62회 전국체전위원회는 29일 이번체전의 총지휘자로 李于模씨(47·서울시교위장학관)를, 대표선서는 李文相씨(46·숭문교교사)를, 그리고 선수대표는 崔圭(25·福祉會)를 각각 선임했다.

80年신인王 李相鎬 日, 가스미와 對戰

프로복싱 80년도 웰터급신인왕이며 프로데뷔이래 17연승(14KO)을 기록하고 있는 李相鎬(元振체육관)는 1일저녁 일본동경 장충체육관에서 日本동급3위 나까오·가스미와 10회전 경기를 벌인다.

韓國, 3일 伊와첫對戰

세계청소년축구 브라질등과 豫選B組속해

【멜번=千一平특파원】3일부터 벌어지는 제3회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에출전할 한국청소년대표팀은 29일 상오9시30분 멜번에 도착했다. 예선B조에 소속된 한국은 대회개막일인 10월3일 이탈리아와 첫경기를갖는다. 예선B조에는 한국, 이탈리아, 루마니아및 브라질이소속되어있다.

멜번의 날씨는 한국의 4월과 비슷하다. 낮최고기온이 22도정도이며 상쾌한 바람이 불어 한국선수들에게는 좋은 느낌.

예선B조팀중 브라질이 지난달25일 이곳에 도착, 현지 적응력을 기르고 있었다.

멜번은 보수적인 인상에 고풍이 풍기는 도시로 한국교민 5백여명이 살고있다. 한국선수들은 멜번 공항에서 尹河璥대사및 黃錫鉉 교민회장등으로부터 영접을 받았다.

한국의 첫상대인 이탈리아의코치 이탈로·아콘시아씨는 이번대회 우승의 향방을 점치는것은 도박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의 대전전망에 대해서는 이탈리아가 경기경험이 풍부한만큼 더유리하다고 자신을 보였다.

FIFA서 促求 "축구競技중 得點기록때 안고입맞추는것 삼가라"

【취리히29日聯】국제축구연맹(FIFA)은 29일 프로축구선수들이 경기중 득점을 기록했을때 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행위가 점잖치 못한 행동이라고 지적하고 이와같은 행위를 삼가라고 촉구했다.

레네·쿠르트 FIFA대변인은 이날 FIFA공식회보를 통해 축구경기장에서 득점이 터질때마다 발생하는『광란에 가까운 소동사태』를 개탄하고 득점한 선수를 위한 축하는 주장선수나 어시스트를한 선수의 격려로 제한적으로 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流星의 賦 <196>

明暗 ⑯

李炳注 作 李友範 畵

이 군졸, 저 군졸의 입에서 김공량의 비행에 관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황도현이란 오십고개를 넘은 군졸이 흥분했다.

『그놈은 자기 배때기를 채우기 위해 복통으로 군량미를 노략질 한 놈 아닌가. 그걸 편안감사도 알고, 병조판서도 알고, 영의정도 알고 있는거라. 그런데도 치죄(治罪)하기는커녕, 한마디 나무라는 말도 없으니 이놈의 세상이 망하지 않고 배기겠는가』

『김귀인의 비위를 거스릴까봐 모두들 안절부절인데 누가 감히 발설이라도 하겠나. 그러나 두고 보라구. 세월백년(歲月百年), 권불십년(權不十年)이라고 하잖는가』

한것은 공덕보.

취기가 돌자 군졸들의 입은 자꾸만 험해졌다. 제낭은 그들의 얘기를 흘려들으면서도 군졸들의 분함을 받지못하는 왕실(王室)의 운명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았다.

(그런 까닭에 역모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다)

인심이 조정을 떠나있다. 그러니 역모가 성공만하면 인심을 모을 수가 있다는 징조가 틀만 있으면, 역모를 하려는 충동으로 나타나는 것일게다.

『한데 김귀인이 아들 넷과 딸 다섯을 두었으니 그 아들 가운데서 동궁이 나타날지 모르지 않는가. 그렇게 되면 김공량의 팔자는 자꾸만 늘어질 판인데 허튼 소리 그만 하고 김공량에게 잘 뵐 궁리들이나 하지』

『군졸이란 군졸이 한 말이었는데 김공량에게 잘 뵈서 무슨 신통한 수가 있겠느냐』

고 반문하는 군졸이 있다

『까짓 놈의 구종별배가 될 바에야 허물 발전 말록에 바치놓고 죽겠다』

고 했다.

이어 화제는 동궁책립(東宮冊立)의 문제로 옮아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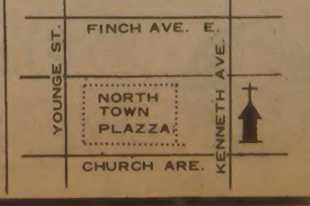
『정실에 왕자가 없고 측실에서 낳은 아들들만 십수인이니 한바탕 피바람이 불것이로구먼』

황도현이 말을 이렇게 꺼내놓자 좌석은 다시 중구난방(衆口難防)으로 되었다. 아닌게 아니라 군졸들이 떠들어 댈만한 원인은 있었다. 김귀인이 낳은 네아들 말고도 공빈(恭嬪)이 낳은 임해군(臨海君), 광해군(光海君)이 있었고 순빈(順嬪)이 낳은 순화군(順和君)이 있었고, 인빈(仁嬪)이 낳은 인성군(仁城君)이 있었고, 정빈(靜嬪)이 낳은 경창군(慶昌君)이 있었고, 온빈(溫嬪)이 낳은 흥안군(興安君) 경평군(慶平君)이 있었다. 후에 계비(繼妃)가 영창대군(永昌大君)을 낳게되는 것이지만 군졸들이 떠들고있는 그 무렵엔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

『입들은 김귀인의 소생 가운데서 동궁을 책립코자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아냐, 뭐니뭐니해도 장유유서(長幼有序)니까 공빈 소생의 임해군과 광해군 사이에서 결판이 날거란』 고 한자도 있었고 『인빈과 김귀인 소생을 다 물리치고 순빈 소생의 순화군을 책립할지도 모른다』 고 버티는 자도 있었다.

아뭏든 피바람이 일것은 필지의 사실이었다. 이왕조(李王朝)의 생리(生理)에 참극(慘劇)의 씨앗이 내재(內在)되어있는 것이다.

생명의 말씀
CITY-TV : 체 널 79
케이블 7
일요일 8 : 30~9AM
MTV : 체 널 47
케이블 4
목요일 12 : 30~1PM

BB THE BESTSELLERS BB
MILLION$ 1,000,000
TARSANDS본고장 꿈 ALSANDS본고장
OIL붐TOWN FORT McMURRAY
A & W DRIVE-IN RESTAURANT
FOR SALE
대지, 건물및 사업체 일절
영업시간 : 11AM~11PM SEATING : 없 음
금년매상 : $1,000,000.00돌파예상 (지난5년간 A & W전 캐나다 매상1위)
위 치 : FORT McMURRAY시내중심가 코너 (장차 금싸라기 땅)
EXCLUSIVE LISTING OF BLOCK BROS
(EDMONTON)
문의는 김 장 환 에게
(403) 454-3217, 452-7950 (JAY KIM)

성령교회
창립2주년 기념예배
일 시 : 1981년10월11일(일)오후2시
장 소 : 성령교회(379 Kenneth Ave. Willowdale)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요3 : 5, 6). 만일 너희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롬8 : 9).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행2 : 17.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엡5 : 26).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엡5 : 18).★
정기집회안내
성경연구 : 매주 금요일 오후8시
주일예배—매주 일요일 오후2시